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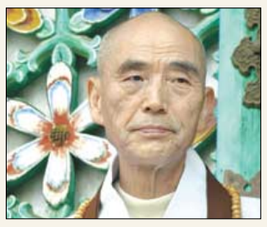
현대불교

우란분절(백중) 등이
새롭게 나옵니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6월 14일(음력 5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582 호



오, 월드컵!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 · 국장 스님과 종무원 등 1백여 명은 6월 9일 붉은 색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북한산을 등반했다. 지관 스님은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날 전 종무원들이 산행을 갖게 돼 뜻깊다"며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 관련기사 3면 사진=고영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



시방세계 9면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개막



도반의 향기 17면
캠퍼스서 만난 '특별한 父子'
울산불교신도회 日성지순례 8면
사찰벽화의 세계 23면

전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발효'

보존구역 경내지 외곽 500m까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6월 5일 국무회의 결의로 최종 개정돼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사법 시행령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범위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통사찰 주위에서 벌어지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2항 신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제7조 2항 신설)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

▲9인 이내 위원중에 5명 이상은 전통사찰 주지를 포함한 불교문화 전문가로 구성,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로 문화재보호법의 사례를 수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시 · 도시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구역을 명시한 도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도 도로와 철도의 건설, 건설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구체화 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사법 법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모두 919곳, 이 가운데 700여 곳을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공원입장료 '폐지'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

관람료사찰주지회의 결의, 전문기관에 정책 연구 의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찬성-문화계 관람료 단독징수"

조계종은 6월 7일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월 1차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후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6년도 제2차 관람료사찰 전체 주지회의(위원장 범여)가 관람료 사찰 주지 일동 명의로 발표한 문건은 단독징수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활동이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지회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국립공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역사와 생태 ·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찰들의 많은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다소 애매하지만 입장료 단독징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관람료 사찰은 23곳으로, 이날 회의에는 전체 72개 관람료 징수 사찰 중 40개 사찰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2면에서 계속

긴급 진단 '일산 황룡사' 사건 계기로 짚어본 각종단 수계 · 종도관리체계

계단 · 행정 허술, '사이비' 대책 역부족

20여 군소종단 정규행자교육원 없어
'호법기능' 도 포기상태…"여력 안돼"

지난해 모 종단으로 출가한 A스님은 승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사찰을 하나 구입해 종단에 등록시킨 후 승려증을 받았다. 행자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종단이 주관하는 승려로서의 소양교육도 받지 않았다. A 스님이 정식 승려증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다.

일부 종단의 수계체계와 종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사회적 물의로까지 번지고 있다. 6월 6일 MBC-TV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경기도 일산 황룡사 혜안 스님의 경우도 행자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소속 종단이 설치한 계단에서 계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8개 종단의 수계 체계와 종도관리 상황을 전화 조사한 결과 대다수 종단이 "종단차원의 수계식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22개 종단이 "정규적인 행자교육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수계식'이 율장과 승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육도 하지 않은채 계만 받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본지의 전화 조사에서 종단협 가입 종단 가운데 '군소종단'으로 지칭되는 20여 종단은 행자교육원이 없었다. 이들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은 각 사찰에서 은사스님에게 개별 교육을 받은 후 종단이 2~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계를 받고 스님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모 종단에서는 수계조차 1:1 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황룡사 주지 혜안 스님도 행자교육을 거치지 않고 태고종 봉원사의 모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이 같은 편법 수계는 종도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단서다. 특히 군소종단들은 종단의 중앙기구와 지역 기구들 간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군소종단 소속의 한 스님은 "종단 행정력이 각 지역의 개별 사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따지고 보면 분담금만 내면 중앙 기구와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털어놓았다. 중앙 기구에 명의를 등록하고 승려증을 받은 이후에는 각자의 사찰운영에 대해 중앙기구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종단 중앙 기구의 종도관리 시스템 부재는 사찰의 '무속화' 등 비불교적 운영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불자 이정선 씨(54 · 서울 성동구 행당동)는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아 처음에는 사찰인줄 알고 집 근처 암자에 나갔는데 매일 굿을 하고 신도들에게 점을 보라고 요구했다. 나중에 주지가 정식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주변에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본지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종단이 '호법 기능(감찰기능)'에도 몹시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단협 소속 28개 종단 중 호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열반종 등 20곳.

그러나 대다수 종단이 직제상 호법부를 둔 것일 뿐 감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실제 10여 종단은 지난해 종단 내 감찰부나 규정부에서 종도들은 조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일붕선교종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군소 종단들이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호법부의 기능이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설사 문제가 발생해 징계하면 즉시 다른 종단으로 승적을 옮겨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나 감시 기능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소속 사찰의 수가 종단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탈종을 염려해 감찰기능을 포기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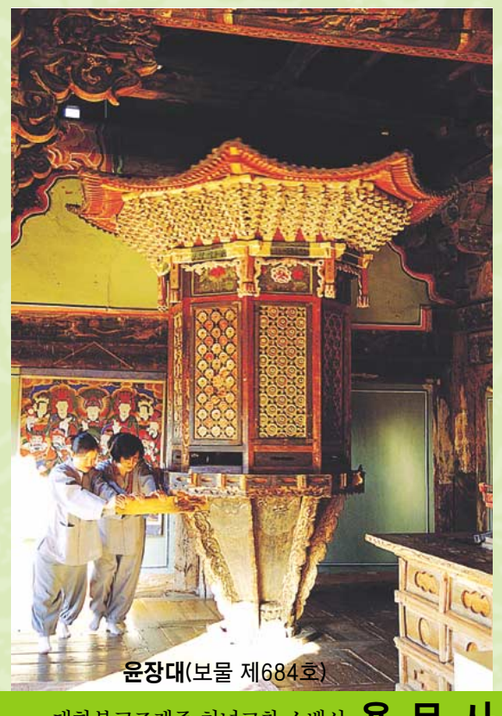
군소종단들의 정체성 확립과 행자교육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시급히 필요한 문제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게 종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종단의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학자들도 "정체성이 각기 다른 종단들이 연합 구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조사에서 모든 종단이 수계체계와 종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종단적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군소종단 소속 스님들의 탁발 무속행위 등 '비행'을 규제할 방안을 종단협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결 같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2년 전에도 비행승려를 단속하기 위해 종단협 차원에서 연합감찰제를 만들자고 결의한 적도 있으며, 올 초 정기이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공조하는 종단의 스님들이 많다"며 "종단협이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규제나 감시에 어려움은 있지만 각 종단들이 힘을 모아 유기적인 정보 교류를 한다면 각 종단 종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이름은 '긴급' 동작은 '늘보'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의사결정 · 실행 기구 달라 늘 '뒷북'

지난 5월 27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9천여 명, 부상자가 1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현지로 전 세계의 구호 온정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최대종단인 조계종도 6월 8일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진 1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선발요원이 현지에 도착해 필요한 구호물품을 구입 ·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계종이 '뒷북' 재난구호봉사대를 파견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봉사단 파견을 처음 발표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당시에는 의료진 중심으로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조직해 현지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 · 31 지방선거로 총무원이 업무를 쉬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 각국 의료진이 대거 몰려있으니 다른 구호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급히 2차 회의를 열어 구호물품 지원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결국 실무자 한 명이 2주 후인 8일 현지로 출국했고, 12일에서야 본진에 합류했다.

반면, 기독교계 기아대책본부와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 긴급구호팀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구호대를 투입, 6월 1일 1차 구호활동을 마친 상태였다. 불교계 NGO단체인 JTS도 지난달 29일 긴급구호활동가 2명을 급파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현장 대응이 늦다는 지적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스리랑카 쓰나미 구호활동에도 재해발생 17일 후인 1월 12일, 파키스탄 지진발생지역에는 사태발생 17일 후인 10월 21일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늑장대응의 원인을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없는 탓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사무국은 복지재단이지만, 정책집행과 재정은 조계종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다.

별도의 의사소통기구를 꾸리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타 구호단체에 비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발의에서부터 봉사대원 모집 및 편성, 파견에 이르기까지 회의와 예산심의를 몇 번씩 거쳐야 한다.

구호기금 확보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확충 없이는 재난구호활동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부에서 '자비의 연꽃' 판매수익을 통한 기금으로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금은 총무원의 승인을 거친 후에야 구호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회부는 상시적인 재난구호를 위해 2억여 원의 긴급재난구호봉사대 구호활동비 책정을 예산으로 올렸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또 의료인, 통역인 등의 전문인력 충원과 재난구호전문가 양성, 해외재난구호활동 매뉴얼 작성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인 복지재단측은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금과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복지재단이 별도의 예산책정비나 인력 없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떠안는 것은 무리"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 박정규 팀장도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현재 종단 내 독자적 구호단체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라며 "월드비젼이나 굿네이버스와 같이 법인화해 예산과 조직을 별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관리부실에 책임 통감"

태고종, 일산 황룡사 관련 사과성명

"조사진행중 PD수첩 방송돼" 해명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6월 6일자 MBC PD수첩에 방영된 경기도 고양시 황룡사 주지 혜안 스님의 무속 행위와 관련, 7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성명서를 통해 "2005년 여름 총무원에 혜안 스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담당자가 1차로 사찰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진정내용을 극구 부인해 일단 무혐의 처리한바 있다"며 "올해 5월 중순 재차 진정이 이뤄져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방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태고종은 "방송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승가에서 있을 수 없는 혹세무민한 행위로서 징벌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데 대해 종단의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 "종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종헌 · 종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종단에서는 승려의 분한과 사찰의 운영 실태를 일제 정비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없이 제보자들만의 의견을 듣고 재연을 통해 구성하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스님들까지 본인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임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6월 6일 '쪽박찬 신도, 대박난 스님' 이라는 제목으로 황룡사 신도 12명이 일산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에 혜안 스님을 집단 고소한 사건을 방영했다.

PD수첩은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 혜안 스님이 △시체썩은 물을 좋은 약물이라고 속여 돈을 받고 팔았던 점 △신도들에게 구병시식을 거의 강제적으로 유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점 △암을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스님인양 거짓 홍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이 방영 된 후 MBC 시청자 게시판과 태고종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어떻게 수계도 안 받고 승려로 행세할 수가 있느냐' '불자로서 너무 부끄러웠다' '태고종은 뭐 하고 있었나' 등의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날 회의의 주된 관심은 역시 문화재 관람료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 가였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정부 여당과 국회의 동의아래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동징수 해온 공원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부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문화연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사실상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헌을 제기한 상태.

이들은 개별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해 불교문화재에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문화재 관람의 의지가 없는 일반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조계종의 입장에서도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후 사찰에서 단독으로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만 단독 징수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다. 1월 현대불교신문이 관람료사찰 관계자 6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장기적인 폐지'를 꼽았을 정도로 불교계의 관람료 징수는 자유스럽지 못한 문제다. 때문에 관람료 징수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종단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기획실 관계자는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편입분석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의 대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의 주된 내용은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제적 분석과 사찰 내 국가지정문화재 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 산정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관람료 수입변동에 따른 재정 대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관람료 단독 징수에 따른 시비를 줄이기 위한 징수위치의 문제, 국민들의 사찰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사설 박물관 수준의 이용객 서비스 확충 등도 조계종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가사 '승복점'서 못 산다

가사원추진단 가사불사 시작

조계종 가사원 설립추진단(위원장 수현)는 6월부터 종단 가사통일을 위한 가사불사를 본격 시행한다. 조계종은 가사통일과 법계제도 정착을 위해 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단공식 가사원을 설립하고 향후 모든 가사를 종단에서만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단최고법계인 대종사(승랍 40년 이상)만 25조(명사는 21조) 가사를 수하는 등, 조계종 스님들은 종단에서 제작한 가사를 법계별 조수에 맞게 수해야 한다.

총무원 관계자는 "가사가 시중에서 합부로 거래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가사원에서만 제작한다"고 밝혔다. (02)3412-7867

조용수 기자

男 208 · 女 120명 대상

31기 행자교육원, 8월 직지사

조계종 제31기 행자교육원이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남행자 208명, 여행자 120명 등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31기 행자교육원은 남행자 습의도감에 덕문, 여행자 습의도감에 용운 스님을 위촉했다.

남동우 기자

지진피해돕기 대법회

천태종 18일 서울삼룡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삼룡사(주지 세운)에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돕기 자비실천대법회'를 연다. '지구촌 형제들에게 자비와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정산 스님이 법어를 한다. 우리은행 1005-300-921193, (02)496-3839

김주일 기자

간화선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석종사에 교육도량…교수사 고우스님 등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지도인력을 양성한다.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은 8월 14~20일 1주일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12월에 1주일간 정진과정을 거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도량은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이며, 교수사는 각화사 태백선원 선덕 고우 스님을 비롯한 선원장스님들이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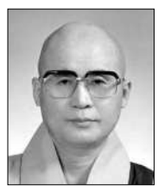
이 양성과정에는 간화선 실참과 교육 경험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스님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강원 · 기본선원 · 동국대 불교대학 · 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단 스님과 재가자 모두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인정하는 선원장급 이상인 스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는 7월 4~6일 포교연구실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60만원.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이수 이후 부여할 명칭과 자격 위상은 추후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종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011-1911

남동우 기자

범어사 前 주지 성오 스님 입적

12일 범어문도葬 엄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동국대 이사 성오 스님이 6월 8일 부산 운수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2세, 법랍 47세. 성오 스님의 영결식은 12일 범어문도장으로 치러졌다.

성오 스님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부터 범어사 대흥사 동화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38안거를 성만했다. 2001년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했다.

풍주선원장 범추 스님 입적

4일 청주청원사암련葬



청주 풍주선원 선원장 범추 스님이 6월 4일 입적했다. 세수 66세, 법랍 57세. 범추 스님의 영결식은 풍주선원에서 청주청원 사암연합회장으로 7일 치러졌다.

범추 스님은 해인사 조계사 직지사 전문강원을 수료하고, 청주경찰서 경승실장, 청주교도소 및 소년원 교화위원으로 1969년부터 재소자 교화를 시작해 충청지역의 포교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994년 제12회 교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圓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葬 寂

訃 告

金井山 雲水寺 會主 牧牛堂 性悟 大禪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50(2006)年 6月 8日(陰 5月 13日) 午前 7時 17分 釜山 金井山 雲水寺에서 圓寂에 드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詩 : 佛紀2550(2006)年 6月 12日(陰 5月 17日) 월요일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金井山 雲水寺
■ 茶 毘 場 : 金井山 雲水寺 茶毘場

證 明 : 법전 지유 지백 능가 지혜 지관 지원 정관 고산 대정 일미 백운 무진장 선용 홍원 향운 선래 성현 흥교 도근 혜운 창도 법윤 여현 혜관 담연 계전 반월 영환 명선 몽산

葬儀委員長 : 대성

葬儀副委員長 : 일원 관조 현성 종상 인각 무비 통광 일석 지환 영배 장윤 영담 혜림 정념

護 喪 : 흥교

葬 儀 委 員 :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도완 정광 원담 진구 장곡 원경 정묵 선광 법등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주 종광 향적 선각 종본 정인 이암 지준 도문 설송 법조 평상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중원 광조 법경 보원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종열 학담 지하 법진 정호 도각 정안 덕문 호진 장윤 성관 현법 정도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홍륜 계호 경륜 정성 혜원 혜원 각명 각우 각진 각현 각현 각현 각명 각현 강하 경찬 경호 고봉 공마 광원 광진 광탄 구도 구주 금정 길상 녹연 능원 능혜 능혜 달원 대일 대혜 덕운 덕진 도림 도암 도암 도영 도진 도현 도희 동성 동수 동오 동제 동초 만상 만엽 만적 명교 명현 목종 무공 무관 무구 무상 무작 무착 백련 범수 범운 범종 범천 범허 법현 법림 법명 법상 법상 법성 법안 법안 법우 법일 법지 법진 법찬 법현 벽산 벽천 보륜 보운 보일 보타 본원 봉곡 삼인 상래 상범 상운 상한 상현 서상 서현 석경 석총 선공 선재 성광 성곤 성남 성만 성범 성본 성인 성진 성진 성진 송강 송음 수연 승원 승혜 신성 안도 약연 오산 완호 우담 운암 원각 원걸 원광 원기 원명 원묘 원범 원봉 원성 원여 원우 원욱 원응 원일 원전 원정 원제 원종 원측 원태 원형 월도 월주 응현 인걸 일각 자현 재범 적인 정경 정공 정근 정만 정목 정범 정오 정오 정일 가영 정한 정현 정호 종덕 종묵 종선 종훈 주용 중봉 지명 지문 지상 지선 지성 지연 지오 지원 지원 지정 지현 지홍 지홍 진명 진석 진성 진성 진실 진오 진용 철암 철우 청강 청암 탄욱 해경 해문 해원 현강 현공 현우 현정 혜관 혜문 혜성 혜수 혜안 혜운 혜원 혜일 혜일 혜장 혜정 혜조 혜종 혜진 혜진 혜총 혜향 홍선 화랑 화중 효성 훈암 경륜 계협 계호 광민 광석 광우 능희 도문 명국 묘선 무아 법수 보문 보원 복선 본각 상일 상화 선공 선행 성우 성진 성화 수경 수현 순행 운달 원광 일선 일오 정묘 정성 종찬 주성 주일 지원 지윤 진욱 타욱 탄성 탄준 태영 현각 혜경 혜법 혜원 혜원 혜전 효준 휴정 흥륜 홍기삼 유주형 황창규 이재창 이홍섭

(관련신행단체) 운수사 신도회 일동, 운수사 총동문회 일동, 지장회 일동, 관음회 일동, 다경회 일동, 금송회 일동, 운수사 합창단 일동, 금강다회 일동, 불영회 일동, 운영회 일동,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일동, 범어사 신도회 일동,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일동, 부산불교연합회 일동,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일동, 부산 불교실업인회 일동, 부산불교거사림회 일동, 학교법인 금정학원 임직원일동, 학교법인 해동학원 임직원 일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직원일동

(교계언론사) 불교신문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

執行委員長 : 몽산

執行副委員長 : 경선

都監 : 석공 **秉法** : 종욱 **儀典** : 정여 수불 범산 **知賓** : 지만 지종 해륜 **財務** : 경흥 **弘報** : 도관 **書記** : 지철
接受 : 용학 석산 **護法** : 정산 의정 **院主** : 선익 **別座** : 고벽 **侍者** : 신묵 해공 제한 **茶角** : 운수사 신도회

門徒 代表 : 초안
恩法 上佐 : 석호 지광 설현 유정 항명 범일 경흥 계현 쾌성 선익 만응 예봉 법해 고벽 혼성 완해 월제 석상 해봉 신묵 과진 환응
孫 上 佐 : 제환 양휴 해공 표훈 응선
在家 弟子 : 조성래 나길준 김영록 이정연 임경윤 안정규 최창용 정재홍 안일탁

千年古刹 金井山 雲水寺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

불교환경연대 인재육성 나서

대학생 5~6명 선발 장학금 지급

불교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불교환경연대가 불교환경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6월 7일 "불교환경과 생태문제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후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극복하고, 인재불사를 불교계 각 분야로 보다 확산시킨다는 취지.

불교환경연대는 환경 · 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6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현장 인턴활동과 해외 NGO 현장 연수, 비상근 실무팀 참여 등의 방법으로 불교환경운동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후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불교와 환경, 경전에 나타난 환경사상, 푸른 사찰 가꾸기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약속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대학원 재학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이며, 6~8월 올해 첫 수혜자가 선정된다.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내소사 주지)은 "그동안 사회참여활동을 펼쳐오면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불교가 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불사라는 각오로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02)720-1654 www.budaeco.org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지자체,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전남도청, 여행사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청은 전문여행사인 하나강산(대표 박정기)과 연계해 대원사를 시작으로 불화사, 화엄사 등 지역 템플스테이 사찰을 이용한 관광 상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청은 왕복교통과 템플스테이,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청과도 컨소시엄을 형성, 도내 관광관련 자문 및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청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알와이이(Rye) 투어, 액소더스 투어와 여행상품 개발을 진행중이며, 충남도청도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사찰 안내 표지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이고은씨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자체와 꾸준한 연관관계를 맺어 템플스테이 사업이 지역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피력해 각종 사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수림장, 상조서비스 시작

수목장 전문업체인 수림장(대표 정다선미)은 6월 8일 상조서비스 대행업체인 (주)두레문화 서울사무소를 서초구 반포동에 마련, 문을 열었다. 두레문화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경조행사를 의뢰받아 처리해주는 업체다.

수림장 법등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해사 등의 수목장은 그동안 불자들에게 국한된 면이 강했는데, 이번 두레문화 상조서비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에까지 수목장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법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월드컵 응원 절에서 함께해요"

6월 9일 공식 개막한 2006독일월드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사찰과 복지관들도 단체응원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3일 밤 10시 열리는 한국과 토고 경기에 맞춰 진행되는 단체응원은 신나는 풍물과 댄스 공연 등이 곁들여져 흥을 돋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13일 밤 10시부터 경내에서 풍물 길놀이를 시작해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 시작 직전에는 400여 명이 보우당에 모여 응원 연습을 하며 경기를 맞는다. 앞서 봉은사는 11일 오전 10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불자국가대표인 이운재?김용대 선수의 가족을 초청해 '2006독일월드컵 승리 발원 특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봉은사 단체응원 준비
문화 공연 · 특별 경품 제공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도 13일 저녁 대웅전 앞마당에 특별무대를 설치해 단체응원을 한다. 조계사는 500여명의 응원동참자 중 이날 경기결과를 맞힌 사람에게는 특별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13일 저녁 대웅전 앞 잔디마당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단체응원을 진행한다.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응원전도 마련됐다.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13일 저녁 8시부터 영등포 문래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부 건강가족문화마당, 2부 가족문화공연, 3부 월드컵 응원연습 및 경기관람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응원은 신효범, 하리수 등 대중가수들의 공연과 청소년 댄스 공연, 단체 꼭짓점 댄스 등으로 꾸며진다.

유철주 기자

독일법당서 대~한민국!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
꼭짓점 댄스 배우기 열풍



2006 독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독일 거주 한국불자들도 월드컵 분위기에 한껏 고조됐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은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에 맞추어 추는 꼭짓점 댄스 배우기에 빠졌다(사진).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의 선전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이 선보인 꼭짓점 댄스는 신도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혜진 스님은 "독일신도들의 어설픈 몸동작이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며 " 독일신도는 독일을 응원하고 한국신도는 한국을 응원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하나되는 마음만은 같다"고 소개했다. 한편 독일지원 어린이부 승호 · 승일 형제는 월드컵 어린이 환영사절단에 선발돼 볼프캉 쇼이블러 내무부장관, 죠셉 블래터 FIFA 회장 등 앞에서 환영메시지를 노래하기도 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임영식 통신원

자세한 내용은 buddhanews.com



KTX 여승무원 노조 박종철인권상 수상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다 정리해고된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들에게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린 인권상이 주어졌다(사진). 불교인권위원회는 파업 100일 하루전인 7일 KTX 여승무원 조합원들에게 제4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박봉영 기자

사립교, 종교강요 개선의지 실종

최근 종교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교육 지침을 중 · 고교에 하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개신교계의 반발로 수위를 대폭 낮춘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일선 중 · 고교에 △특별활동시 특정종교 교육 금지 △종교활동 경진대회 금지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종교 관련 상담창구 상설 운영 등 15가지 유의사항을 담은 장학지도계획을 하달했다. 그러나 "사실상 종교교육을 원천봉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의사항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사학들의 종교강요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서 "불교계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불교철학 교과서 나온다

불교교육련, 총회서 결의…편찬위 구성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교과서가 나온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 이하 불교교육련)는 6월 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고등학생용 철학교과서를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편찬위원회는 동국대 조용길 불교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동국대 김종욱 교수, 편집위원에는 김남일, 김형중, 김홍섭, 유동호 교법사를 각각 선임했다. 간사는 동국대 정성준 박사와 동대부속여중 권진영 교법사가 맡는다.

권진영 간사는 "불교가 기본이지만 동서철학을 전공한 학자를 필진으로 섭외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2007년 8월 30일 교육부에 교과서 사용인정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교육련은 이날 총회에서 나주 세지중학교를 25번째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동대부고 박장옥 교장과 은석초등학교 구연식 교장이 각각 부회장과 감사로 선출됐다.

유철주 기자

"밝은 웃음 되찾았어요"

이라크 폭탄피해 카우서양 치료마치고 귀국

"절망에 빠졌던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준 한국과 한 달 간 가까이서 돌봐준 한국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중 바그다드 폭탄테러 현장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카우서 아델 후팀(4)양이 한국에서 재활 수술을 마치고 6월 13일 고향으로 돌아갔다. 카우서양의 아버지 아델 하팀(40)씨는 "딸아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 너무나 기쁘다"며 "종교를 떠나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불자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웅, 이하 KCRP)의 '한 · 이라크 평화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된 카우서양은 애초 3개월의 치료 일정으로 5월 7일 입국했다. 하지만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입술 교정기도 6개월 이후에나 그 추이를 알 수 있다는 담당 교수의 소견에 따라 조기 출국하게 됐다. 카우서양은 입원기간 동안 입술과 턱, 귀밑 등 네 부위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KCRP 여성위원회의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 활동에 참가해 카우서양을 보살펴 온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봉사자들은 6월 5일 카우서양의 숙소인 서울 서대문 바비앙 호텔에서 조촐한 환송회를 열고 옷과 가방, 신발 등을 선물했다. 한 달간 통역과 간호, 생활 지원 등을 도운 9명의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카우서가 밝은 웃음을 되찾아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숙 원장은 "어렵게 수술을 받은 만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문화사업단, 불교테마여행
안성지역 석불문화재 탐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팀은 6월 17~18일 안성지역의 석불 및 석조문화재를 주제로 1차 불교문화테마여행을 떠난다.

신영훈 한옥문화원장의 설명으로 이뤄지는 이번 테마여행에서는 외국어 신문사 저널리스트, 여행전문기자, 한국관광공사 7개 국어 사이트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의 참가답사후기는 7개 국어로 번역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외국어 신문에 올려질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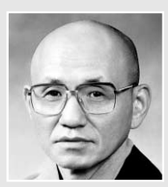
봉

백일 지장기도 및 고승대법회

축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에서는 자성의 빛을 밝히는 지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지옥이 다 빈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원력의 힘을 빌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참회하는 실천행으로 업장의 소멸되어 거듭나는 참다운 모습을 스스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백일 기도 동안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법석을 마련합니다.
원력 충만한 청정한 법문을 통해 어두운 마음의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더불어 인연 잇는 선망 부모 형제, 유주무주고혼의 영혼들이 천도되는 기도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입재 : 6월 13일(음 5. 18) 회향 9월 22일(음 8. 1) 총 11회 • 시간 : 오전 10시 ~ • 장소 : 설법전

입재	초재	2재	3재	4재	5재	6재	7재	8재	9재	회향
										
6월13일 (火:음. 5월 18일) **지유대선사** 범어사 조실	**6월23일** (金:음. 5월 28일) **무진장 큰스님**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7월 3일** (月:음. 6월 8일) **암도 큰스님**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7월 13일** (木:음. 6월 18일) **성수 큰스님** 황대선원 조실	**7월23일** (日:음. 6월 28일) **백운 큰스님** 미륵사 주지	**8월 2일** (水:음. 7월 9일) **종진 큰스님** 해인총림 율주	**8월 12일** (土:음. 7월 19일) **정관 큰스님** 영주암 회주	**8월 22일** (火:음.7월 29일) **혜정 큰스님** 법주사 회주	**9월 1일** (金:윤.7월 9일) **월주큰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9월11일** (月:윤.7월19일) **천운 큰스님** 대흥사 조실	**9월22일** (金:음. 8월 1일) **고산 큰스님** 쌍계사 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梵魚寺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Fax. 051)508-3229 www.beomeosa.co.kr**

2008년 노인수발보험 시행 … 시설 '지각변동'

불교계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전문가 양성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준비사항' 많아
정부 정책 모니터링 · 분석 통해 '최적의 모델' 개발 필요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200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0%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직면해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을 수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사회, 종교단체들 역시 노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불교계는 시설건립, 재원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노인수발, 사회에서 책임진다

6월 7일, 정부는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기본계획의 뚜껑을 열어보면 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심방안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복지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노인복지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올해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및 주 · 야간 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그동안 노인수발을 가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했던 가족들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타종교계는 벌써부터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의식해 노인요양시설 건립, 수발전문가 양성, 호스피스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그간 노인을 위한 별도의 포교 · 복지에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고령자 신도가 많다고 하지만 불교는 몇 년 째 신도 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노심잡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분야 분석결과, 10년간 60대 이상의 종교별 인구 증가율 추이에서 불교계는 50.6% 성장에 그친 반면 개신교는 57.3%, 가톨릭은 162.3% 증가한 것이 그 증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가톨릭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복지를 통한 선교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대상자를 위한 각 종교계의 참여에 따라 종교 파워도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 불교계 시설 늘어나는 추세

현재 조계종을 비롯한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종단 노인요양시설 보유현황은 신도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조계종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신안노인전문요양원 1곳과 조계종 소속 사찰 · 신도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17여 곳을 보유하고 있다.

진각종은 진각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대구보은노인요양원, 인천덕화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종단은 정부의 시책을 타고 노인요양시설 수를 앞 다투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실행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종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소규모 시설 설립 시 국고보조와 시, 군비를 합쳐 많게는 10억 이상, 그룹홈 설립 시 2억여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히자 이에 탄력받은 불교계가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종단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은 지난 2003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정 받아 교구본사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지난 2005년 춘천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을 교구본사 최초로 건립했으며 제16교구 고운사가 올해 안에 건물완공을 목표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또 불국사와 월정사, 은해사도 기초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업체를 입찰하고 있는 등 약 10여 개의 교구본사가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계종은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면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종단 승려 노후복지 실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곳은 천태종이다. 천태종 역시 올해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 각 지역사찰이 지원토록 해 노인요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각종은 올해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한데 이어 8월과 10월 각각 대구서구노인전문요양원과 포항위덕노인요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이어 소규모 복지시설 건립도 활발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노인그룹홈 1개와 노인다기능시설 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정 받았다. 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음'도 부산지역 다기능시설 1개소 지원을 확정 받은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7월부터 노인 그룹홈을 착공하고 정부로부터 6억을 지원받아 지역밀착형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은 자연 퇴출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진은 대표적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인 인덕원 호암마을.

 # "모범사례 공유했으면"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문제는 없는가?

불교계의 갑작스러운 활발한 건립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일단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교구본사별 노인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들 추진 사찰 중 이미 2003년부터 국가보조금 지원확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기공조차 못하는 등 잡음이 들리고 있다. 시군 지자체가 포기해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다른 사찰로 이양된 경우도 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가보조금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나누는 현행 복지정책에 시군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건립을 포기한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구본사별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매끄럽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교구본사별 재정확보 방안이 절실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들 교구본사별로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경우 각 교구본사, 특히 법인시설을 보유하는 교구본사의 운영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질을 빚어도 이를 도울 길이 없다. 현재 무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인 A사의 경우 "각 교구본사들이 요양시설 건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등을 공유했으면 한다"며 현장의 애로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 이용자가 시설 선택…경쟁 불가피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임해영 연구원은 "정작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부의 제도화 방향이나 방침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취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운영되면, 국가가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던 과거와 달리 이용자가 이용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비도심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미달된 곳이 상당히 많으며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불교계 노인요양시설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역 노인요양시설들과 경쟁을 벌이다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관계된 정부정책을 긴밀히 수집하고 불교복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노인복지사업에 관심 있는 사찰, 기관에 주의를 환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노인요양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가 많은 거점지역을 종단에서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안배를 하는 등의 종단적 지원과 각 지역사찰의 해당 지역별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관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노인수발서비스 전문종사자 등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인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또 종단 내에서 현재 활동 중인 불교계 간병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양적인 재고도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이 호스피스 교육을, 사단법인 천수천안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치매도우미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종교에 비해 호스피스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 천태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호스피스 전문봉사단 육성을 위해 매년 4차례 니르바나 자원봉사단 교육을 실시해 1400여 명의 기본교육 수료자를 배출해냈으나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진각복지재단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준비를 위해 법인직영의 진각간병인양성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시스템을 개발, 장기적으로는 산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파견업체 용역인이 아닌 재단 소속 간병인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정 시간만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와 차별을 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60시간 이상 수료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빠르면 내달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단순한 수발사 양성에 그치는 것보다 수발계획을 작성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서비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택 교수는 "불교계 민간단체나 기관이 중증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전문적 수발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불교케어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의 인재양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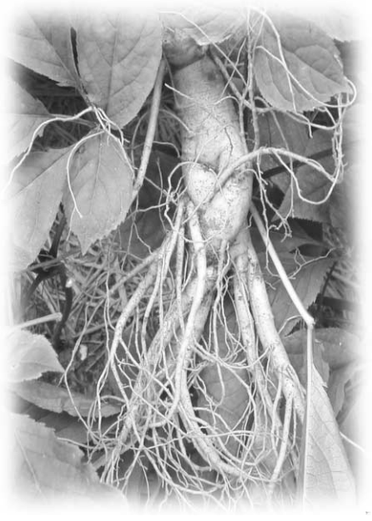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9증 9포 (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 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전화문의 환영

KBS 뉴스 - 홍삼, 두뇌 발달 효과 방영
KBS 뉴스투데이 - 인삼에 항암물질 방영
조선일보 - 홍삼, 고혈압 환자 혈압저하 효과 확인 보도

◎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 황토/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 자연상태에서 건조
◎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천연 솔향 양초 판매"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 약왕사 ☎ 054)371-6665, 010-2513-6665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채식 좋은거 말로 다 못해요”

생명사랑채식실천협, ‘불경에서 본 채식’ 토론



한국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 부산모임 소속 불자들의 토론회 장면.

채식을 꾸준히 해온 채식주의자들이 ‘불경에서 본 채식’이라는 주제로 토론 모임을 가졌다.

6월 7일 부산 서면의 한 채식뷔페에서 열린 모임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고중 씨는 “열반경에 보면 ‘여래께서는 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는 가섭 존자의 질문에 대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이다’고 답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능엄경, 범망경, 능가경 등 여러 대승 경전에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평등관에서 비롯된 불살생과 관련해 채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대안적 삶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채식의 대중화를 위해 최근 창립된 한국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부산 모임(회장 김고중) 회원들이기도 하다. 사찰이나 명상이나 요가 센터 등에서 각자의 수행을 이어오다 채식을 연결고리로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인내 · 포용력 생겨나고 건강 · 자비의 삶 열어줘”

음식을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자비심을 키워주는 도구로 인식한다. 채식이 탐 진 치를 계 정 혜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믿는다.

“술 먹기 좋아하고 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1년 전부터 채식을 한다”는 전은진 씨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던 시간이 줄어들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태동 씨도 “채식을 하면서 각종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던 사랑과 자비심, 인내력, 포용력이 차츰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식물의 생명을 해치고 식물을 먹는 것은 괜찮은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물론 식물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생명체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음식을 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겨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공양으로 받는다는 공양게의 가르침처럼 스스로의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동안 채식을 이어온 고용석씨의 대답이다.

14년 전부터 꾸준히 채식을 실천해왔지만 불경 속에 채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서명자와 김홍련 씨는 채식을 적극 권한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어 채식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실천하기는 힘들어해요. 그러나 육류요리를 안먹으면 세제를 안 써도 되니 환경보호에도 좋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이 없어지고, 고기 1인분 얻을 곡물로 22명을 먹일 수 있다니 굶주리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채식 실천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이들은 7월 15일 오후 4시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채식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채식 강연회 및 시식회를 가질 예정이다. 018-213-754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호국영령 천도 홍법바라밀제

홍법대상에 박명혜 보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호국영령 천도를 위한 제1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6월6일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봉행했다.

6일 오전 10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제는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의 집전 아래 1부 천도재가 봉행됐다. 천도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은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명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보살의 화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의 그릇됨을 잘라내고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베푸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2부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홍법대상 표창, 법문 순으로 봉행됐으며 홍법사 정원에 봉안한 관세음보살 점안식으로 회향됐다.

이날 홍법대상은 용인 법륜사 신도회장인 박명혜 보살이 수상했다. 박명혜보살은 여성불교신도회(보문회)를 발족, 20년동안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전국의 도량불사 및 인재불자에 꾸준히 보시해왔다. 박명혜 보살은 이날 홍법대상 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과 숙원사업 실천을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에 기탁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관련인터뷰 14면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2명에게 30만원, 중학생 4명에게 20만원, 초등학생 2명에게 10만원에게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우리의 ‘형제애’ 누가 말려?

정토만일봉사회 보리수동산

“내 사주에는 아들 50명, 딸 50명이 있다.”

경남 고성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봉사회 보리수동산의 원장 승욱 스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스님의 말 때문인지 요즘 보리수동산의 가족이 부쩍 늘었다. 3살부터 대학 2학년까지 64명의 남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홀로 아이’가 많은 요즘 보리수동산의 대식구가 엮어내는 풍경은 남다르다. 많은 형제들은 부모의 이혼, 가정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보리수동산에 들어와 속앓이를 하면서 더불어 사는 정을 배운 터라 형제애가 남다르다. 64명의 형제자매들은 승욱 스님이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기쁨은 가족 수만큼 키우고 슬픔은 나눠 줄여버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보리수동산 풍물패는 올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풍물로 청소년 전통예술경연 ‘대상’ ‘인기상’ 2관왕

이달 중순 300평 규모 숙소 완성…생활도 ‘호흡 척척’

이렇게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진한 가족애를 나누며 생활하는 보리수동산에 5월 28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보리수동산풍물패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관중들의 투표로 뽑는 인기상까지 받았으니 보리수동산 가족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정식으로 풍물패를 만든 것은 불과 2년 전인데다 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상 수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원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키워주기 주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참가한 대회에서 아이들은 자신감과 희망이라는 또 다른 상을 안고 돌아온 것이다.

경이, 경선 등 개천초등학교에 다니는 13명의 원생들과 정길, 고근, 이슬 등 영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생 1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보리수동산풍물패는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열흘 이상 맹연습을 하며 땀을 흘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강습을 받아왔고, 평소에도 실력을 쌓아왔지만 대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호흡도 맞지 않고 동작도 작아 볼품도 없었다. 그러나 대회 전날 미리 서울에서 온 혜명보육원 친구들 앞에서 풍물 시연을 보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대회 날,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동국대학교에 도착한 보리수동산풍물패가 보여준 공연은 여느 팀들과는 달랐다. 대부분 학교나 사찰, 단체 등에서 모인 팀들인데 반해 보리수동산 풍물패는 가족의 연을 맺은 형제자매이다 보니 호흡이 척척 맞고, 혼연일체가 된 흥겨운 장단은 관중을 사로잡았다.

곽동수 담당 교사는 “우리보다 잘한 팀들도 많았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보리수풍물패의 수상 소식만큼이나 즐거운 또 하나의 소식이 있다. 6월 중순이면 그동안 공사를 진행해왔던 아이들의 숙소가 완공된다. 1 · 2층의 300평 규모로 지어지는 숙소는 아이들에게 풍물패의 수상만큼이나 큰 선물이다. (055)673-5321

천미희 기자

“청소년들에 지혜 찾아주는 場 되길”

피라미타청소년협회 성주사서 경남지부 발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6월 3일 창원 성주사에서 경남지부(지부장 원정 · 사진 오른쪽)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11번째 지부인 경남지부 발대식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을 비롯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석 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가입된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파라미타기, 현판 전달, 인사, 공로패 전달, 임명장 위촉장 전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남지부는 창원, 마산, 진해, 밀양 등 4개 지회와 20여 분회(창원 8개, 마산 8개, 진해 4개, 밀양 3개, 기타 3개)를 결성한 상태이며 앞으로 꾸준히 지회 및 분회를 늘어나갈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올 여름 어린이수련회 “더 재미있게”

동련, 지도자연수회 성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스님)이 6월3일부터 4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제 41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3일 열린 입제식에서 (사)동련 총재 혜총스님은 법어를 통해 “휴무도 반납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며 “여러분은 아이들의 스승인 만큼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5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동련 이사장 지현스님은 “여러분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 같은 존재”라며 “스스로 이 땅을 청정하게 꽃 피우는 씨앗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많은 것을 배워가라”고 말했다.

여름불교학교와 초등학생 토요 휴업제로 특성화된 이번 연수회에서 동련 이사장 지현스님은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자세’에 관한 특강을 했고 경주 향림사 주지 법명 스님과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정일훈 동련 기획팀장은 ‘우리는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 절에 가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연수회에는 서울 조계사 부산 관음사, 강원도 월정사 등 전국 100여곳 사찰에서 온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周 주 易 역 講 강 義 의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 장 소 : 寶 明 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6월 17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 居士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 (법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재단법인 선학원 寶 明 寺 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

봉사는 '살아있는 경전'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들 김천 노인에 무료급식



청암사 학인들이 김천 자비의 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8일 김천 평화동 '자비의쉼터 무료급식공양방'. 사미니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김천사암연합회 사찰이 돌아가면서 매주 목, 금요일 무료급식을 준비하는데, 8일과 9일은 청암사가 맡아 청암사 승가대학 금강회 스님 10여명이 재가신도 6명과 같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나온 것이다.

청암사 학인들이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쇠고기미역국에 김치찜, 쑥갓무침, 노란 콩자반, 삶은 계란이다. 또, 말랑말랑한 인절미랑 야쿠르트까지 준비했다. 국은 식으면 안 되니까 공양방에서 끓이고, 노란 콩자반과 쑥갓무침은 청암사에서 미리 준비했다. 반찬은 모두 학인들이 청암사 텃밭에서 무공해로 재배한 재료로 만들었다. 밥은 청암사 가마솥에서 고슬 고슬 지어 식지 않도록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배식하기 직전에 도감 명관 스님이 공수해왔다.

전날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찌감치 공양방에 도착한 학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다. 금강회 회장 혜문 스님은 음식의 양과 재료 확인, 시간체크에 여념이 없고, 서기 현인 스님은 다음 봉사를 위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는 사이 공양간에서는 미역국이 맛있게 끓었고, 공양방에 나오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배달할 50여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졌다.

"도시락 보자기는 어르신들이 한번에 풀기 좋게 매듭을 지어야 해요."

학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스며든다.

정오, 배식시간이 되자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세 차례로 나눠 공양을 했다. 스님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해 안내하고, 밥, 국, 반찬이 모자랄세라 부지런히 여분의 음식을 날랐다.

"감사합니다. 스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님을 만난 반가움에 덥썩 두 손을 잡고 늘어지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스님의 무공해 반찬에 공양을 몇 번이고 덜어먹는 어르신도 있다.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바쁜 하루였지만 웃음으로 어르신을 대하는 학인들의 모습은 한결같다.

금강회 부회장 남수 스님은 "오늘 하루 어르신들과 하나 되었던가를 점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혜문 스님은 "즐겁고 재밌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2년째 공양방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서순옥(덕해심 · 44) 봉사자는 "무료급식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면서도 푸근하게 잘 진행됐다"고 만족해했다.

텃밭서 직접 재배한 야채로 반찬
하루 일과 꼼꼼히 기록 '다음'에 대비

청암사 금강회는 1991년 12월 불우이웃돕기 탁발을 계기로 92년 12월에 정식 발족한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봉사활동모임이다.

학인들의 십시일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금강회는 어느덧 모든 학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장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심장병 어린이 돕기, 연꽃마을과 양로원 봉사활동, 무의탁노인 돕기,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교도소 봉축 법회 봉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 김천 무료급식공양방의 봉사활동은 98년 9월부터 시작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푸른 잔디 서면 우리도 선수"

대구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축구대회 개최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 주최 대구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축구대회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경북 풍기 대한광복단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비롯된 행사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것.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시작된 축구대회는 4년 만에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구경북 10개 기관에서 400여지체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사진).

1일에는 예선전과 전야제가 열리고 2일에 4강과 준결승 결승전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장애인올림픽 출전까지 넘보는 대동시온재활원이 차지했다.

기관응원상은 색지를 손에 끼고 응원가까지 준비한 구미장애인복지관이 차지했다. 경북장애인복지관은 4강전이 벌어지는 동안 꼭짓점 댄스를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혜승스님과 영주봉화사암연합회장 성공 스님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장 탄하스님등 지역 스님과 이재욱 지체장애인협회 영주지회장 영주신장장애협회 한봉덕 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가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이동 도와드려요"
경주장애인복지관, 하루전 예약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이동에 제약을 받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진료, 은행, 관공서 민원업무, 기타 일상생활에 따른 이용을 도와주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실시한다.

특별운송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주시내지역에 한해 운행되며, 이용요금은 10km이내의 기본거리일 경우 1000 10km 초과시 20km까지는 초과되는 km당 100원씩 추가되며, 20km 초과시에는 초과 km당 200원씩 추가된다.

또, 30분 이상 대기할 때는 10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며 1시간 이상은 대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며, 주2회 이상 이용할 수는 없다. (054)742-1477

배지선 기자

합천군 공무원불자회
이진성 회장 취임



합천군공무원불자회 제2대 이진성 회장(사진)의 취임법회가 6월 3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다. 2002년 4월 창립이후 4년만에 2기 출범을 맞음으로서 합천군 대표적인 신행단체로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성 신임회장(합천읍사무소 읍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별사봉공하는 자세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인사의 지원과 후원을 약속했다. 합천군 공무원불자회는 김강호 이남숙부회장, 주영석 감사, 강황수 총무 등을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류병구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장

대구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모든 역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귀가 실린 포스터 액자를 만날 수 있다. 회색의 도시에서 물질적 욕망에만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시민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잠깐 참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만든다.

이 많은 포스터 액자를 관리하는 주인공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류병구 지부장(51 · 사진)이다.

집 한 켠에 조그만 법당을 마련해 놓고, 문서 문화포교의 장에 뛰어들어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서문화포교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역사내 포교용 액자 설치 등 문서포교 앞장
문화예술단 창단부터 가정 상담까지 척척

2004년 8월 풍경소리와 인연을 맺을 때는 서울에서 보내준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붙이는 일만을 겨우 수행할 수 있을 뿐 임원진 하나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발로 뛰어야 했고, 광고회사가 아니냐는 오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류 지부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협찬을 하겠다는 사찰의 협찬 제의는 과감히 거절하면서 문서포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 신행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재정적인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찬비의 모든 관리는 중앙에 맡긴 채 월 10여만원(협찬비의 50%)만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다.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에는 이제 40여명의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회장 김길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80여명의 포교위원이 대구지하철 1, 2호선 112개역사와 국철 68개 역사에 부착된 포스터 액자를 관리하고 각 사찰 화장실에 엽서크기의 포교용 액자설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의 덕망 있는 일곱 분의 스님을 지도위원(위원장 지운)으로 모시고 바른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단도 창단했다.

"재산은 없지만 재능을 가진 인적 재산은 풍부하다"는 것이 류 지부장의 자랑이다. 순수 포교목적으로 지난해 6월 은해사 솔밭에서 개최한 작은 음악회는 신도와 사찰을 연결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훌륭한 장이 됐고, 지난 초파일에는 언양 보덕사에서 초파일 법요식 일체를 맡아 진행하면서 지역불자들에게 육법공양부터 시작하는 여법한 법요식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조계종 포교사 출신으로 사찰과 신도들의 사소한 어려움까지 살피며 돕는 류지부장은 이제 지역불교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감초가 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스님들에게서 다양한 문의전화를 받는다. '밭에 고추를 처음 심었는데 봐 달라',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는 등의 사소한 상담까지도 잇고 있는 것.

13년 전 동생의 사업보증으로 모든 물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다시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류병구 지부장은 6월 17일 오후 3시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창립3주년을 기념하며 지하철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한다.

지하철역사의 한 켠을 문화공간으로 내어준 데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회향하려는 것이다. 류 지부장은 법회를 계기로 대구지하철 법우회의 창립과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류병구 지부장은 특별한 발원이 없다.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갈 뿐.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명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초의선사 탄생 220주년 기념

차 교육관 문열어

학술문화제 · 차음식 맛보기 등 행사 다채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가 6월 3~4일 양일간 전남 무안군 삼향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열렸다.

초의선사 탄생 2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문화제는 초의선사 다(茶) 교육관 준공식, 초의동상 헌다제, 초의학술문화제, 각종 차관련 음식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지난 4일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용운 스님, 박준영 전남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차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관 준공식에서 용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말 여가선용을 위한 초의문화학교, 어린이 · 청소년 다도캠프 등 다양한 다도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된 교육관은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아 건립됐다. 81평 규모의 교육관은 바깥쪽 기둥 높이 15자와 내부 기둥 높이 19자는 각각 출가와 득도 때 나이를 나타낸다. 또한 문짝은 법랍과 같은 65개이며 문에는 초의선사가 선과 차에 몰두하며 차 제조법을 전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나무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마감 처리도 차 씨앗을 짜 만든 녹차 기름을 활용했다.



초의선사 동상 앞에서 열린 헌다의식에서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용운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준공식에 이어 교육관 2층에서 열린 '초의선사 학술세미나'에서 '초의의순의 선사상(원광대 김영두교수)' '초의선사의 법복에 관한연구(유복열 박사)' '초의선사의 제다법 고찰(용운 스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초의선사 헌다제와 1000여점의 떡차, 108가지 다식 등 각종 차 관련 음식이 선보였으며 자기나무심기, 초의찻잔빚기, 초의차제다법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글 · 사진/무안=이준엽 기자



법주사 오리숲 황토로 새 단장

속리산 법주사(주지 도공) 오리(五里)숲이 아스팔트 포장을 벗고 황톳길로 단장됐다.

법주사는 6월 8일 오후 2시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지역 기관장과 법주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톳길 개통식을 가졌다. 새로 단장된 법주사 오리숲 황톳길은 속리산관광호텔에서 법주사 입구까지 2Km이며 보은군의 특성화 상품인 황토를 이용한 환경공법으로 조성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6 · 15 통일축전 개최

'북녘어린이 그림전' 도 열어

6 · 15 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이하 민족통일축전)가 6월 2일 광주 5 · 18기념문화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민족통일축전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명예대회장),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공동대회장), 평화실천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대회 운영위원장)등이 행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행사기간동안 평화실천불교연대와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실천연대(상임대표 임재복)가 공동으로 북녘어린이 그림전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개최한다.

6월 9일부터 17일까지 구 도청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그림전에는 북한 나선시 소재 6개 유치원 원아들이 그린 풍경화 37점과 남녘학생 통일염원 포스터 23점, 석부작 12점이 전시되고있다(사진).

한편 광주에서 열리는 민족통일축전에는 남과 북 해외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해 남북해외합동예술공연과 부문별 상봉행사, 주먹밥 나눔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준엽 기자

일각 선사 10주기 추모법회

회광당 일각 선사 10주기 추모법회가 6월 3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림 방장 보성,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수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함께 수련도량을 가꾸고자 원력을 세우셨는데 다시 오셔서 만인이 깨달음을 얻는 도량을 건립하자"고 회고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탑전 일각선사 부도를 찾아 탑돌이로 회향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농번기 시골 절에서 '국악 한마당' 인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농촌이기에 고급문화가 펼쳐져야 합니다".

호남평야를 바라보는 정읍 정토사 주지 원공 스님의 주장이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에 따라 6월 3일 정토사에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정악과 창작 국악 뮤지컬이 선보였던 것이다.

무대는 정토사 신도와 지역문화인들로 구성된 정토문화마당이 준비했고, 농사중 바쁘다는 모내기철이건만 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정읍 정토사서 국악 뮤지컬 공연

연 2회 수준높은 문화마당 펼쳐

첫 무대에서는 최귀인 가곡 이수자(무형문화재 8호)와 나순철 전통정악회 이사장이 출연해 여창시조, 가곡, 사설 등을 펼쳐보였다.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타루'는 창작 국악 뮤지컬 '구지이야기'를 공연했다. 국악 뮤지컬은 여느 국악과 달리 4명의 국악배우가 극 형식으로 펼치는 무대로 사찰에서 공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년전 시작된 정토문화마당은 매년 봄 · 가을 지역민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꾸미고있다. 그동안 유럽 중세음악을 연주하는 프랑스 원전 연주단 초청공연, 독일 음악가 초청 클래식 고전음악회 등 시골에서 흔치않은 문화마당을 펼쳐왔다.

지역민과 700여년을 함께해온 농촌의 작은사찰 정토사는 문화마당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엽 기자

25년간 불교철학 강의한 강건기 교수 퇴임 강연

전북대 강건기 교수(철학과 · 사진)가 대학 강단에서 25년간의 불교철학 강의를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전북대 철학과는 퇴임하는 강 교수를 위해 6월 2일 전북대 인문과학대학 회의실에서 고별강연 자리를 마련했다. 강 교수의 퇴임강연을 요약 정리했다.

"서구 이원적 사고에서 현대사회 위기 시작"



오늘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과학과 물질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세계이다.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물질적 풍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데에 바로 현대의 고민이 있다.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야말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핵전쟁의 위험, 도덕질서의 붕괴, 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대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전 생명에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을 둘로 보는 서구의 이원적 사유에 있다. 서양적인 사고는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생명을 '부리라'고 했으며, 자연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서는 평화와 공존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도덕질서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지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가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지혜는 인간이 본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과학과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주인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다른 생명과의 단절된 관계를 조화롭게 회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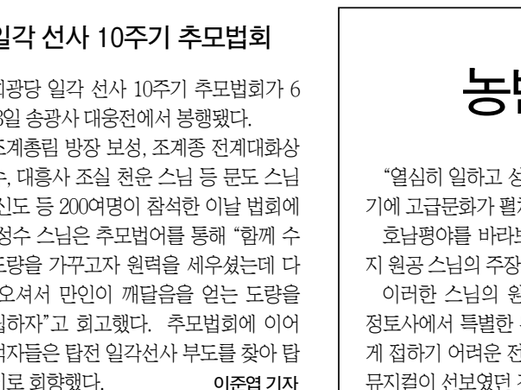
불교는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보다도 새로운 삶의 지혜를 잘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둘이 아니라, 본래 더불어 '하나'로 존재한다는 생명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인 생명사상은 공존과 평화, 조화의 사상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 이런 하나인 사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는 바로 그런 하나인 바탕에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찾고 있다. 그런 '하나'인 세계를 구현하는 길이 바로 불교이다. 따라서 불교는 자기회복, 인간회복의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21세기 문명의 등불이 되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리=이준엽 기자

강건기 교수는 196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79년 뉴욕대 철학박사 학위 수여. 1981년부터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1988년 전북불교대학 설립. 저서로 <불교와의 만남> <마음 닦는 길> <목우자 지눌연구> 등 다수가 있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說禪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일본 정토진종 본산 니시홍간지 고에이도오(개산조인 신랑 스님을 기리는 건물) 방문, 정토진종 국제부 후지노 미노루(맨 왼쪽) 스님의 안내를 받고 있다.

"전통 아끼는 불심에 놀랐어요"

울산불교신도회 간부들 일본성지순례



고야산 혜광원에서 사찰정진요리로 공양하는 신도회원들. 담백하고 정갈한 사찰음식과 공양법은 일본 음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사스님들을 크게 받드는 일본 사람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훌륭한 조사스님들이 많지만 과연 우리는 선조사스님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고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십자가를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는 버스정류장 이름이 절이름인 곳이 많아 인상적이었어요."

황경환 회장의 2월 취임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한 울산불교신도회의 간부진 25명 전원이 6월 3~6일 일본으로 첫 해외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코스는 고야산(高野山) 일대와 나라, 교토. 정토진종 본산인 니시홍간지(西本願寺), 담징의 금당벽화로 유명한 호류지(法隆寺), 우리나라 미륵반가상과 쌍둥이처럼 닮은 일본국보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 있는 코류지(廣隆寺), 소설 <금각사>로 유명한 킨카쿠 로쿠온지(金閣 鹿苑寺), 기요미즈데라(淸水寺), 오사카 등.

울산불교신도회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구성 ▲불자들의 참여의식 고취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펴는 전법 ▲ 울산불교방송 개국 등을 당면과제로 삼았기에 일본불교를 견학하며 현위치를 돌아보고 향후 일본의 유수한 신도회와 교류를 위한 사전점검의 의미도 이번 첫 해외 성지순례에 담았다.

해외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단체와 교류 예정

첫날인 3일에는 와카야마현 고야산을 방문했다. 해발 800m 지점 일대에 자리잡은 분지를 중심으로 약 4㎞에 걸쳐 총본산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 사찰 52곳에 400여 채 건물이 모여 있는 일본불교의 최대 성지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중흥조 홍법 스님의 묘탑을 정점으로 양옆으로 수 ㎞에 걸쳐 늘어서 있는 역대 일본 천황들과 권세가, 지도자, 경제인들의 묘탑 3600여기. 부귀와 권세, 공명을 마음껏 누린 명망가들의 묘탑들이라 이곳은 순례코스로 유명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성찰의 성지이다.

4일, 1만5백여 사찰과 1천2백만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일본 정토진종의 본산 니시홍간지를 방문했다. 정토진종의 개산조 신란(親鸞) 스님을 모신 고에이도오(御影堂)을 비롯 절 경내를 정토진종 국제부 후지노 미노루 스님이 안내해 주었다. 1636년 세워진 고에이도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건물로 현재 대대적으로 보수중이다. 꽃 나무 새 책 동물 등, 방방마다 다양한 소재로 섬세하게 그린 그림들과 장대한 전각 규모가 놀라웠다.

"문화재라든가 사찰의 보존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사람들도 느긋해 보이고 전통을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고석열 부회장과 김화자 울산 불교여성회장은 이구동성으로 고야산의 여러 절들과 호류지, 코류지 등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토로했다.

세계적 성보 백제관음과 미륵반가사유상 참배…명상도

5일 찾은 곳은 담징의 벽화로 유명한 호류지. '구다라(백제) 관음당'에 들어갔을때 모두들 그만 숨을 잠깐 멈추었다. 감로수병을 살풋 왼손에 들고있는 관음보살님은 8등신 날렵한 몸으로 잔잔한 자비미소를 참배객들에게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코류지(廣隆寺)로 가서 그 유명한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친견했다. 손가락을 뺨에 댈락말락, 보살님은 열반의 심오한 미소를 띠고 한국에서 온 불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3배후 참배자리에서 황경환 회장을 비롯 몇몇 불자들이 잠시 명상에 들었다.

순례기간중 토론회도 열었다. '불자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수행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행방법, 교리 등에 대해 문답이 이어졌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실제 수행을 하고 이를 차차 늘려가는 모범을 간부들부터 보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향후 대만, 캄보디아 등의 불교국가를 방문해 좋은 인연을 맺고 21세기 이 시대에 부처님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파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할까 합니다." 황경환 회장은 대만 등 불교국가의 수행단체들과 만나 교류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구태의연한 신행모습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불자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으로 불교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도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견학은 매우 유익했다"는 것이 일본불교를 돌아본 울산불교신도회 간부들의 소감이었다.

글 사진 /일본 고야산= 이경숙 기자



"빗줄기도 불사 열기 못 식히죠"

지상 스님, 군복무 부대에 법당 건립
사비 털어 착공… '호국사' 24일 낙성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에 위치한 11사단 9여단 법당 호국사. 6월 8일 하루종일 비가 내렸지만 법당 신축 공사 현장에는 장병들과 공사 인부 20여명이 분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목은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비가 그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잿빛 작업복을 입고 현장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지상 스님은 공사 인부들에게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며 법당 내부 여기저기를 점검하고 있다.

지상 스님이 기존 호국사를 헐고 신축 법당을 짓는 이유는 장병들이 법회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호국사는 규모가 워낙 작아 장병들이 들어가 법회를 볼 수 없을 정도였고 건물 내부에 누수가 되는 등 열악했다. 90년 자신이 이곳 호국사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면서 출가를 결심해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법당인데다 이같은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자신의 사비를 털어 4월 15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예산이 훨씬 초과되었기 때문. 조계종 군종교구와 11사단 고현등, 김대수 군법사와 신도회 등에서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도움을 주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스님은 지인들에게 토종 가시오가피를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은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불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비가 많이와 걱정이 되어 법당 불사 현장에 찾아온 11사단 호국 화랑사 신도회장 장원섭 중령은 "공사 인부들과 함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작업을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여 공사 자재 등을 보시 받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스님이 이곳 호국사 군종병 출신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많아 불사가 잘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 스님은 은사 스님이신 무량사 홍선 스님이 군법당 법회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1공병 여단 지도법사로 7년을 활동하면서 군포교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그래서 지금도 호국사 불사를 하면서 인근 3기갑 호국 청심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11사단 포병연대, 60사단 등의 군법당 불사를 마쳤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위해 치열했던 전투 지역을 찾아가며 호국 영령제를 봉행하고 있고



호국사 전경(사진 왼쪽)과 작업을 감독하는 지상 스님.



불자 장병들을 위해 찬불가 경연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호국사는 건평 60평의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지지만 전통식 단청과 호국 영령을 위한 영단을 설치해 군현실에 맞는 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현재 법당 내부 장엄과 단청, 조명 등 마무리 작업만 남겨놓은 상태다. 법당 낙성 및 점안식은 6월 24일 오전 9시에 봉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불자를 위해 오전 6시 30분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편도 준비했다.

지상 스님은 "부대 관계자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어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호국사가 군장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호국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1-246-2120, 후원계좌 농협 303074-51-056618 호국청심사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세계종교지도자 누가 왔나


반테 차오 추 태국 WFB 부회장

미야바야시 아키히코 일본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담바자브 몽골불교 종정

룹상세렌 몽골국립대 교수 불교연구소장

담마란트나 프랑스 테라바다 대표

헤티아랏치 스리랑카 자웨와테나푸라대학 교수


구룽 네팔 공공부 조위원회


메나켐 하코헨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


마르와트 파키스탄 WCRP 세계 위원장


앤드루 윈게이트 영국 성필립센터 소장


T.D.싱 인도 힌두교 대표


메이어 아비히 독일 에센대 교수

지구촌 평화와 미래를 위하여

'세계종교지도자대회' 8일 서울서 개막… '화합·평화·지속가능성' 주제로

화합 평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내세운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가 6월 8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막됐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개막식에는 팰럽 타이어리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사무총장을 비롯해 담바자브 몽골불교 종정, 아비히 독일 에센대 교수, 담마란트나 프랑스 테라바다 대표, 마르와트 파키스탄 ACRP 대표(이슬람), 하코헨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 등 20여명의 외국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불교계 종단 수장들과 녹원 오현 법등 스님, 김의정 중신회장, 김용표 교불련 회장 등 불교계 인사, 함세웅 안충석 신부, 박경조 KNCC회장, 백도웅 목사 등 종교계 인사, 이명박 서울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각 종교 신도 1만 여명이 참가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가운데)과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이 우르친데브 몽골 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념·민족·이해의 경계 초월

이홍재 대회 집행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대회장 지관 스님(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념과 민족 그리고 이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공동의 대의를 위해 각성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새 인류 운동을 시작하자"며 "일주일의 일정 동안 인류의 단 하나뿐인 고향 지구촌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뜻 깊은 만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대회사를 밝혔다.


개막식에 참가한 각 종교 신도들이 지도자들의 화합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열린 광장과 같은 서울에서 이번 대회가 시작되는 것이 뜻 깊다"고 말했다.

마르와트 파키스탄 WCRP 세계위원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낸다면, 인류와 평화를 위해 한 평생 헌신한 한국의 전신적 지도자였던 만해 한용운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1만여명이 동참했다.

▲5일간 사찰-성당-성균관 등 한국성지 순례…평화메시지 발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9일 조계사를 시작으로 천주교 제기동 성당, 천태종 관문사, 10일 유교 성균관, 개신교 경동교회, 11일 원불교 서울회관, 천주교 명동성당, 천도교 중앙대교당, 성공회 서울교구 교회, 12일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 경주 석굴암, 불국사, 13일 합천 해인사, 백담사 만해마을 등을 순례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14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릴 폐막식에서 '세계종교지도자 종교화해 인류평화 서울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린다.

서울선언문에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우리는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 속에 공통적인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약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인간적으로 대접하며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 내부에 화해와 미덕을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연대해 우리가 속한 종교적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늘의 폭력적인 상황을 평화의 상황으로, 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친 자연적인 지구공동체로 만드는 희망을 일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선언문에는 경제 종교 생태 정치 문화 사회 포럼의 7개 분야에 걸친 행동강령도 포함됐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interview 팰럽 타이어리 WFB사무총장

"사상의 차이 넘어 의견 교환"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팰럽 타이어리 WFB(세계불교도연합회) 사무총장을 대회 개막에 앞서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팰럽 타이어리 사무총장은 "평화의 목소리로 세계종교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대회라 기대하고 있다"며 "서로 사상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이 대회를 통해 세계 종교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일본에서 세계불교도대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팰럽 타이어리 사무총장은 "그 이전에 한국이나 태국 방콕 등에서 세계 불교도들이 상좌부 · 대승 · 금강승 불교 등 종파의 차이에 상관없이 서로 모여 이해하고 전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 세계평화와 종교화합 국제학술대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와 함께 6월 9~10일에 열린 국제학술대회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은 총 6개과 분과로 나눠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원불교 도교 유교 등의 종교와 평화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헤티아랏치 스리랑카 자웨와테나푸라대학 교수는 '종교와 세계 평화를 주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UN과 같은 기구와 손을 잡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정신적 원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구와 손잡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정신적 원천 제공해야

앤드류 윈게이트 영국 성필립센터 소장은 "모든 종교의 중심에 평화가 있지만 전 세계는 종교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평화를 향한 하나 된 종교적 의견을 제시하고 종교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력하려는 도전은 이번 세계종교지도자대회의 도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온라인 동호회인 보현행원 회원들이 5월 7일 붓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에게 맞는 신행 인터넷에 다 있다

홈피·카페, 테마 신행·봉사활동의 '중심'으로

최근 사찰에 속해 있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동호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성지순례, 경전공부 등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가지고 신행활동에 전력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간화선, 염불, 사경 등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고 도반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신행활동의 경우 정보 교류가 쉽지 않아 분야별 활동 보다는 사찰 중심의 신행활동이 주류였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봉사 및 위문활동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신행활동이다. 다음의 카페인 보현 행원(http://cafe.daum.net/sabee)은 매주 일요일을 자비봉사의 날로 붓다의 집, 복지법인 보현행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매월 넷째주는 성지순례 가는 날로 회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신행 활동을 갖고 있다.

정토마을에서 호스피스를 공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불교호스피스연합(http://cafe.daum.net/BHU) 카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세탁 봉사 등 요일마다 봉사 활동의 내용을 공개해 참석을 권유하고 있고 전국 단위 조직의 사랑방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오프라인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호스피스연합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토사관자재회(http://jungtoh.com)도 호스피스 교육, 관자재 병원 건립 모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설명해 주고 있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온·오프 넘나들며 '법우애' 다져
초심자들엔 불교 이해 폭 넓혀

대구 경산 지역의 군법당 위문을 전담하고 있는 군사랑법우회(http://cafe.daum.net/gunssarang)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3군단 93야포 서천법당 전우들의 모임인 서천법당 법우회(http://suchun.cyworld.com)도 정기적으로 군법당을 위문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행을 통해 불심을 키우는 사이트도 인기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altlovebuddha) 동호회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짝수달에는 전국 회원이 모이는 1박 2일 성지순례를 갖고 홀수 달에는 권역별 모임의 활동을 하며 여행을 통해 불심을 쌓고 있다. 이번달에는 6월 17~18일 순천 송광사에서 사찰 예절, 새벽예불, 산사 포행, 울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미 정원 100명이 모집되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초심 불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여불사(http://cafe.daum.net/LoveBuddha)도 분기마다 사찰 순례, 일일 정진 모임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20~30대 초심 불자들에게 불교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경전 공부 모임은 동영상이나 오디오 등 텍스트가 멀티미디어로 제공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무비 스님의 강의를 직접 맛볼수 있는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에서는 금강경 등 대승불교 경전과 육조단경, 심신명, 증도가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네티즌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원불교대학(http://www.buddhaschool.or.kr)도 최봉수 교수의 초기불교 이해, 허경구 교수의 한국불교사, 김사업 교수의 유식사상 등 다양한 강좌 오프라인과 병행해 서비스 하고 있고 비록 텍스트이긴 하지만 선사 어록, 선사 열전 등을 서비스 하고 있는 선이야기(http://cafe.daum.net/zenmind)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수원 대표 시샵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20~30대 청년 불자들은 대부분 특정한 관심사에서 출발해 불교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 사찰 신행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테마 신행은 신행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8

떨림 방지엔 삼각대 사용해야

카메라 워크

카메라 워크(camera work)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표현하는 촬영기술이다. 간단히 카메라의 움직임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고서는 훌륭한 화면을 얻을 수 없기에 항상 카메라 워크를 고려해 촬영을 해야 한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크게 기본 워크와 이동 촬영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워크에는 고정촬영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정촬영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카메라의 떨림 등이 방지되기에 보는 사람에게 가장 안정된 화면을 보여주어 눈의 피로를 주지 않는다. 다만 피사체가 빠르게 움지이는 경우는 피사체를 화면에서 놓칠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패닝(panning)은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방법이다. 넓은 벌판이나 광장 등을 촬영할때에는 한 화면에 모든 그림을 보여 줄 수 없기에 패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패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90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시작시와 끝날시에는 항상 5분정도 정지 화면을 촬영하는 것이 편집하는데 편리하다.

틸딩(tilting)은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것이다. 카메라의 사용 방법은 패닝과 동일하지만 카메라가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와 화면의 밝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촬영하다가 수직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정면에 있는 건물을 촬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밝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때는 전문가라도 노출량을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절하여 노출 부족을 방지해야만 한다.

주밍(zooming)은 피사체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거나 피사체의 표정이나 중요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당기는 것을 줌인, 가까운 곳의 피사체를 멀리 밀어버리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한다.

이동 촬영은 말 그대로 수레나 유모차처럼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카메라맨이 직접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촬용하는 기법이다. 이동 촬영은 기본 워크보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이동 촬영에는 엘리베이터, 달리, 팔로우, 트랙 등이 있다. 엘리베이터(elevator)는 엘리베이트를 타고 촬영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카메라를 수직으로 이동해 피사체를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달리(dolly)는 피사체를 따라가며 촬영하는 기술이다. 바퀴가 달린 삼각대나 자전거 또는 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피사체의 시점을 대변하므로 보는 사람들에게 같이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팔로우(fallow)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며 촬영하는 기술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트랙(track)은 일정한 거리에 레일을 설치한 후 기차를 타고 촬영하듯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김두식 기자

오지 사찰 '세상과 통했네'

KT, 광대역네트워크 서비스 실시, 전화 인터넷 동시 이용

정보 격차 해소 도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사찰에서도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은 일부 가능했지만 오지의 경우 전화선을 설치 할 수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다.

KT(대표이사 남중수)는 인말샛 위성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네트워크(이하 BGAN)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BGAN 서비스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그동안 인터넷과 전화 이용이 불가능했던 전세계 오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단말기 하나에 여러대의 PC를 동시에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정보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이 열악한 오지 산내 암자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사찰 등에서 실시간 중계 방송, 원격 진료, 위급상황에 필요한 비상전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화통화 요금이 분당 1200원이며 인터넷 요금은 종량제로 1MB 당 7360원이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는 세종류가 출시됐는데 1~2.2kg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쉽고 조작 방법이 간단해 세대 구분 없이 전 계층이 사용 가능하다.

KT는 "BGAN 서비스는 그동안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다"며 "특히 사찰 등 국내에서 오지라고 불려지는 곳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등 해외까지 사용이 가능해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문화콘텐츠 전문가과정 모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5기 수강생을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

6월 19일부터 총 12주간 인터넷 홈페이지(http://contents.connect.or.kr)를 통해 수강신청 및 수업이 이루어지며 문화콘텐츠 전략기획, 마케팅, 저작권, 글로벌,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CT, 문화콘텐츠 PD 등 7개 과정이 개설된다. 불교 경전이 서사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많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의 창작 소재로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스토리텔링 부분이 불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시연꽃 백팔염주



가격: 55,000원

50개 한정 판매, 고급 복주머니 증정
재질 : 연꽃씨앗(가시연꽃)
사이즈 : 13m×21개
(천연 연꽃씨앗으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음)
연꽃이 지고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蓮實)이라 부르며 몸에 지니고 있으면 헤아릴수 없는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시연꽃은 아주 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보호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시연꽃 단주는 불교신자들의 수행용으로 좋습니다.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퍼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 화지에 26도 관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된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협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빌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여성용장지갑 (적색)
남성용중지갑 (검정)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외도를막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뻑뻑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 짝다리, 탈골(원인불명통증), 체형교정사주, 작명, 풍수지리
빙의 (신들림) 출장가능
활법, 기공최면, 전생, 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중고차 상담
스님, 불자님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상/담
최고가 매입!!!
연인권011-216-2603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은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스님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외 각종의식교육)
055)381-1199
055)383-6676

여름 수련 및 휴가 유치
1. 숙식 스스로 해결할 학생단체 (회비 1인 1일 1천원)
2. 숙식제공 학생단체 (회비 1인 1일 6천원)
3. 일반 신행단체 수련대회 (숙식제공 1인 1일 1만원)
4. 휴가, 요양, 기도자, 제인 (숙식제공 1인 1일 1만5천원)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주말농원, 유기농 채소밭 무료임대함
문의010-4512-4248

불심있는 위탁가족 모집합니다
- 절 물려줄 상좌 구함
- 비구니스님 음악 문학 소질 있는 분
- 무료 양로원 5분 모집
▷만계사
043)743-0102(야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남서해안바닷가사찰
041)673-1888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남 고성
011-583-7444

원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구함
불교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운영이 어렵거나 비어있는 암자, 사찰구함
▷서울, 경기지역-대각선원
02)2269-0813
011-785-8813

공양주와 처사님 조용한 절입니다
공양주와 처사님을 모십니다
부부가 함께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삼랑진)011-584-3535

조계종 고찰 한적한 내원암에서 내집처럼 몸담고 신심있게 자기기도하며 살림 맡아 볼 40~50대 공양주 구함. 그리고 40~50대의 평생수행하며 관리할 인연있는 비구니스님을 구함
▷경북 내원암
054)653-118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안산시 제부도 현담동에서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024-4390

스님이 계시지 않는 도량이있으면 맡아서 하고싶습니다
비구승입니다
011-850-0176

산속에 있는 불교미술 전시관 선묵화 배우면서 스님 공양해주실분 구합니다(25~45세)
054)535-0378

경리구합니다
PC 가능한 분
▷경기도 의왕
▷천태종 대안사
031)459-3666

경리보살 구함
신심돈독하고 PC를 잘할 수 있는 분
45세 이하 숙식해야 됨
▷월 보시 100만원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왕룡사원
017-531-77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45-6531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기도하며 살아가실 비구,비구니스님,보살님 모십니다
▷동참금 : 2천만원
018-406-3073

출가사문 비구 도일스님께서 강화도 민가 토굴에서 수행정진 중 무릎과 허리를 응급수술 받고 투병중입니다 도와주실 불자분 연락주십시오
불자 관음 합장
010-9532-0334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 보살님을 구합니다
▷ PC 가능한 자
054) 482-1390

스님이 없는 절이나 가난하여 운영이 어려워 비워놓은 절의 주지원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포교하여 절의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60세 비구
010-3817-7463

비구님 기도스님 두분 모십니다
062)672-0009

신심있는 사무보살님 모십니다
▷ PC 가능한 자
031)952-4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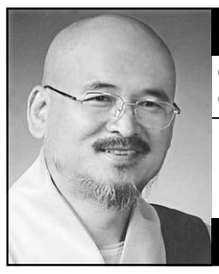
사찰에서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455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30대초반 남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열심히 기도중에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면서 좋은인연이 되실 분 20-30대초반 진실한 불자님을 원합니다
054)430-9466
010-7745-37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구파발전철역10분거리
▷구파발동 시연사
02)352-0572
011-261-0572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익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강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본인은 기도하는 스님입니다.
산행도중 산삼을 캤습니다.
감정결과 지종으로
고려산삼과
25년 두 뿌리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010-8859-6853

하와이 무량사 종무원 모집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신심이 깊고 성실한 불자를 종무원으로 모집합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하와이 주 수도 호놀룰루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사는 미주포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분야 : 종무행정
2. 자격요건
- 연령 : 30~50세(남/여)
- 컴퓨터 사용 가능, 영어 능통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1종 이상)
3. 인원 : 1명(가족동반 가능)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5. 제출기간 : 불기 2550(2006)년 6월 5(월) - 6월 20일 (금) 오후 5시
6. 근무조건 : 숙식제공
7. 혜택 : 미국 종교비자 제공 (2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
8. 서류접수 E-mail: muryangsa@empal.com
9. 문의 :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주지 白

독일 월드컵 기간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합니다
한국선수들의 승리를 위한 성원으로 대불정능엄신주를 독송기도하오니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대불정능엄신주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범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치매예방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3천 (즉시법회,도심속산사)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2억5천(절충가능)
011-9029-7113

포교원안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경남산청 (진주 1시간, 서울 3시간반)
● 임야15000여평, 부지1000여평
● 법당과 황토선방과 현대식 요사채4동, 전기 도로연결, 청정계곡과 소나무들이
● 선풍을드날리는 참선기도도량 4억2천만원
011-312-2936
010-3852-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안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디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에서 10분거리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3천만원
● 6월말까지 인수하실분
019-692-2222

토굴안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 건물 3동
● 가액: 4천만원
010-5631-8439
017-401-4939

절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근천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대지 1161평 중 168평이 전용 건축허가(주택 25평, 창고 15평) 전용부분 토목완료. 건물바닥 기초공사 완료
● 특징: 주위 산세 경관 수려. 배산임수의 명당
● 가액: 6800만원
017-585-4980

위치	부지	가액
• 원주	약 2천평	9억
• 서울	약 100평	13억
• 서울국립공원내	약 500평	5억
• 대구 (불사중)	약 6천평	답사후결정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700평(종교용지)
● 법당: 20평(목조,단청)
● 요사: 40평 ● 기타: 석탑,석등
● 가액 : 2억9천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 위치: 포항시
● 법당 : 35평 (3포,7포,목조,단청)
● 요사 50평
● 가액 : 6억원
● 특징 :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포교당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목조건물 18평(임법당) 슬라브집 요사채 15평
● 가액: 1억6천5백만원
※꼭 사실분 연락바람
011-792-8969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영도
● 대지: 82평
● 1층 요사채 28평 2층 요사채 23평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주차 5대 이상
● 기타 : 꼭 하실분만연락바람
● 가액: 3억2천만원
016-637-6144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지리산 줄기
● 평수: 총 756평
● 건물: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 네개 큰창고
● 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 500평, 건물 :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주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부지(별장겸용)
● 위치: 천안역 10분거리
● 부지 면적: 2100평
● 산세: 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형
● 교통: 2차선 포장도 근접
● 가액: 25만원/평당
041)621-4411
010-3121-3900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가액: 5천3백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61)533-9046
011-631-2954

암자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 법당,산신각,주지실 요사2동,심야보일러
● 가액 : 2억7천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수락산
● 평수: 67평 6층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7-515-752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1억4천만원(가격절충가)
010-9405-928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980평
● 건물 :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
● 가액 : 8억 5천만원
016-342-777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금천구 독산동 20m도로
● 6층건물중 3층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6414-110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 1동
● 평수 :15평
● 방2, 거실1, 다락1, 창고1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4,200만원 (절충가능)
011-881-7888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앞)
● 2층 약 40평(대도로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설치비품대 만나서 절충요)
010-4809-26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금주면 어은리
● 대지: 약 1000평
● 요사채 2채,법당: 약 56평
● 특징: 산신각, 용왕각, 미륵부처님, 가족형 납골묘 여러형태 있음
● 가액: 4억5천만원 정도
010-4809-2638
017-808-05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대구역앞 맞은편(대아빌딩 옆)
● 법당: 20평
● 가액: 월 20만원 (1년 삭월세 240만원)
● 시설비 120만원
● 기타: 답사후가액절충可
010-9961-34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평창 휘닉스키장 근처
● 평수: 약 600평의 군유지 다수사용
● 법당 1동(목조23평) 요사 3동 50평
● 6m×9m 컨테이너1동 화장실 (수세식1동) 삼존불 봉안
● 동양최대의 산신불 봉안(노천) 해발 700고지, 경관수려한 물맑고 많은 계곡접
● 야초를 심고, 돌탑 약 80기
● 가액: 3억1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363-68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중심)
● 대지: 175평 주차장 (100평 별도이용)
● 사찰 법당 33평 요사채1층,2층
● 가액: 3억2천만원
● 특징: 산과 도심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기도포교도량으로 매우 좋습니다
016-510-3455

사찰안내
● 위치: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전세可)
011-452-8374
033) 644-3149

토굴안내(천안)
● 고속시외터미널, 고속도로진입, 두정지하철역 10M거리위치
● 법당, 주방겸 거실 약 8평
● 조립식 가건물
● 삼존불, 기물일체
● 가액 : 1800만원
011-381-110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 203평 현 거래시가 평당 250~260만원정도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두그루 있고 포교적합도량
● 화장실 수세식 4칸,주차 7.8여대 가능
● 주인직접
● 가액 : 사정상(4억3천만원)
010-3133-0018

토굴,전원주택
● 위치: 강원 영월 중동면 녹전
● 면적: 대지 100평, 전800평
● 건평: 현대식 벽돌집 23평
● 경관 수려한 청정지역 독가 -수행처또는 전원주택
● 가액: 1억3천만원
010-3464-0327
033)378-032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만원 1년 월세 일시불 150만원(가)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상가건물 3층건물에 3층
● 건평 50평
● 주방 기구 및 사무집기 시설일체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010-6244-9111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함안
● 4층건물중 2층 옥상사용
● 24평 전체 보일러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주지실 샤워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몸만오시면됨,즉시법회가능 스님, 법사, 보살, 누구든 가능
011-9560-2700

토굴안내
● 위치: 경주 남산기슭 내남사거리부근 촌집(기와)
● 평수 : 114평
● 방2개(한칸은 법당으로 삼존불 모셔져 있음), 공양간 1칸
● 가액 :전세 500만원 혹은 사글세(네고가능)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6천만원 (절충가능)
031) 771-5780
019-592-0323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055)232-7151
011-599-8476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봉터미널 근처
● 35평 5층 건물에 5층 옥상 독 사용, 살림가능
● 특징 : 삼존불 각단 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조절가) 시설비 답사후 절충 즉시법회 가능
011-9816-9383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기차역, 터미널 중심가 최요지
● 평수 40평, 방3칸 관음불, 후불, 신중, 산신, 조왕탱화
● 법당, 주지실, 상담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가액: 보증금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1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스님,법사 모두 가능함
010-5623-2389

포교원 운영하실 원력있는 준비된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 상가 3층 70평)
● 시설 : 대웅전, 삼성각 등 완벽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시설비 상담가능)
※전세 또는 책임지고 운명 등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매매 가능)
018-212-3800

사찰 부지 최적지
● 위치: 금산 진산면 오항리 남이자연휴양림방면 도로접
● 대지: 980평, 전 1883평 답: 877평, 임야 18,436평
● 건물: 황토 목조건물(100평)
● 특징: 자연폭포가 있는 금상첨화 계곡에서 흐르는 깨끗한물 한폭의 그림같은 주변풍경
● 도로: 6m도로 관광버스진입가
● 가액: 13억
LBA노은plus공인
042)477-4224
019-313-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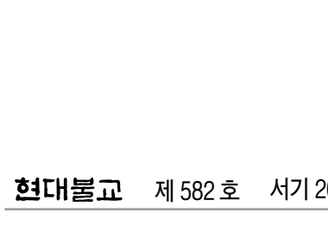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천 복합도시 고속전철 도심지에 청정도량 해발 200미터 왕복4차선에서 500미터, 고속IC 7분거리 대형마트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준농지 700여평
● 태고의 천연약수 임법당30평
● 가액 : 1억 3000만원
054) 433-6315
010-4811-678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 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천룡사지 삼층석탑 탑신석 찾았다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1188호)의 탑신석이 발견돼 석탑의 원형 복원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 윤근일)는 6월 7일 '경주남산(사적 제311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1층 탑신석의 결실된 부분을 현대 축대석 사이에서 발견했다



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1층 탑신석의 모서리 부분은 탱주를 기준으로 경사지게 깨어졌으며, 크기는 높이 39.0㎝, 너비 38~41㎝, 탱주너비 20~21.5㎝로 암질은 흑운모가 많은 알칼리화강암이다(사진의 흰원안). 깨진 표면에는 석탑의 1층 탑신석과 동일한 장석띠를 이루고 있으며, 결합 시 정확하게 접합되어 동일한 부재임이 확인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장미 학예연구사는 "향후 천룡사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천룡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원형복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내
문화재조사 5년 계획 착수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군산 공군기지' '캠프워커' 등 10개 주한미군기지 약 967만 평과 '계룡대' '자운대' 등 우리 군 주둔지 4곳 약 1,414만 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8개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노병철 기자

문화재 사기범 '들방조' 주의

"골동품 고가에 팔아주겠다" 위탁받아 횡령
올들어 전북 · 경남지역서만 10여건 접수

'들방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들방조란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위탁 받아 횡령하는 사기조직을 지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들방조는 왕초격인 전주(장물아비)와 행동대(하수인), 물건을 섭외해 오는 거간꾼으로 조직돼 있다. 들방조에 의해 골동품과 불교미술품 등을 불법 횡령 · 유통시켜온 사건이 올 들어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만 10여건 이상 접수됐다.

실례로 지난 달 전북 전주에서는 각종 불교문화재를 횡령해 내다팔려던 5인조 들방조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청화 스님의 8폭 반야심경병풍을 비롯해 각종 불교관련 미술품과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모란문백자매병 등 6점을 일본으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불교미술 수집가인 김원기(전주시 인후동 · 55)씨에게 소장한 불교 미술품을 시가보다 5배 높은 값에 매입해 주겠다며 속여 김씨에게 청화 스님의 8폭 병풍과 불교미술품 등을 위탁받아 달아났다.

이렇게 들방조에 의한 문화재 피해액은 연간 1백억원에 이른다. 현재 들방조 조직원은 전국에 걸쳐 약 200 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문화재 절도 및 도굴범들과 연계돼 있어 문화재를 가져다주고 자금을 변통해 쓰면서 지속적인 사기행각과 절도 및 도굴 행각까지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김규남 계장에 따르면 들방조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다. 김 계장은 "들방조는 범행대상을 파악해 거간꾼이 문화재를 위탁받아 오면, 행동대가 나서서 인수받아 장물아비에게 물건을 넘기고 10부 이자로 돈을 차용해 쓰며 이러한 횡령이 사건화 될 경우 유령과 같은 바지(사건과 관련 없는 가상인물)를 내세워 바지에게 주었다고 뒤집어 씌워 그를 잠적시켜서 사건을 미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들방조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 될 뻔한 청화 스님의 8폭 반야심경병풍. 앞면엔 반야심경이, 뒷면엔 난(蘭)이 쳐져 있다.

문제는 이 들방조가 더 조직화 ·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 한국에서 들방조에게 사취당한 청화 스님의 8폭 병풍이나 불교문화재가 장물아비의 하수인 김모씨가 북한에서 나온 문화재로 위장해 조선족 최모씨와 함께 서울 문화재 암시장에서 수차례 접선을 시도 한바 있다. 또 일본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허종행 사무관은 "들방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와 미술품의 장물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공개함은 물론 문화재 장물에 대해서는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화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종립학교 종교교재 보완 필요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는 내용과 체재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 종교교과서인 <종교(불교)>는 △목차구성의 수평적 재구성 △현대적 감각의 언어 사용 △문체의 통일과 윤문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 · 사진)는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6월 3일 혜화동 가톨릭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종립학교 종교교과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교수는 '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간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이란 논문에서 '불교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난제인 종파교육을 어떻게 교육적 차원의 종교성 교육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또 김교수는 논문을 통해 "종립학교에서 안고 있는 종교교육의 모호성과 현실적 고민은 종교교육과정과 교재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천태문화硏, 17일 학술대회
관문사서 '법화경 연구' 주제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2006 법화경 연구 특집 춘계학술대회'를 6월 17일 서울 관문사에서 개최한다.

'법화경의 현대적 고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법화경>연구에 대한 현대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되는 논문은 동국대 우제선 교수의 '법화경의 범어필사본과 현대학계의 연구동향' 중앙승가대 서인열 교수의 '법화경의 포교방법 연구'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2>

미래 에너지

인류는 항상 미래를 걱정해 왔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인력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환경과 에너지는 미래사회의 경제, 과학기술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화석연료(석유)의 매장량은 향후 50년 안에 바닥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그 폐기물은 기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35%이상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년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양이 석유 소비량보다 작다는 점에서 석유 고갈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매년 개발되는 석유가 미국 일년 소비량보다 적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위험 · 사후관리비용 높은 원자력 대신
태양 · 바람 이용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자

석유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열강과 약소국간의 '석유전쟁'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그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라크 전이나 러시아와 체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그 좋은 실례다.

대체에너지는 원자력, 수소 등과 같이 석유를 대체할 자원이고 재생에너지는 천연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석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원자력 발전이 핵 폐기물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배출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기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에 비해 고효율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및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간접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핵을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핵 폐기물의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험과 부대 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는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매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배가 넘는다.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태양전지(solar cell)는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된 이미지 센서와 같은 원리로 빛을 전기로 바꾸어 준다. 풍력장치 또한 바람에너지로 날개를 회전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이다.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 그리고 새들에게 방해를 주는 등 단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음식 못지않게 에너지를 버리면서 산다. 사찰의 음식 공양은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음식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서 마음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작게 쓰는 방법을 개발해서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자.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인류에 선사하는 노력이야 말고 보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 일 명 상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
(교수 · 대학원생 · 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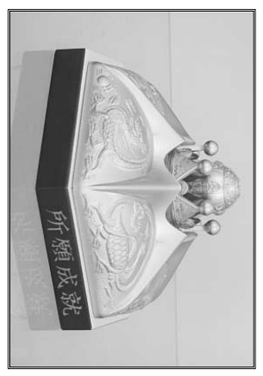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부산)
◆ 대 상 : 스님 및 전문가
◆ 참가비 : 10만원, 학생4만원
◆ 준비물 : 가사, 일반인 수행복 지급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 내용 및 상반기 일정

회차	일시(17시~15시)	내 용
4회	6월 20일~22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 간화선 · 묵조선의 이론과 실기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 비교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 부처님과 프로이드 마음이해비교 · 수행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템플스테이, 법회등)
5회	23일~25일	
6회	7월 11일~13일	
7회	14일~16일	
8회	8월 16일~19일	
9회	9월 19일 ~ 21일	
10회	22일 ~ 24일	
11회	10월 17일 ~ 19일	

※ 짝수 회는 5년 이상의 출가수행자 · 8회는 학인스님 대상입니다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일주문



동화사 제25대 주지로 취임

허운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1시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제25대 주지로 취임한다. 이날 축하 화환 등을 지양하고 난치병어린이돕기 행사가 열린다.



승가자문위원회 회의

한국불교문화산업단장 현고 스님은 6월 15일 공주 마곡사 인근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부지에서 설립과 관련한 승가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불교문화 학술·문예 대축제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 스님은 6월 3일 한국불교문화학회와 함께 대전 불교아카데미에서 제3회 불교문화 학술·문예 대축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평화연대 창립법회

불교평화연대 상임의장 진관 스님(종단협 인권위원장)은 6월 4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부산불교평화연대(상임대표 황정)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신심명과 증도가' 강의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신심명과 증도가'를 강의한다. (02)953-5291



제2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6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불교생태교육 지도자연수회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제1차 불교생태교육 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02)720-1654



청화 스님 초청 특별법회

대구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6월 12일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초청해 '불교의 교육관'에 대해 법문을 듣는 53선지식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경전과 함께…' 저자와 만남

변호사 이상규씨는 6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대륜당에서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02)420-3300



강원도 예비포교사 교육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평창 월정사에서 '강원도 예비포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02)737-7589~9

"사람 기르는 일이 제일 큰 불사"

홍법대상금 불교여성개발원 기탁 박명혜 보살



"이제 불교계도 사찰 불사가 아닌 인재 불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국 불교의 미래도 밝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이 수여하는 홍법대상을 받은 박명혜(74·법명 대도심·용인 법륜사 총신도회장·사진) 보살. 박 회장은 홍법대상 상금 1000만원에 자비 100만원을 합친 1100만원을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에 기탁했다. 여성 불자를 키우는 '인재불사'에 써달라는 뜻에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 기탁금을 법인 설립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청년여성문화원 공동대표와 (사)자행회 회장, 탄허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신행단체 보문회를 이끌며 각종 불사에 앞장섰던 인물로, 올해 불교여성개발원의 '제2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 역시 40여 년 전 '가족 잘 되게 해 달라'는 마음으로 절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찰 건립불사에 참여하면서 '복 짓는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탄허 스님의 '인재 키우는 불사를 하라'는 법문을 들은 후 제 남은 생을 인재 불사에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든 박 회장은 장학사업과 의료비 지원 기금마련, 탄허문화재단 설립 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사찰 불사와 달리 인재 불사 기금 마련은 그리 쉽지 않았다. '사람 키우는 일'이 왜 인등을 켜거나 법당 짓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박 회장은 "2년간 인등 하나 켠다 생각하라"거나 "보이지 않는 구좌에 저금한다는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말로 회원들을 설득했다. 타고난 부지런함과 보시금이라면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꼼꼼히 기록하는 철저함,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덕분일까. 박 회장은 한 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는 신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 <금강경>을 사경하는 박 회장은 "상금만 조용히 전달하려 했는데 언론에 알려지게 돼 부끄럽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재불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문광부 새 종무관 민병하씨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담당관에 민병하씨(사진)가 6월 2일 발령됐다. 민 종무담당관은 2002년 관광국 소속으로 템플스테이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

6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민 종무담당관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찰에 대한 역사와 내면의 컨텐츠에 더 호기심을 느낀다"며 "템플스테이에 좀더 원활한 통역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조용수 기자**

청도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순례하는 청호 스님



경북 청도의 한 스님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가겠다며 길을 나서 화제다.

6월 9일 대구 비슬산 헐티재를 출발한 승불사 주지 청호 스님(51·사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옛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국회의원들에게 민심의 아픔을 구석구석 살펴 달라는 인사말도 전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대한법화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혜륜)은 6월 5일 통영 안정사에서 창종 60주년 기념 및 제17대 포교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종 종정 성파 스님은 법어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생각생각 대비의 교화를 드리워 모든 재액이 소멸되고 해탈을 얻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포교원장 만각,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여,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승가종 창종 5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은 6월 7일 부산 호텔농심 허심청 대청홀에서 창종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본부장 혜공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발원문, 종단연혁 보고, 종정행장 소개, 봉행사, 축사, 찬불공양, 표창, 법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법회는 승가종 종정 월인,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정각,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을 비롯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죽림정사, 용성 스님 탄신 143회 봉찬법회



백용성 스님 탄신 제143회 봉찬법회가 6월 3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장재영 장수군수, 한국희 장수군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죽림정사는 <금광명경> 3만권을 발간하고 무주상 법보시하는 유포식을 가졌다.

일붕 스님 10주기 추모대재 봉행

일붕 스님 원적 10주기 추모대재 및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가 6월 4일 서울 일붕선원 법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봉행위원장 법우 스님 등은 '인류화합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면서 향후 일붕문도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해외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륵종, 밀양에 극락정사포교원 개원



미륵종 경남교구 극락정사(주지 혜인)는 6월 4일 밀양 내이동에 극락정사포교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중앙종회의장 지은 스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을 찾아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어린이집 교사 수련회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회장 정인)는 6월 3~4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33회 어린이집 교사 수련회를 진행했다. 전국 27곳의 불교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련회는 강릉대 김은심 교수의 '유아와 교사를 위한 창의적인 신체표현'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광주 원각사 청년회, 노인초청 무료진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와 불일청년회(회장 김선규)는 6월 4일 광주 서석초등학교 강당에서 '한방 무료진료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도제 스님은 "어르신 모시기에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 300여명은 점심공양을 하고 광주 천운당 한의원 의료진의 무료진료를 받았다.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초교리

·삼귀의	·정근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반야심경	·사홍서원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입정	·산회가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청법가	·기타찬불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법문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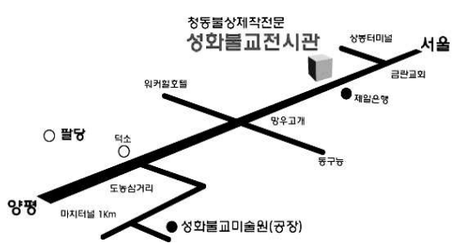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자 세상보기

한 여 선
시인

헌법과 안마 그리고 생존권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이런 저런 분쟁이 어찌 없겠는가. 그래서 법이 있고 우리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 공정하고 엄격할 것을 바란다. 그러나 '공정'과 '평등'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재판관이 바뀌면 달라지는데 있다.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재판관의 이념이나 철학에 의해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쪽으로 뒤집힌다면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안마사로 생계를 꾸려온 시각장애인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했다, 어떤 이는 온몸에 시너를 끼얹으며 분신을 시도하고, 강물에 투신하고, 고속도로에서, 광화문에서, 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 현재도 마포대교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한 것이므로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 공정한 판결일까? 헌법재판소 재판들이 7 : 1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은 불과 3년 전에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위헌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때는 공정한 판결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위헌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자니 개운치 않다.

문제가 된 안마사업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선택가능한 수 만 가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하다시피 한 생업이다. 그 최소의 생존수단을 두고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 조건에서 행해지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쟁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다. 2003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했을까? 아닐 것이다. 달리 선택할 직업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판결이었다고 생각된다.

안마를 생업으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위헌 판결 이전부터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했었다. 무허가 안마업소, 무자격 안마사가 합법적 안마업소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고사(枯死)직전이라며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번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 울타리마저 잃어버린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보면서, 대안마련도 없이 불쑥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점적 안마사업권'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 뒤였다면 시각장애인들이 투신자살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가치관의 절충이 아니라 두 가치관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혜다. 사회적 약자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법을 초월하는 사회적 미덕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자동판매기 운영권의 일부를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건물이나 소유지에 속한 자동판매기 카페테리아 등의 운영권을 주는 미국, 복권판매권을 주는 스페인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위헌 결정보다 우선되었어야 할 일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미래를 향한 불교의 전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 불자는 10년 사이에 16.5%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청소년 종교인구는 10년사이 49.0%에서 50.6%로 1.6%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래에는 사찰 등은 단지 문화 유산으로만 남고 불자들은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인과법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루어진 불사들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라. 사찰, 불상 등의 불사가 주종을 이루었고, 인재불사, 특히 미래 불자들을 키우는 불사는 상대적으로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당장 회수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종단과 사찰 등에서 나몰라라 방치한 세월이 길었던 업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놀라고 당황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미래에 거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가꾸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청소년포교에 총체적 힘을

그 뒤늦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온 힘을 기울이되 근본부터 확실히 다져나가는 청소년 포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단순히 불교가 좋으니까 배우라는 식이어서는 승산이 없다. 청소년층에 맞는 불교문화를 창출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호흡하도록 한다는 큰 계획 아래 범종단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과 적절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 포교가 단위 사찰에서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밑받침하는 강력한 지도가 있어야만 한다.

가장 기본은 불자들에게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일 것이며, 그렇게 일깨워진 의식들이 올바르게 표출되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힘으로 집약되도록 이끄는 일이다. 종단적 차원에서 우선 합리적인 틀을 갖추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나갈 바탕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여 미래불교 활성화의 힘이 커나가도록 고취시켜야 한다. 모든 불자의 힘과 지혜를 여기에 모아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특별기고

대법원의 '도롱뇽 소송' 기각



국책사업 명분앞 '환경독재' 여전

눈에 보이는 개발효과보다 보존효과가 중요

이병인(부산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 교수,
현재 美 오레곤 주립대 교환교수)

좋다. 그래도 좋다. 참 좋은 일이다.

대법원에서 새만금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에 대한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기존의 판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과 과학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점은 또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마지막으로 추인해줬다는 법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중의 하나라고 본다.

처음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속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구체적 사실로 판명되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탐익하거나, 너무 살기에만 바쁜 것 같다. 외형적으로는 독재를 타파하고, 선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시대의 개발관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적어도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환경부문에서는 환경독재가 추진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예나 제나 똑 같이 반복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관행과 관행적 추진이다. 특히 국토의 한줌 정도만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통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북한산이 그렇고, 천성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등이 그렇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환경의 파괴제도일 수도 있다. 온통 개발하려는 사람만 있고, 보존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개발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계량화가 가능하나, 보존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세상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나라의 일은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그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보존지역으로 지정해놓고서 그 지역을 해제도 않고 개발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최소한 개발하고자 한다면 보존지역을 해제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한다. 더욱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미 진행된 일이고, 그 경제적 손실이 아까워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억지이다.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북한산관통도로 문제는 최소한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결정된 사안을 계속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잘못으로 될까 두려워서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였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공주역 등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선거철을 맞아서는 공주역 등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경부고속철도도 애초부터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가 경제적인 것이다.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경주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은 분명한 눈속임이다. 그 점은 최근 개통된 대구-부산간 직선화 고속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울산과 포항 등 동해권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된 사업이라면 그래도 좋다. 왜 경제적, 과학적 타당성을 들먹이며, 스스로의 개발을 합리화시키느냐는 문제이다.

분명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은 사업결정부터, 절차상의 과정부터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사업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그렇다. 문제는 애초에 잘못 낀 단추를 모두들 제대로 끼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 사람들에겐 사업의 결정과 추진만 있을 뿐, 과학적 타당성은 없다. 단지 정치적 합리성만 있다.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대규모사업도 그런데 그 밖의 크고 작은 사업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천성산에 대한 소송기각은 우리 시대 환경의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도 자연에 대한 정의는 스스로 포기한 이 시대의 법수준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한 사회의 정의는 차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자연을 우리 시대가 스스로 내던진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불교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수경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여러 번의 단식은 분명히 이 시대 불교가 이 사회에 던져준 횃불이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직접 몸으로 구현한 실천활동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불교는 한국의 자연과 지구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문제는 반자연적 사회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자연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교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만연된 패배의식에 젖어 또 다시 움츠려들기보다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독재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되살리는 새로운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여러 면에서 불교계의 생명존중과 자연정의에 관한 결과물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고, 기본적인 토대도 갖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결실들을 잘 엮어서 이 시대 자연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때이다.

그런 면에서 천성산 소송에 대한 기각을 확인한 날은 참 좋은 날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참다운 노력에 의하여 이후의 날들은 이 사회속에 사회정의와 함께 자연의 정의도 뿌리내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날이 우리들만의 날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전체 지구인들도 다함께 같이 누려야 할 참으로 좋은 날이기를 바란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6. 23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수료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아 · 름 · 다 · 운

삶 · 사람

/category/bosal.asp

아들 수업 들어가면 아버지는 교정서 참선

향기 도반의

캠퍼스서 만난 '특별한 父子'

태기준거사와 원영군

아버지-희귀병 아들과 매일 함께 등교
불교대학 다니며 '새 삶'…포교일선 나서
원영군-관세음보살 염하는 밝은 '대학생'

 # 아버지 전주에 거주하는 태기준(51)거사는 요즘 아들 원영이와 함께 대학생활에 푹 빠져있다. 언제나 그러하듯 대학 캠퍼스는 젊음 정열 낭만으로 넘쳐난다. 학교정문 옆 소나무밭 아래에서 오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젊은 친구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동화되곤 한다. 벤치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으면 '이뭐꼬' 파장이 지구 넘어 우주까지 퍼진다.

태 거사가 30년 만에 또다시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은 아들 덕분이다.

맏아들 원영이는 우석대학교 보건복지 심리학과 06학번 새내기이다. 의학용어로 근이영양증 환자이다. 영양분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해 서서히 몸 팔 다리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아직 병의 원인은 물론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병의 진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뿐이다.

"원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발병했습니다. 의사 설명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 원영이와 태 거사는 한 몸이 되었다. 등 하교는 물론 한시도 원영이 곁을 떠날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비극이었다.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네 살 터울인 둘째 아들이 입학할 때가 되자 행동이 이상했다. 형과 같은 병세가 나타났다. 아들 둘이 모두 고약한 병에 걸린 것이었다.

이때 우연히 전북불교대학과 인연이 맺어졌다. 불교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엉켜버린 삶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새벽마다 불교대학 법당에서 예불과 기도를 했다. 이때 시작한 새벽예불은 장소를 달리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어느해 여름, 정혜사가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화두를 알고, 꼬이지 않던 다리로 결가부좌를 할 때쯤 되자 팔만사천 번뇌가 그림으로 그려졌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방법도 보이기 마련.

얼굴이 펴졌다. 미소가 끊이지 않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 종교가 달랐던 아이들 엄마도 스스로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이것이 불법이구나 하는 환희심이 났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의욕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포교였다. 인연 있는 이에게 불법을 전하자는 것이었다. 부처님을 만나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혼자만 만끽한다는 것이 죄스럽기조차 했다.

법사과를 졸업하고 전법사가 됐다. 먼저 군법당을 찾았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군법사가 없는 법당을 찾아 법문도 하고 준비해간 음식으로 법담을 나눈다.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이면 불교대학 학인들과 함께 군경묘지를 찾는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가(喪家)에서 찾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영가를 위한 경전을 독송한다.

4년 전, 원영이가 다니는 중학교 옆 상가에 '전북불교 거마평 포교원'을 개설했다. 아이들의 원력이었는지 주불로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 청소년들에게 참선을 알리고 싶었다. 초창기엔 원영이 친구들이 와서 참선을 했다. 그러나 세상은 진학공부에 밀려 아이들이 참선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아쉽게도 포교당은 주로 태 거사 수행도량이 되곤 한다.

 # 아들 원영이의 학교생활은 여느 학생과 다름없다. 아버지가 학교에 바래다주면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캠퍼스를 종횡무진 한다.

수업이 없을때는 동아리 '장애인복지 연합회'가 펼치는 장애학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있다.

원영이가 수업을 받는 동안 아버지는 교실 밖 소나무 밭에서 참선을 한다. 마음을 찾는 큰 학문(大學)을 하기에 아버지도 대학생이라고 자부한다. 항상 당당한 아버지가 좋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공부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입으로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라는 것이에요. 처음엔 별생각이 없었는데 늘상 아버지가 물어요.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된 아버지의 점검으로 '관세음보살'이 끊이지 않게 되자 친구들의 따돌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잠잘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해 가위에 눌릴 때가 많은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몸을 돌려 눕혀주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냐'며 묻는다.

원영이가 하는 관음정근은 특이하다.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큼직하게 써놓고, 마음으로 글씨를 보면서 읽는 것이다. 친구와 말하면서도, 꿈속에서도 보고 읽는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느 때는 하루종일 놓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어디에서 병이 왔는가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구정물이 일어나고, 그 물을 자기가 마시게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은 이미 왔거든요. 다만 이 순간이 중요해요. 저는 꿈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고 이 행복을 만끽할 거예요."

전주/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6> 소동파 (상)

흔히 당송팔대가 라고 불리는 당송시대에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여덟명 중에 세 사람이 소동파(蘇東坡 1036~1101)네 집안이다. 아버지 소순(蘇洵)과 동생 소철(蘇轍)까지 포함된 명문가이다.

소동파는 〈주역〉과 〈서경〉의 주석서를 남겼고 〈전적벽부(前赤壁賦)〉라는 최고의 명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가 즐겨 머리에 둘러 쓴 갓은 얼마나 모양이 특이했던지 '동파건(東坡巾)'이라고 불렸다.

미식가였는지 동파육(東坡肉)이라는 요리가 현재 남아있을 정도다. 그가 항주에 살고 있을 때 자주 만들어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돼지의 갈비살을 간장 설탕 파 술 등으로 양념해 약한 불에 장기간 끓인 것으로 고기가 두부처럼 부드럽고 맛이 좋아 지금도 중화요리집 메뉴판의 한 켠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야를 가리지 않는 만능인인 셈이다.



절집과의 인연도 만만찮다. 사천 아미산 출신인데 8~9세 무렵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전생같은데 승려의 모습으로 섬우(陝右:섬서성 오른쪽 지역)지방을 왕래하는 꿈이었다.

또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였을 때 눈이 하나뿐인 승려가 방문하는 태몽을 이미 꾼 바 있다. 운문문언(864~949)의 제자이며 오조산에서 머물던 사계(師戒)선사는 섬우사람으로 외눈이었는데 열반한지 오십년 전이였다. 동파의 나이가 그 때 49세였으니 사람들은 그를 오조사계의 후신이라고 하여 '계화상(戒和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럼에도 젊은 날에는 불법과 크게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다. 66세때 동림상총(1025~1091) 선사를 만나 불법에 귀의했고 그의 법문을 듣고 안목이 열렸다.

동림선사는 임제종 황룡혜남(1002~1069) 선사의 제자로 '마조가 다시 환생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혜남선사에 비교해 '소남(小南)'이라고 불린 700 대중을 거느린 대 선지식이었다. 소동파의 오도송도 동림선사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을 띠고 있다.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계곡물 소리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요 / 산색은 그 자체로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 어제 밤 깨침으로 다가오는 팔만사천 법문을 / 다른 날에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동림선사가 열반하자 스승을 위해 글을 올렸다.

당당했던 상총 선사이시여(堂堂總公)
출가자 중의 출가자로다(僧中之龍)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은 구름이 되었고(呼吸爲雲)
하품할 때마다 바람이 되었네(噫欠爲風)

소동파는 많은 일화를 절집에 남겼다. 불인요원(1032~1098) 선사는 관복에 걸치고 있던 옥대(玉帶)를 그와 내기를 하여 마침내 빼앗아 버렸다.

불인이 하루는 방에 들어가려는데 약속도 없이 동파거사가 나타나자 말했다.

"이곳엔 앉을 자리가 없어 거사를 모실 수 없소이다."

손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못들어오게 하니 가만있을 동파가 아니다. 바로 맞받아쳤다.

"잠시 스님의 육신을 자리로 빌려서 앉아 봅시다."

앉을 곳이 없다면 스님의 몸을 좌복삼아 그 위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열차나 버스에 표를 한 장만 끊고서 어린애를 안고가는 풍경을 연상하면 된다. 그러면 한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한다. 그런데 어른 둘은?

치기있는 역공을 당한 선사이지만 여유있는 웃음을 날리며 한마디 했다. (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어릴때부터 불교와 인연깊은 빼어난 문장가
동림선사에 귀의 '계성산색…' 오도송 유명

나는 왜 여기서 절을 하고 있나

"천안 한암사불교문화원 주지 원철 스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또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정신이 번쩍했다. 절하기 시작한지 벌써 12시간이 지났다. 속도도 느려지고 물병을 잡는 횟수가 늘어났다.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따금씩 느껴진다. 지금까지 먹은 것이라고는 바나나 한 조각과 물 뿐이다. 절이 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찰나다. 머릿속이 하얗다. 나는 왜 여기에서 절을 하고 있을까.(이은지 · 38)"



1만배 도전한 보살들

여덟 명의 보살들이 하루 꼬박 1만배를 한다고 했다. 짧게는 25시간이나 걸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슨 생각으로 1만배를 자청했을까.

6월 3일 천안 한암사불교문화원 대법당은 신도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후끈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때이른 한여름 날씨로 갈증을 느낄 만한 날씨였다.

여덟 명 보살들 중 세 명은 그동안 하루 1천배씩 1백일을 작정하고 해 온 절수행 회향을 3일 남겨놓고 있다.

세 명은 회향을 더 큰 수행의 입제로 삼자고 뜻을 모았고 1만배를 결의했다. 그동안 1천배 1백일 절수행을 마쳤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살들이 그 뜻에 가세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한 1만배. 시계바늘이 오후 4시로 향하면서 지치기 시작했다. 정진숙 보살(43)이 좌복에서 물러나 다리를 펴고 앉았다. 말을 걸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시간, 김은숙 보살(44) 남편이 옆에 좌복을 깔고 함께 절을 하기 시작했다. 신미녀 보살(38)의 딸 장지예(14)양과 아들 장순민(11)군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 뒤에서 절을 하고 있다. 이들이 1만배를 마친 것은 다음날 오전 7시가 넘어서였다.

갈등 조절할 힘 생겼어요



▶ **이옥향**(45 · 수간호사 출신 · 신행 7년)

처음에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절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천배 1백일 기도를 회향하고 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내 능력을 알고 싶기도 하고 한계상황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요. 아이들요? 없어요, 결혼도 안했는데…. 자유롭죠. 수행다운 수행 한 번 해보고 난 뒤 생각나면 그 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요?

'내안의 나' 만날 것 같아요



▶ **윤명숙**(42 · 단국대 교직원 · 신행 3년)

내가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동안 해 온 1천배 1백일 기도보다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 낼 수 있을 거예요. 1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견딜 만해요. 기자님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래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설득하게 됐어요. 내가 달라져야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절 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으셨죠?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 안의 나'라고 생각해요. 더 해봐야죠. 확신이 들때까지요.

내 마음에서 향기가 납니다



▶ **김은숙**(44 · 음식점 운영 · 신행 4년)

저는요, 진짜 저를 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참 괴로웠지요. 그래서 벗어나자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하면서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서요. 너무도 신기했죠. 108배를 700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1만배 끝나면 참선수행을 할 생각이에요. 내 마음을 보고 싶어요.

그냥 살아온 세월 되찾을 것



▶ **신미녀**(38 · 가정주부 · 신행 6년)

딸이 같이 하고 있으니 죽더라도 끝까지 해야죠. 그냥 살아 온 세월들을 되찾을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문제, 집안 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사는 게 힘들었죠. 그런데 절하면서 내 환경이 이해가 되더군요. 갈등이 점차 줄고 있어요. 절하면서 오히려 살이 쪘죠, 5Kg이나요. 하지만 이게 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뭔가가 더 있을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나' 돌아보면서 변화 느껴

▶ **박은미**(33 · 분장전공 · 신행 6개월)

젊은 사람들 티격태격하며 살잖아요.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요. 한암사에 와서 스님 법문을 듣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절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무속처럼 여기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믿어요. 저도 남편을 믿고요. 믿음이 생겼죠, 1천배 1백일 기도를 하면서부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어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심하고 참회하는 것 배워



▶ **이은지**(38 · 한의사 · 신행 3년)

절을 하면서 하심하고 참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수행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니 불편할 것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수행을 하냐고 물으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물으신 것처럼 지금 불행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은지가 살고 있는데, 이게 이은지 모습인지도 모르겠고요. 확신은 없어요, 나를 찾을 수 있을지는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정리 · 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최고 품질의 악기만 생산하는
양지 국악사
- 불심, 장인정신, 전문성, 품질로 국내 최고의 제품 생산 -
저희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 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하였으며, 그곳에서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함으로,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서 불자고객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율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율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장구 ●북 ●소고 ●징 ●꽹가리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가야금(21현, 22현) ●아쟁 ●거문고 ●해금 ●양금 ●비파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대금 ●소금 ●단소 ●나각 ●태평소 ●피리 ●퉁소 ●당적
◈ 악세서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풍물보 ●상모 ●북받침 ●장고띠 외 일체 기타주문제작
양지국악사 제품문의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HP: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웰빙공사
◆각종 설비공사 일체
◆석재, 부품 일체
◆석, 조각, 석물 일체
◆석, 불상, 좌상, 미륵
◆석, 탑, 마애불상조각
◆건설부문
◆석굴, 납골당 공사
◆석굴, 법당 조성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석 공사 일체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010-4581-4841
이인창 소장 (010-6685-0203)
(株)天星建設

“인재불사 미루면 10년내 위기”

조계종 중신회 인재개발원, 발기인 수련회 개최

“유능한 한 사람이 전체 조직을 살린다.” “인재경영이 대세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경영분야의 모토로 자리 잡은 말들이다. 대중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대중 속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불교계라고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아직도 ‘수공업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첨단산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인재불사에서도 한참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수행 · 신행 붐에 비춰볼 때 불교인재들을 모으는 것은 절실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상임대표 박윤흔)이 6월 3~4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기인 수련회를 열고 ‘인재불사’의 방안을 모색했다.

포교 · 지역불교 활성화의 원동력

6월 3일 열린 워크숍에서 ‘불교계 인재개발의 중요성과 개발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인재불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불교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체기의 불교, 침체기의 개신교, 성장기의 가톨릭’으로 3대 종교를 평가한 김 교수는 “17대 국회의원 종교비율(불교 11.4%)이나 5 · 31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재불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교 인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로 종단의 종책 부재와 불교계 활동 영역 전문화 및 세분화 미흡, 교육 및 연수기관 부재, 스님과 신도들의 무관심 등을 꼽으며 관련 연구소만 40여개에 이르는 기독교의 성장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인재개발이 △포교 역량 강화 △지역불교 활성화 △불교 사상의 사회화 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불교 기본교리와 사상체계 교육 △인재개발에 따른 법회 모델 제시 △수행프로그램 개발 △불교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개발 △상담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적인 불교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청정국토,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종교 벤치마킹하자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가자들은 인재불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불교인재 육성 부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6월 3일 열린 불교인재개발원 수련회에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회지도층 불자비중 갈수록 낮아져
> 종책 부재 · 활동영역 비전문화가 원인
> 개발 모델 · 네트워크 구축 등 과제

금융단불자회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황정석씨는 “사람들을 찾으려 해도 불자들은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며 “자신을 감추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대불련 총동문회 홍경희 조직위원장도 “주위를 보면 인재가 참 많은데, 이 많은 구슬을 꿰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동국대 김용택 부총장은 “불교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 개월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화되지 않은 인재들을 어떻게 수면위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성대 행정학과 황진수 교수는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이웃종교의 포교방식과 인재 육성 방식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과학대 박경희 교수도 “김응철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인재들이 하나둘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인재개발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인재개발원 7월 6일 공식 창립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오는 7월 6일 공식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6월 22일에는 ‘대승기신론과 CEO의 철학’을 주제로 허달 前 SK아카데미 교수가 진행하는 정책포럼을 열 계획이다.

글 · 사진/양평=유철주 기자


경찰불교회는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창립 제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청정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경찰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경불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서 ‘청정운동’ 동참 선언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이하 경불회)가 대한불교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2006청정운동-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동참을 선언했다.

경불회는 6월 4일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봉행한 ‘창립 제5주년 기념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위한 기원법회’에서 경찰 청정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불회는 선언문을 통해 “경찰 청정운동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경불회는 또 “청정운동은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겨레가 수 천 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불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불회 김진홍 상임법사는 “경찰 불자들은 ‘청정운동 신행 수첩’에 하루하루의 실천 사항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140여 지회에서 함께 청정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좋은 생각 하면 날마다 좋은날”

영등포교도소 류화영 교회사



류화영 교회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서울 영등포교도소 류화영(52 · 해운) 교회사(敎誨師, 종교를 통해 재소자 교화를 담당하는 사람)는 항상 이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새기며 산다.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꼭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재소자들에게도 항상 일체유심조를 강조합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하다보면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일체유심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녹아 있다고 말하는 류 교회사는 그래서 ‘날마다 좋은날’이다. 안양 집에 조성한 불단에 매일 새벽예불을 올리고 1시간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재소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교도소 행정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재소자 1100여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보니 ‘아버지’ ‘친구’ ‘아들’의 1인 3역을 해내야 한다.

“대부분의 재소자가 기혼자들입니다. 그래서 수감되는 순간부터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없이 사라져버린 부인, 행방불명된 아이들 문제로 재소자들은 하루에도 수백번씩 갈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요. 또 이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업무지요.”

그래서 류 교회사의 책상에는 항상 염주와 경전이 쌓여 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재소자들에게 언제라도 나눠주기 위해서다.

거리에서 만나는 불자들에게도 염주와 경전을 조건없이 나눠준다.

류 교회사가 이렇게 신행과 재소자 포교활동을 해온지도 벌써 30년. 1977년 1월부터 교정 업무를 시작해 전주, 안양, 춘천, 강릉, 의정부, 서울 등 전국 10여개 교정시설을 거쳐 영등포교도소에 왔다.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스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고성 건봉사 회주 영도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 등이 각종 물품을 보내주시니 저는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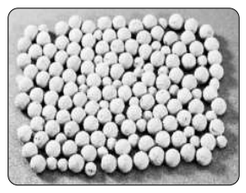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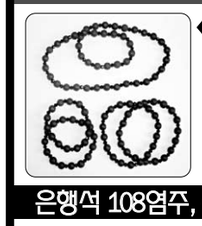
그리 넉넉하지 못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님들의 풍성한 후원이었다고 전하는 류 교회사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을 만나 모든 죄를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조계사와 승가사, 문수사 등 서울시내 사찰 3곳 이상을 참배해야 다음 일주일이 편안하다는 류 교회사에게 평일과 휴일이 따로 없다. 오직 부처님과 재소자와 함께 하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영도 큼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5>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무명 타파할때 생사문제 해결
깨친 후 선지식에 점검 받아야

23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語之輩 說時似悟 對境還迷 所謂 言行相違者也

말만 배운 사람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이 보이지만 실제 경계를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그만 아득해져 버리니, 말하자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 있다.

이것은 서산 스님이 22장에서 "총명한 사람이라도 지어놓은 업을 뿌리칠 수는 없고, 알음알이 쓸모없는 지혜로는 쳇바퀴처럼 이어지는 고통을 면치 못하니, 모름지기 한 생각을 살피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 뜻을 매듭지어 한 말이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그 말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선가귀감>을 번역한 <깨달음의 거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여 자세히 설명한다.

"종교를 지혜와 자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일상생활에까지 미쳐야 한다. 종교는 메마른 이론보다도 실제의 행동을 중요시한다. 이론은 행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의 위선도 바로 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데서 비롯한다. 절대적인 세계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보편적인 일상에까지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 체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4장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한 생각이 툭 터져야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다고 한다.

若欲敵生死 須得這一念子 爆地一破 方了得生死

중생의 생사를 해결하려면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툭 터져야 비로소 생사의 실체를 알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 대목을 풀이하여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툭 터진다는 것은 '칠통 같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하는 소리'다. 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한 뒤에서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오직 이 일만이 있었을 뿐이다[爆地 打破漆桶聲 打破漆桶然後 生死可敵也 諸佛因地法行者 只此而已]"라고 말한다.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툭 터졌다고 하는 '타파칠통(打破漆桶)'은 선림(禪林)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서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를 말한다. 칠통은 새까만 옻을 담아 두는 통을 말하는데, 이 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통 밖이나 안이 모두 새까매져 그 통 자체의 처음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주 먼 과거부터 쌓여온 우리들의 무명 번뇌가 '본래 갖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먹장구름처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을 까만 칠통에 비유한다. 우리들이 어느 날 번뇌에서 해탈하면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큰 깨달음이 드러날 때, 이때를 칠통같은 무명을 타파했다고 하여 '타파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종에선 '깨달음 얻는 것'을 종종 이 말로 표현한다.

<벽암록> 97칙에서도 "아무리 살피고 살펴보아도 마음 댈 곳이 없으니 어느 곳을 향하여 밝은 구슬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칠통을 타파해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깨달음을 얻고자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번역한 '인지법행(因地法行)'은 <원각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다. 공부해서 깨달음을 완성한 경지를 '과지(果地)'라고 하면, 부처님의 씨앗을 길러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인지(因地)'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法)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행(行)이니, 부처님 세상으로 향하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인지법행'이다. 화두 참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두를 깨치는 일만'이 그들의 '인지법행'이 될 것이다.

<선가귀감> 25장에서는 한 생각을 깨친 뒤에는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반드시 점검 받을 것을 당부한다.

然一念子 爆地一破然後 須訪明師 決擇正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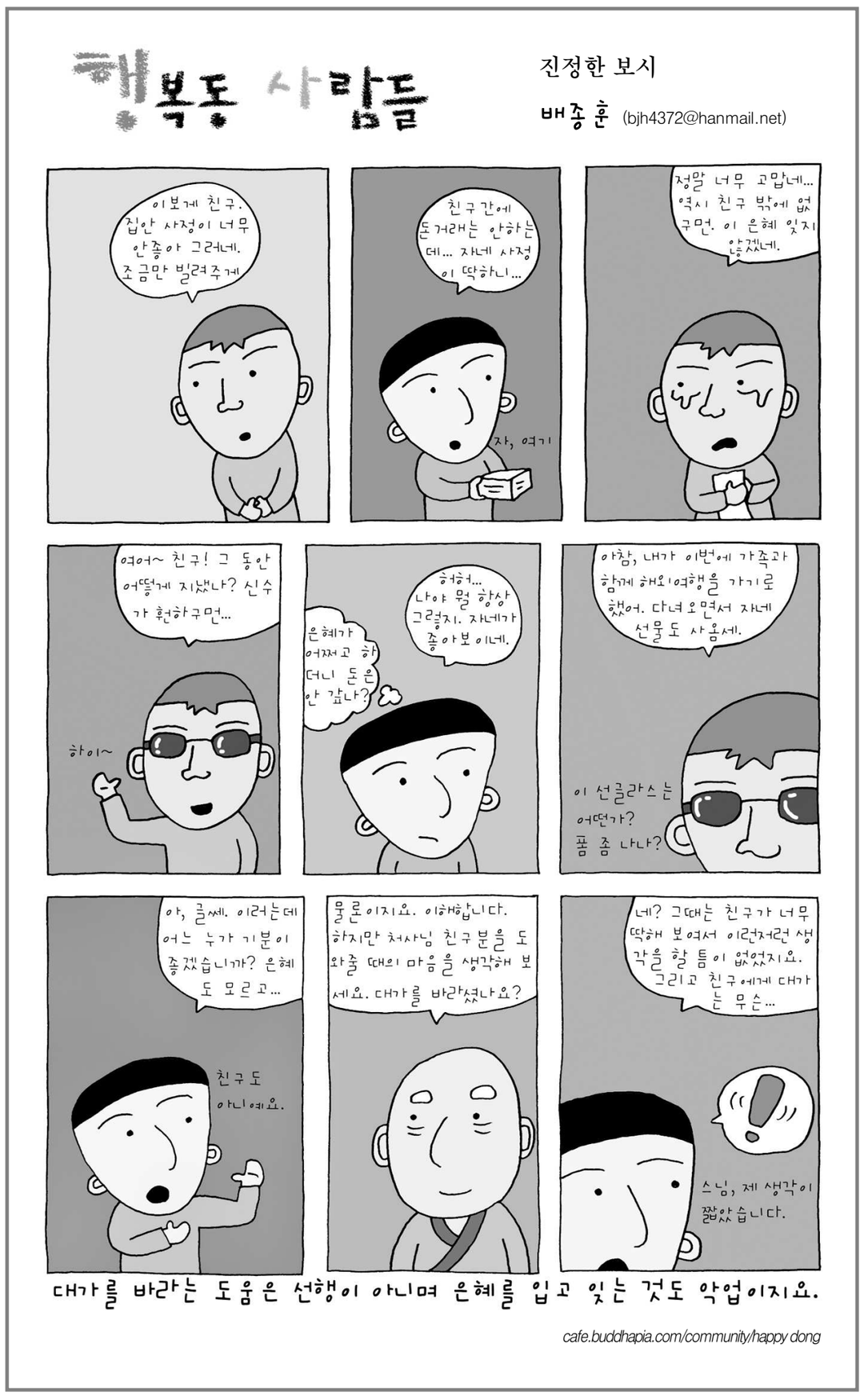
생사의 실체를 알았더라도 한 생각을 깨친 뒤에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바르게 깨쳤는지를 점검받아야만 한다.

서산 스님은 이 대목을 풀이하여 "이 공부는 정말 쉽지가 않으니 뭘 알아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야만 한다. '도'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니, 조금 공부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깨달은 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도리어 이것이 공부에 독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눈 밝은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하늘에서 겨자씨를 던져 바늘 끝에 올려놓는 것이 선지식을 만나는 일보다 쉽다고 하니, 인도에서 96종의 육사외도(六師外道)들이 모두 생사 해탈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삿된 스승을 만남으로써 생사에 침몰한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산화(散華)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는 참배객들로 국립묘지가 간만에 활기가 도는 달입니다. 또 이즈음이면, 언론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넋을 기린다'며 추모의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화(散華 · 散花)'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사실 산화는 불교에서 치르는 의식으로, 부처님 앞에 꽃을 뿌려 공양하는 것입니다. 여러 경전에 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지은 <대당서역기>에 다음 구절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날이면 수십만명의 대중이 보리수 아래 모여 꽃과 향을 뿌리고 등불을 밝히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공양한다"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불교의식이란 설명과 함께 "꽃다운 목숨을 전장(戰場) 등에서 잃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지요.

불교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호국영령들의 모습을 산화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큽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6강 혜능의 또 다른 사상(四相) 해설

'수상행식' 조차 없는게 '무아'다

<금강경> 6장의 후반부, 혜능의 해설을 이어 듣는다.

4절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我相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수보리야, 여래는 다 보고 아신다. 이 중생들이 여래의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임을... 어째서냐. 이들 중생들은 더 이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등, 어떤 형태의 자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환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자포자기적 착각도 없다."

(혜능의 해설)

六祖: 若有人, 於如來滅後, 發般若波羅蜜心, 行般若波羅蜜行, 脩習解悟, 得佛深意者, 諸佛無 不知之. 若有人聞上乘法, 一心受持, 卽能行般若波羅蜜無相無著之行, 了無我人衆生壽者四相. 無我者, 無受想行識也. 無人者, 了四大不實, 終歸地水火風也. 無衆生者, 無生滅心也. 無壽者, 我身本無, 寧有壽者. 四相旣無, 卽法眼明徹, 不著有無, 遠離二邊, 自心如來, 自悟自覺, 永離塵勞妄念, 自然得福無邊. 無法相者, 離名絶相, 不拘文字也. 亦無非法相者, 不得言無般若波羅蜜法. 若言無般若波羅蜜法, 卽是謗法.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라, 2) 그것은 사상(四相)을 극복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3) 자아와 더불어 법상을 지워라. 아울러 비법상을 경계하라, 진리가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1)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라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 여래가 떠나신 후에, 반야바라밀을 발심하고, 반야바라밀의 행동을 행하며, 수습해오(脩習解悟), 이 의지와 실천을 닦고, 익히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이윽고 붓다의 깊은 뜻을 얻은 자, 그들을 여러 부처들은 잘들 알고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상승법(上乘法)의 이치를 듣고 일심으로 수지한 즉, 반야바라밀의 무상(無相) 무착(無着)의 행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소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상승법(上乘法)이란 혜능의 돈교를 가리킨다. 여기 닦아야 할 것도 없고, 그만 둘 것도 없다. 이루어야 할 해탈도 없으며, 가야 할 서방 극락도 없다. 야부의 노래를 빌리면, 원통태허 무흠무여(圓同太虛 無欠無餘)라, 세상은 '이미' 완전하다. 그 안에서 나는 "하루 종일 바쁜데, 무슨 일이든 마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終日忙忙, 何事無妨)." 이 완벽한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혜능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무착(無着), 즉 내 마음이 타자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 것이고, 둘은 무상(無相), 즉 세상이 나로 인해 구획되거나 시비되지 않는 것이다.

2) 사상을 극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무아상(無我相)이란 수상행식(受想行識), 즉 감정, 지각, 의지, 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2) 무인상(無人相)이란 내 몸의 사대(四大)가 지속성이 없고, 마침내 지수화풍, 먼지와 대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3) 무중생상(無衆生相)이란 생멸심(生滅心)이 없다는 뜻이고, (4) 무수자상(無壽者相)이란 내 몸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슨 나이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상(四相), 즉 이 네 가지 '이미지'의 환상에 잡히지 않을 때, 지혜의 눈 법안(法眼)이 차갑게 뚜렷해진다. 그는 더 이상 유(有)와 무(無)의 이분법에 고착되지 않고, 이변(二邊), 주장의 두 극단을 멀리 떠나게 된다. 자심여래(自心如來)는 자오자각(自悟自覺)이라, 번뇌와 망념과 영원히 이별하는데, 그로하여 자연 얻은 복락이 무한하게 펼쳐진다."

-혜능은 '범부들의 사상'과 '수행자들의 사상'을 구분한 바 있다.

A. 범부들의 사상(四相)에서 1) 아상은 재물이나 지식, 위세를 믿고 뻐기는 것이고, 2) 인상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자만이었으며, 3) 중생상은 "좋은 일은 내꺼, 싫은 것은 당신이"하는 게으름과 약삭빠름이었고, 4) 수자상은 모든 사태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인간의 오랜 습성이었다.

B.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수행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사상이 있다! 거기 1) 아상은 "나는 보살, 너는 중생"이라는 한심한 구분이고, 2) 인상은 "내가 곧 법"이라면서 파계를 거리끼지 않는 것이었으며, 3) 중생상은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좋은 탈을 쓰고 태어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

열망이었고, 4) 수자상은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승의 개똥밭에서 오래도록 뒹굴고 싶은 생명연장의 희구를 가리켰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혜능은 또 다른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질색한다. 근거없이 떠들거나, 또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거와 일관성이 진리의 토큰은 아니다! 혜능은 일찌기 이 문자의 감옥(文字獄)을 벗어나 진리를 자유케 했다. 그는 경전의 원래 의미에 학구적으로 붙잡히지 않고, 삶의 국면에서의 생생한 자득과 그 변주를 들려준다. 사상의 해석 또한 정통을 벗어난 파격 중 파격이지만, 독창적이고 또 실천적이다. 이 '또 다른 사상 해석'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1) 무아상(無我相)이란 "수상행식(受想行識)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의 곡절은 복잡하다.

수상행식은 한자어로는 선뜻 뜻이 다가오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상상한다, 간다, 인식한다'니 이 무슨 소린고. 서로 격이 다르고 연관이 모호한 문자의 조합들은 아무리 뒤집고 찢고 파고 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불교의 심리학적 언사들은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를 영어식으로 번역한 것들이 오히려 이해가 쉽고 빠르다. 이 말들은 영어로는 각 감정(feeling), 지각(perception), 의지(volition), 의식(consciousness)을 가리킨다. 이들 '마음'의 여러 상태, 혹은 국면들은 '몸'을 나타내는 색(色 body)과 함께 오온(五蘊)의 멤버들이다.

오온은 불교가 무아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한 개념이다. 오온이란 문자 그대로 다섯 무더기(five heaps)라는 뜻이다. 쌓아놓은 볏단 혹은 장작단들에는 그들 사이를 통할하는 중심 혹은 자아가 없다. 불교는 이 용어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의지, 그리고 감정의 흐름에는 '주인공'이 없다는 것, 전문용어로 자성(自性)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했다. 물론, 상식에는 설득하기가 난감하다.

초기 아비달마는 자기 내부의 이런 다양한 마음의 변태들을 주시하는 '명상'을 개발하고, 그 흐름들을 분석하고 갈래짓는 것을 '지혜'라 불렀다. 아비달마에게 있어 '지혜'는 대승이나 선의 지혜와는 실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 차이의 흔적을 지금 혜능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

소승 아비달마(Abhidharma)는 자아의 통합적 중심은 없지만(無我), "오온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인간에 믈들지 않은 '객관세계의 차원높은 실재들(諸法)'은 틀림없이 실재한다는 것이었다. 아비달마를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로 한역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설일체유부란 "일체(一切)의 고차원적 사물이 존재한다(有)고 주장하는(說) 학파(部)"라는 뜻이다.

대승은 이 고차원적 사물, 즉 법(法)의 실재성을 부인하면서 출범했다. <금강경>은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한 설파자인 중관(中觀)의 핵심경전임을 기억하자. 혜능은 그 발전의 연장선에서 절대무의 상승법을 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무아란 수상행식조차 없음을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마음의 상처 치료하는 50가지 처방전





마음경영
가와이 하야오 지음
북포스 | 1만2000원

'마음속의 승부는 51:49일 때가 많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보면 틀림없이 상반되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 가정, 학교, 회사, 크고 작은 모임들에서는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 이 경우 어떤 이들은 건강하고 밝은 생각으로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별일도 아닌 것을 확대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승부는 대개 51:49로 아슬아슬한 차이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한 갈등은 근소한 차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 <마음경영>의 저자 가와이 하야오는 "상대방이든 자기 자신이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한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팠던 배가 낫기도 하고, 멀쩡한 곳이 갑자기 아프기도 한다는 것.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고 나면 그제서야 '아하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된다.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상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책까지 나올 정도면 사람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식은 많으면서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마음의 처방전은 몸의 처방전과는 크게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밝혀 그 대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의 가능성 쪽에 주목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것을 존중하다 보면 저절로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저자가 풀어내고 있는 50여 가지 처방전의 기본원칙이다. <마음경영>은 현실적이고, 평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1장 '미래를 위한 마음의 처방전'에서는 100% 옳은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해심 많은 부모를 가진 아이가 오히려 참을성이 없음을 일러준다. 또 신경질은 시야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 남까지 죽이고 만다는 것을 지적한다.

2장 '100퍼센트 시작과 변화를 위한 처방전'에서는 '하고 싶은 일은 우선 하고 보라' '180도 변화가 가장 쉽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위기에 처하면 본성이 나온다'는 등의 내용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가를 보여준다.

3장 '너와 나, 관계를 위한 처방전'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자립은 의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저자는 잘난 체하지 않을 때 관계는 시작되며 권위를 버리면 내적 권위가 올라간다고 역설한다. 또 가족관계도 대사업이며, 물질이 풍부해지면 자녀 교육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 '새로운 마음을 찾기 위한 처방전'에서는 선행은 남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며, 불을 끄고 보면 오히려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이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복잡 미묘하기 짝이 없는 듯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흐름을 아주 기본적인 원칙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이야기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해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상대방이든 자기 자신이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된다"

네티즌 강추

우리 신화를 알면 역사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조현설 지음

우연히 조현설씨의 EBS강좌를 재밌게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저서를 찾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을 덥석 사게 되었다. 다 읽고 나니,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쓰여진 신화 안내서라는 생각이 든다.

신화가 우리의 근원적인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기는 하나, 각 민족의 신화가 그 보편성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신화는 각 민족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특수성을 드러내주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에 접근하는 조현설씨의 시각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런 점에서 이 안내서는 무엇을 많이 알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길잡이라고 생각된다.

운명에 대한 조바심이나, 역사에 대한 현명함으로 신화를 접근해서는 묘미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는 신화의 묘미를 느끼기 위한 사전작업이 가능하다. 신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층적인 선입견을 스스로 점검해보게 된다. 그래서, 고마운 책이라 평하고 싶다.

(순대선생, my.aladdin.co.kr/poet90)

삶을 포기하기엔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책씨, 하야세 구미 지음

이 책의 저자인 하야세 구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약사법 결격조항과도 싸움을 해야 했다.

미풍에도 깃발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처럼 웅장한 소리의 울림이 아닌 작은 마음의 울림으로, 또 자기 자신보다는 많은 후배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약사법 결격조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2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

하야세 구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이라는 주어진 환경에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사치스러운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편안한 삶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편안한 삶은 사치에 가려 보다 개선되고 나아진 삶을 안겨 주지는 못한다. 그러한 것을 구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그러한 삶을 발판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다.

하야세 구미는 청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삶은 포기하기엔 들려 줄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고, 진정한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동반자가 되어 준다고 말이다.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위한 도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bookseed, 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움은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 배움을 얻기 위해 꼭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배움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두려움,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입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는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 본문 19쪽에서, 이레, 류시화 옮김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채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 >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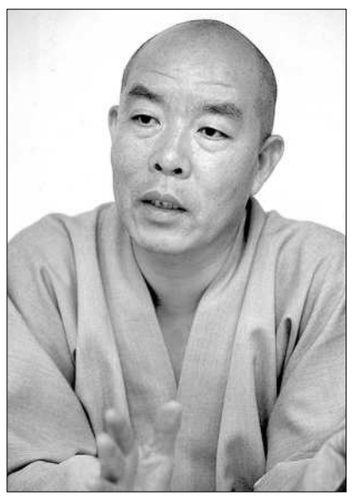

◆조립식 방가로 No-1210 7000×4000×3200(mm) 가격:(평)800,000
◆승려는 황토흙 방가로 No-1270 9960×4700×3300(mm) 가격(평) 900,000
돌,흙속에서도 벽지 없는 기둥,평상은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어
주일농장,휴양림,펜션,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함(주문생산가능)
지재만 구입가능 ,돌다루를 분리 이동 사용시 평상
◆글로 장소하는 평상 No-1540 1800×1030×350(mm) 가격:190,000
할인가:15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동두막.kr/평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02)389-5991,208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 펴낸 보광 스님



“송나라 시대 선종 남녀차별 없었다”

앞으로 30년간 총 95책 10권으로 정리

“선학연구의 기본텍스트이며,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 95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총 10권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9권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30여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7일 <역주 정법안장 강의> 제 1권을 펴낸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사진). <역주 정법안장 강의> 제 1권에는 총 95책에 이르는 <정법안장>의 1~10책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道元, 1200~1253)의 대표적 저술입니다. 도겐 스님이 13세기 송나라 시대 중국 영파(명주)의 청둥산 천둥사 여정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보고 느낀점 그리고 선의 종지를 거량하기 위해 각곳에서 설법한 내용을 모은 것이지요.”

보광 스님은 “<정법안장>에는 중국 송나라 때 선종의 모든 의식과 모습 즉 의식과 신행방법, 청규, 습의, 가람배지등을 적고 있다”며 “선종이 왜 중요한지부터 선방에서 세수는 어떻게 하고, 선방에 대중공양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청규등이 자세하다”고 설명했다.



역주 정법안장 강의
보광 스님 | 여래장 | 2만5000원

또 스님은 “이 책을 보면 한국불교 선종이 복원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특히 송나라 시대 선종에서는 비구 비구니와 출가 재가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눈밝은 사람만 가린 것이 이채롭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법안장>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종종 등장하는데 ‘설사 여성이라도 법을 얻은자에게는 남성도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였을 때 비구 스님들이 그 문하에 들어가 예배를 올리고 법을 청하는 것은 불교집안의 훌륭한 전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정법안장>에서는 실례로 임제 의현의 법을 이은 중국의 관계지한(?~895) 선사가 임제 선사 곁을 떠나 남악의 법손으로 고안 대우의 법을 이은 비구니 말산 스님과의 문답을 한 뒤 스승의 예를 올리는 것이 기록돼 있다.

“1980년 일본유학을 갔을때 불교서점에 들었다가 <정법안장>에 관한 연구서적이 많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역주 정법안장 강의>는 귀국하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1993년 3월 1학기부터 석박사과정 수업교재로 활용하면서 꾸준히 연구해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님은 수강신청을 한 대학원 학생들이 각 부분을 맡아서 일어로 읽고 해석하면서 주석을 찾아와 발표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다음 발표한 내용을 서로 검토하고 주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한 후 함께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이해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토론했다고 한다. 방학때에는 합숙하며 집중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32권까지 주해를 달아 놓은 상태다.

스님은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역해를 위해 문헌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한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 점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말 표현의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개화기 대강백 한영 스님

한시로 만나다

문장의 귀신이 되길 바라지 말고
도솔천 궁궐에 나가길 도모해야지.
빛은 오직 앎의 정수리까지 통하여
끝이 없으니 공또한 공일세.
은혜든 원한이든 결국 어디에 붙겠는가
호랑이와 악어도 양처럼 길들여졌지.
오색의 경계에서 수고로움을 잊었으니
하늘밖에 뜬 달이 시원하구나.

이 시는 개화기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고승대덕이었던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이 단재 신채호의 49재를 지내는 당대 최고의 한학자였던 산강 변영만에게 준 것이다.

변영만은 한영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낸다.

‘한장의 글월을 주심으로 외람히도 격려하여 주심을 입어 실로 의도한 바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글과 글씨가 생동감이 있고도 우아하여 호연한 기운이 천지에 가로지름을 보니 노쇠한 몸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놀랐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보내주신 게송 끝 구절의 오근색경(五根色鏡)의 고통을 다 잊어 버리고 하늘밖에 외로이 있는 청량한 달이로다라는 문장에는 무한한 뜻이 담겼고 또 신령을 기쁘게 할 것이므로 영전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면 변영만이 한영 스님의 한시 감화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암 스님의 시는 엄격한 자기수양, 생사초월의 지혜, 호연한 문기가 돋보여 당대 최고의 교양인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석전 박한영 한시집
서정주 번역
동국역경원
8000원

한영 스님은 생전에 한시를 3000수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420수이다. 이 시는 육당 최남선이 한영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에서 1940년 직접 출판한 <석전시초>에 수록돼 있다. <석전시초> 상하편에는 각각 250수와 170수 정도가 있다.

박한영 스님은 일제의 한국불교 장악에 맞서 진진응, 한용운, 오성월등과 함께 민족불교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공헌했으며, 개혁성향의 불교유신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불교강숙 숙사, 중앙학림 교장,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과 불교조계종 교정을 역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국불교의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

특히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등이 스님을 흠모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청담 스님, 운허 스님, 신석정, 서정주씨가 제자이다.

김원우 기자



아미타경
진현종 옮김
미토스
9800원

틱낫한 스님 ‘아미타경’ 해설 펴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아미타불…”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 이 여섯 글자 명호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이 육자명호(六字名號)는 바로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의미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無量壽佛)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로도 불리며,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에 살면서 인간의 구제에 진력하는 부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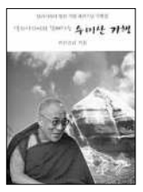
정토종의 소의 경전 <아미타경>에 대한 틱낫한 스님의 최초 해설서가 나왔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에서 다른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토사상의 형성과 그 역사, 그리고 극락왕생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스님은 다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정토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이미 정토에 있으면서 따로 정토나 천국을 구하며 번민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란 깨어 있는 자세로 한 걸음 내딛고 한 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스님은 현재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세상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의 소망을 환상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의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공동체마을 플럼빌리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새로나온 책

귀산 스님의 북경에서 수미산까지



■ **수미산 기행**(귀산 스님 지음, 효림)= 서울 평창동 상원암 주지인 귀산 스님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발간한 기행집 <수미산 기행>을 펴냈다.

귀산 스님은 2005년 25박 26일간 수미산을 기행하고 보고 느낀점을 기록했다. 책의 내용은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으로부터 시작해 북경을 거쳐 티베트 라사, 서부 티베트의 시가체, 샤갸사원, 다르챈, 수미산 바깥 콜와, 안콜와, 구게왕국을 둘러본다. 이어 장무로 가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보고 네팔에서 하루를 지낸뒤 방콕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 스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투와 사진을 곁들어 기행문의 감흥을 돋궈주고 있다.

황우석 줄기세포를 둘러싼 진실



■ **덫에 걸린 황우석**(고준환 지음, 답게)=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의 내막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경기대 법학과 고준환 교수(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가 진실규명 차원에서 파헤친 긴급보고서. 책에서 고 교수는 이 사건은 섀튼을 비롯한 기술패권주의 미국, 로마 교황청이 관계된 적그리스도교 세력, 홍석현 보광그룹 회장과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이 포함된 삼성그룹, 노무현 정부, PD수첩으로 유명한 MBC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놓은 덫에 황우석 교수가 걸리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 사찰에 얽힌 연기설화



■ **사찰이야기1**(서문성 지음, 미래문화사)= 사찰의 연기설화를 발굴 보전 전수하기 위해 저자가 직접 전국 유명 사찰을 방문하여 관련 설화 자료를 수집했다. 대상물을 원색 사진에 담아 사찰의 연혁과 함께 입체적으로 편집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모든 연기설화를 시리즈로 엮을 예정인 저자는 1권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지역의 44개 전통사찰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부록으로는 선종 계보도와 한국선종 계보도가 실려있다. 한편 호남 충정지역은 2권으로 이어서 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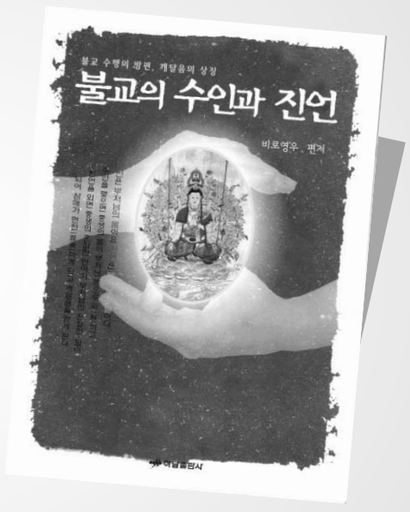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대산출판사, 장영섭, 1만5000원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성법스님, 95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고즈윈, 서화동, 1만2800원
· 큰 스님 큰 가르침	문예출판사, 윤청광,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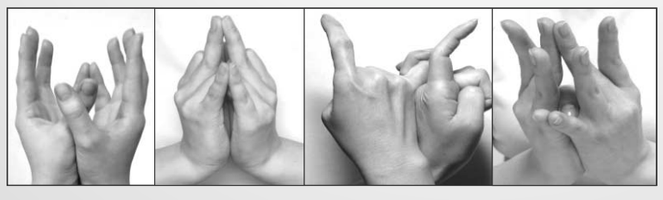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有|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TEL. (02)720-3211 FAX. (02)720-0312 http://www.hnp.co.kr 하늘출판사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사찰 벽에 수놓은 깨달음의 열망


국내에서 첫 공개되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비천도.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도.

삼국시대~조선후기까지
불국토 형상화한 사찰벽화
80여점 전시실 장엄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 특별전'
국립대구박물관
8월 13일까지

사찰벽화의 세계

절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성보는 불상을 비롯해 탱화 괘불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쉽게 보게 되면서도 잘 관심이 가지 않았던 벽화를 들여다보자.

삶과 죽음을 사찰과 함께 하는 벽화. 다른 성보보다도 사찰 건물의 부침(浮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벽화의 세계가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정완)에서 펼쳐진다.

국립대구박물관(053-768-6052)은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사찰벽화 특별전'을 6월 3일~8월 13일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내에 첫선을 보이는 보물 제1315호 무위사 극락전 벽화를 비롯해 삼국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 불국토를 형상화한 사찰벽화 80여점이 전시실을 장엄한다.

특별전은 '불국토 깨달음의 염원-사찰벽화를 찾아서' '삼국시대의 불교벽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벽화' '고려시대의 사찰벽화' '조선 전기의 사찰벽화' '조선 후기의 사찰 벽화' '사찰벽화의 원류-돈황석굴' 등으로 꾸며졌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시대 서복사지 벽화서부터 중국 돈황석굴 벽화에 이르기까지 극락으로 장엄된 사찰 벽화의 완성미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6월 17~8월 13일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3시에는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문화예술 전문 안내인 도슨트에 의한 전시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대별 흐름에 따라 한국의 벽화는 어떻게 바뀌고 발전했는지 전시에 나온 벽화의 세계를 찾아가자.


부석사 대웅전 벽화의 모사도.

▲ 삼국시대

백제 부여 부소산 서복사지 벽화를 통해 사찰 벽화의 기원을 살펴본다. 삼국시대 코너에서는 고구려 감신총(龕神塚)과 쌍영총(雙楹塚) 벽화 모사도와 능산리 벽화 고분 비운연화도(飛雲蓮花圖) 등이 같이 전시된다. 사찰벽화와 고분 벽화 속의 불교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 통일신라시대

익산 미륵사지로 대표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선보인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설화로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는 한국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온다. 그동안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했던 미륵사지의 벽화를 통해 통일신라를 엿본다.

▲ 고려시대

예산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벽화 모사의 대가 임천 학예관이 1937년 작업한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는 수생화 야생화 비천도 극락조 등 15점이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 벽화 모사도와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금동방형향합 등도 전시된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수생화도 모사도.

▲ 조선 전기

조선 전시 사찰 벽화의 원형이 되고 있는 수종사 금동불감 후면불화가 첫 선을 보인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의 조형이 됐던 보물 제971호 묘법연화경 변상도와 보물 제793 · 1145호 법화경 권수판화 변상도를 만날 수 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도, 아미타래영도, 설법도 등의 모사도도 전시된다.

▲ 조선 후기

보물 제1315호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백의관음도와 비천도 아미타여래도 등이 처음 대중 앞에 나선다. 무위사 벽화보존각에 보관된 이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미공개 벽화들이다. 김해 은하사 시왕전 나한도, 경주 백률사 불좌상 벽화, 경주 분황사 천부상 등도 볼거리를 선사한다.

▲ 사찰벽화의 원류-돈황석굴

10세기 중국에서 건조된 돈황 제61굴이 그대로 자리만 옮겨온 듯한 입체 연출을 했다. 석굴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벽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돈황 제61굴에 있는 아미타변상도, 약사변상도, 보은변상도 등과 함께 돈황 제156굴 아미타변상도와 보은변상도도 함께 전시된다. 강지연 기자


돈황 제61굴 벽화 모사도.

■ 사찰벽화의 기원

기원정사 보시한 급고독장자
부처님께 허락 받고 조성 시작

사찰벽화는 언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을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보시한 기원정사에서 최초의 불교그림이자 불교벽화가 그려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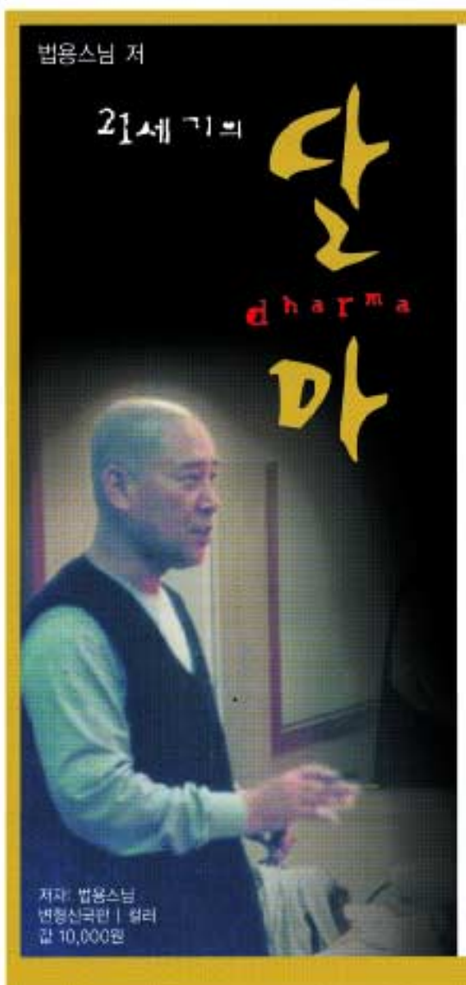
경전에 따르면 "급고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한 후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장엄을 시작했다. 부처님께 여쭈어 문의 양쪽에는 집장약차(執杖藥叉)를 그리고 옆의 한 면에 대신통변(大神通變)을 그리며 또 한 면에는 오취생사(五趣生死)의 수레바퀴를 그리고 첨하에는 본생사(本生事)를 그리며 문 옆에는 지만야차를 그리고, 강당에는 늙은 비구가 법요(法要)를 선양하는 모습을 그려라. 식당에는 음식 든 야차를 창고문에는 보배를 안수당(安水堂)에는 물병을 가진 용이 묘한 영락을 붙인 그림을, 욕실과 화실에는 <천사경(天使經)>의 법식에 의한 그림과 약간의 지옥변상(地獄變相)을, 첨병당(瞻病堂)에는 여래가 몸소 병을 간호하는 상을, 대소행처(大小行處)에는 시체의 모습을, 방 안에는 마땅히 흰 뼈와 해골을 그려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설명은 현존 사찰벽화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삼국시대 서복사지에서 출토된 벽화조각.

인도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벽화는 중국 돈황석굴 등을 거쳐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사찰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불화가 그려진 것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등에 "황룡사 벽에 소나무를 그렸다" 등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국시대의 사찰벽화는 동시대 고분벽화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찰벽화에서 사용되는 오방색이나 연꽃 비천상 등의 문양은 현존 벽화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법용스님 저

21세기의 달 dharma 마



저자: 법용스님
변형신국판 | 컬러
값 10,000원

21세기의 달 dharma 마

달마!
그는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외친다.
마음속 삿된 생각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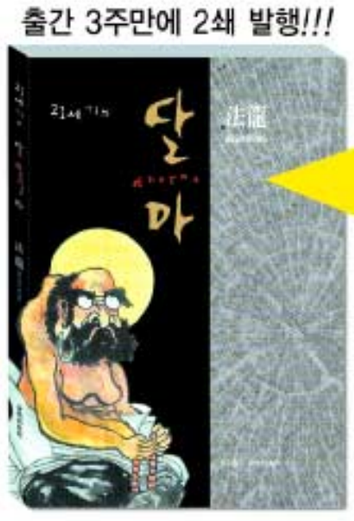
왜,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그토록 찾아 나서는가?

대비(大悲)의 달마
달마는 깊고 그윽하다. 부처님 이래로 부처님의 법(法)을 이어받은 조사(祖師)들 중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분은 달마대사이시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대중에게 친근하신 분이다. 부리부리하고 형형한 안광, 거친 모습, 그러나 달다대사는 자애로운 불보살의 화신이시다. 달마대사의 형상이 중생의 액을 막아주고 편안과 강녕(건강과 풍요)을 주는 것은, 달마대사의 숭고하고 원대한 중생구제의 서원으로부터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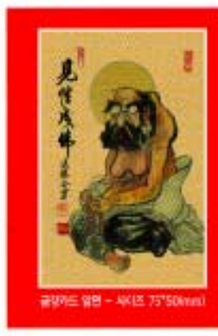
-'21세기의 달마' 중에서 -

법용스님의 무보시 달마도 그려주기
일시 : 6월 11일 ~ 6월 26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08명
장소 :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울산공항 옆) 4층 문화센터 내
문의 : 011-856-0648

출간 3주만에 2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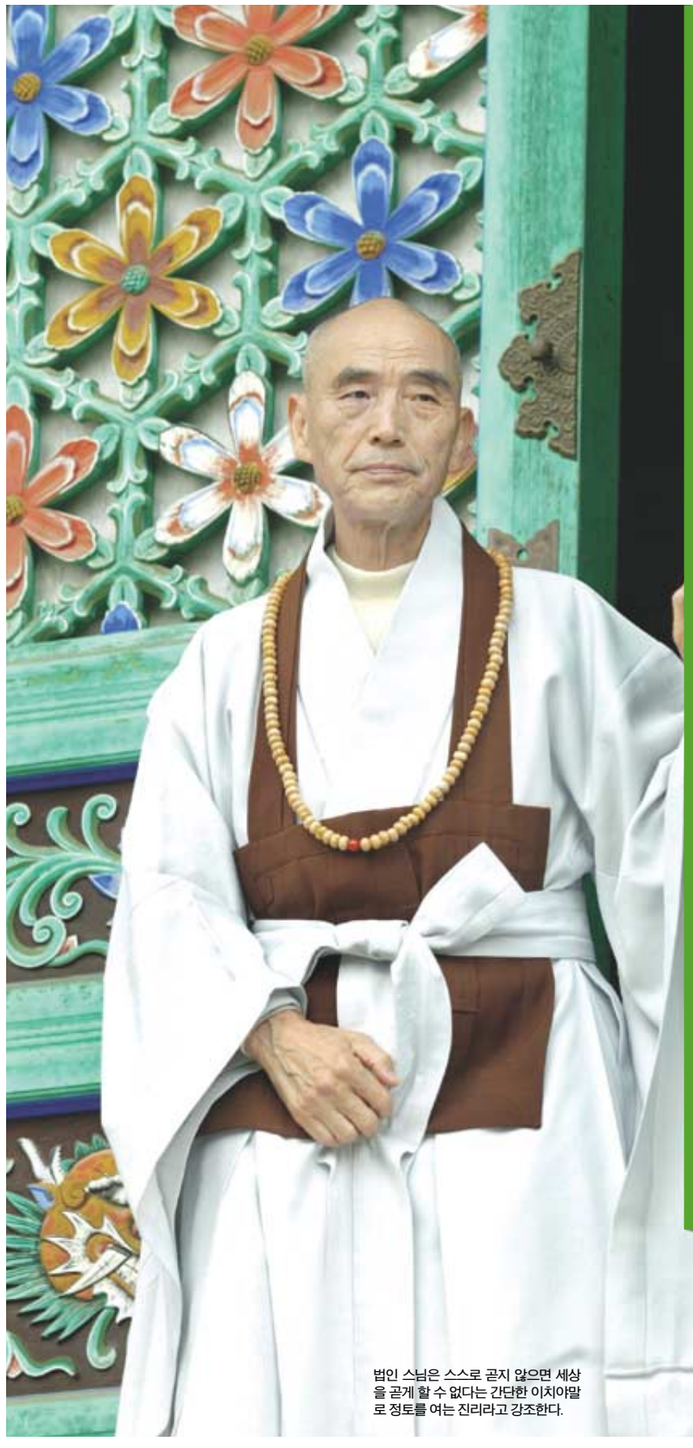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21세기의 달 dharma 마
사은행사 안내

도서구입 독자께
법용스님께서 정안한 소지용 금장카드 부적을 드립니다.
(시중가 20,000원 상당)

TEL. 051)583-9923~5 FAX. 515-4143 도서출판 국부카르마



법인 스님은 스스로 곧지 않으면 세상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치야말로 정토를 여는 진리라고 강조한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법"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불자들은 쉽게 스님을 잊지 못한다. 날카로운 눈매에서 풍기는 위엄은 상대방을 압도한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나누다보면 따뜻하고 자상함을 금방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뼛속 깊은 곳을 찌르는 화두를 던진다.

에두르는 듯 하면서도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듯 하면서도 에두르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생긴다.

"마음을 비워야지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스님이 아닌 속인들에게 이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말이라도 말은 그저 말일 뿐이지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법입니다."

3시간 남짓 수면…손에는 늘 책 들려 있어
75년 日 명월사 창건하고 해외포교 앞장
지역민들 공부·신행할 수 있는 회관 건립중

법인 스님이 천안 각원사에 있는 날은 많아야 한두 달에 이삼일 정도다. 일본 도쿄의 명월사에서 매월 또는 격월로 초하루법회 때에 각원사에 왔다가 다시 명월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본에 뿌리내린 지 벌써 37년 째.

"밥 먹고 청소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신도들 만나고 그게 전부지. 특별할 게 있겠어요."

초하루 법회 하루 전 일본에서 각원사로 내려오자마자 신도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다시 각원사로 돌아온 탓인지 스님의 얼굴엔 다소 피곤한 기색이 돌았다. 3시간 남짓 수면을 취하고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신도들을 만나던 차에 기자와 마주한 법인 스님. 하지만 꼿꼿한 자세와 잔잔한 미소는 여전했다.

스님의 일상은 명월사에서나 각원사에서나 늘 한결같다. 웬만한 것은 무엇이든 직접하고,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다. 경전이든 전문서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출가하고서 죽도록 공부해보자고 원을 세웠어요. 공부든 수행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절한 원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공부가 어찌 나 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실천없는 깨달음은 공허합니다. 자기 공부와 수행은 곧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인과법이지요. 제가 포교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법인 스님은 문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학승이자 선(禪)선과 율(律)을 겸비한 스님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법인 스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교다. 실제로 명월사에서의 해외포교는 물론이고 국내 포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커다란 좌불상으로 상징되던 각원사가 짧은 시간에 웅장한 대웅전과 여러 수행공간 등을 갖춘 대가람으로 태어난 것도 바로 포교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일본 유학시절 한 재일동포의 시주로 각원사 불사를 시작한 법인 스님은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몇 차례 난관에 부딪쳤다. 하지만 고비 때마다 이해당자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시켰다. 타종교인이자 구두쇠로 소문난 지역 유지를 감동시켜 5천 평의 땅을 보시받은 일화는 지금도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각원사는 그렇게 법인 스님의 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도 스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스님은 지금 지역불자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신행할 수 있는 불교회관을 건립 중이다. 불교회관이 완공되면 유치원도 만들 생각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싹'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시대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실천에 있습니다. 불자들 한사람 한사람이 개척자가 돼야 합니다. 실천하는 개척자 말입니다. 그래야 가치있는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 스님은 항상 말을 조심한다. 스님들조차도 많이 쓰는 '부처' '중' '대처'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 말이 곧지 않으면 스스로 곧지 않은 것이요, 곧 남을 곧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출가자의 본분이라고 하신다.

"내놓을 것이 없어 보여드린 것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 나이 숫자가 달라지는 것 빼고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법인 스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잠깐이라도 스님을 뵙기 위해 취재가 끝나길 기다리는 많은 신도들에게도 스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신도들은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다. 수행자가 올곧게 길을 가고 있으면 신도들은 그 모습에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듣는 법이니까.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韓·日 오가며 교학·포교에 매진

법인 스님은 | 16살에 출가해 60년 가까이 교학과 포교에 매진해왔다. 특히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과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등 뛰어난 상좌들을 두었을 정도로 후진양성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1931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46년 해인사로 출가한 뒤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산 해인대학 종교학과, 동국대 사학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철학과 석사학위,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5년 일본 도쿄에서 명월사를, 77년 천안 태조산 각원사를 창건했으며, 85년 평화통일문화협회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불교입문〉〈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연구〉〈개미집과 하루살이〉 등의 저서가 있다.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혜거스님의 참선지도로 수련회가 진행 됩니다.
특히 혜거스님의 참선법문과 개인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하계수련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대학생이상 남 · 녀 일반인 35명씩(선착순)
- 일 정 : 3박 4일

1차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2차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3차	7월 28일(금) ~ 7월 31일(월)

-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강원도 홍천 소재)
- 참가비 : 7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3040-51-017583 예금주:손수열)
-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 접수 및 문의 : 홍천 선문장
  (TEL : 033)433-5845~6 / FAX : 033)433-5847)
- 교통편 : [승용차] 서울 - 88도로 - 양평 - 홍천(44번국도) - 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향남,현리방향) - 451번지방도로 (7km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 표 구입
  - 1번홈에서 내촌혹은현리行 버스 승차
  -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대한불교 조계종 金 剛 禪 院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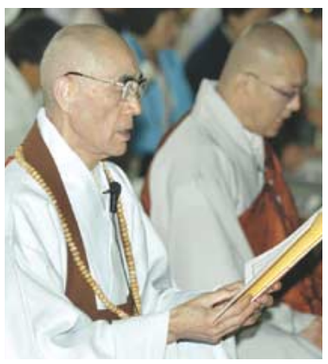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잘못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발전"

법인 스님의 가르침



100원어치 땀 흘리고 200원 받겠다면 '과욕' 생활 하나하나 부처님 법문 어떻게 실천할것인가 고민해야

불자라면 사홍서원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네 가지지요. 하지만 이것이 서원에 그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법문 한 두 번 들어보지 않은 불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설계해 나가려면 적당한 욕심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가슴에 와 닿을까요? 욕심을 내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그런데 무조건 욕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깨끗한 욕심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과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0원어치 땀을 흘리고 200원을 받겠다면 그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베풀며, 생활인이 마음을 어찌 비우고 탐진치 삼독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그 가르침의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이 어찌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삼독을 끊는 것이 어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면 되고, 삼독을 끊으려고 생활 속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응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자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화내는 경우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발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나가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만이 법문이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법문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디서 무슨 법문을 구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禪)을 하는 사람들은 교(敎)를 등한시하고,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선을 등한시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닌데, 어느 한쪽만 치중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학이 필요하고, 교학이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선을 알아야 합니다.

교라는 것은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가 바탕이 돼야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 법을 알 수는 없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율(律)입니다. 율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화합입니다. 율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속박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죽이지 않겠다'고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불쌍한 짐승이 있으면 보살펴 주겠다'고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모두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에 순응해 생명을 잘 가꾸는 것이 불살생이고 세상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화합입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하는 것이 화합이지요.

교와 율에 충실하다보면 견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혼자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이로운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碍)'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으로 화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부처님 법을 믿으세요.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9>



'분별심'은 어떻게 분별하지?(2)

어느 날 왕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수십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그들 앞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끼리라는 동물이다. 자, 너희는 각자 이 동물을 만져보고 나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아라."

그들은 한참 코끼리를 더듬고 어루만진 뒤에 한 사람씩 자기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쟁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예전에 쟁기라는 연장을 곰곰하게 만져본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옆의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기 생각 강요할 땐 명예욕 깔려
일의 정확한 원인·인연 파악해야
분별심은 '욕심' 바탕으로한 잣대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폐하,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의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쌀을 까부르는 키처럼 생겼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모두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거나 들어두었던 사물에 비유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다른 이의 생각은 틀렸다고 고집하며 끝없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경면왕경>).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이게 바로 코끼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그런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부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가장 정확한 생각이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린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할 때 그 바탕에는 대체로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를 따라주면 기뻐하고 우쭐대지만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면 원한을 품거나 서운해 하거나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욕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흐르는 인과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잣대로 세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에 다투는 것을 '사량분별', '분별심', '망상'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분별심'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과 '욕심'을 바탕으로 한 잣대입니다.

그러니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그 일을 대하는 자기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없고, 그 일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정확한 원인과 그 일을 둘러싼 인연들을 동시에 파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도 내리지 말라거나, 더구나 사기꾼의 행동과 경찰의 존재를 똑같다고 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분별심이 사라진다면 그는 가장 자유롭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은 하천한 것이라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그것을 속박이라고 말한다.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남과 비교해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당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숫타니파타>의 노래처럼,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은 이제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이나 비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과 성냄을 벗어버렸고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참자유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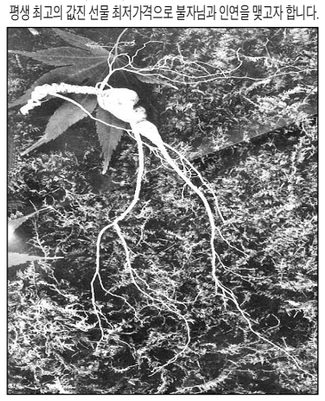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황토굴


약사암 전경


약사암의 일몰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을 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茶, 다양해서 입·눈 즐거워요



티지움 김동섭 회장 187개국서 수집한 茶 선보여

아프리카·직접 개발한 차도 … 차 관련 특강 계획

"어디 색다른 차가 없을까?"

늘 즐겨 마시는 녹차와 홍차, 우롱차 대신 입과 눈을 즐겁게 할 차를 찾는다면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티지움(Tjium)'을 주목해보자. 차(Tea)와 박물관(Museum)을 조합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차 1600여 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동섭(73) 티지움 회장이 지난 15년간 187개국을 돌아다니면 수집한 차들이다.

KBS 프로그램 '진품명품'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회장은 50여 년간 암석, 화폐, 우표, 담배 등 40여 종에 이르는 물건을 모아온 수집전문가. 김 회장이 수많은 수집품 가운데서 '차'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차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흔히 차라고 하면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된 문화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민간요법으로 다양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720여종, 짐바브웨에서는 300여 종의 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에 서식하는 식물 '사이클로피아'를 말려 차로 마시는 '허니부시'는 원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감기나 불면증을 치료할 때 사용해 온 약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찻잎'으로 만든 차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의 건강에 이롭게 개발되어 온 차 문화를 통해 다양한 차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티지움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화차(花茶)들.

김 회장의 차 사랑은 '수집'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의학을 전공한 김 회장은 약학을 전공한 부인과 함께 체질에 맞춘 '맞춤형 차'도 개발했다. <동의보감>의 총명탕 처방을 응용해 솔잎과 백년초·대만 우롱차를 배합한 '총명차'를,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뽕나무 잎과 녹차를 혼합한 '그린라이프'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위장에 좋은 '굿모닝차', 혈압에 좋은 '혈강차', 노화방지에 좋은 '롱라이프차' 등 10가지 차가 김 회장의 '작품'이다.

"티지움에서는 성분분석실을 갖추고 수입차는 물론 개발 차에 대해서 54종의 농약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자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차가 많아진다면, 차 마시는 문화도 조금씩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요?"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티지움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차 관련 특강도 여는 등 차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02)3216-199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김동섭 회장이 추천하는 茶 4선



▷**쟈스민드래곤볼**– 백일홍을 찻잎으로 일일이 묶어서 만들어 뜨거운 물을 부으면 꽃이 피어나는 듯 하다.



▷**낙신화차**– 낙신화의 꽃잎을 말린 것으로 자주색 찻물이 인상적이다. 새콤한 맛을 내며 꿀을 넣어 마셔도 좋다.



▷**총명차**– 김 회장이 개발한 맞춤형 차로, 솔잎과 백년초·대만 우롱차를 배합해 머리를 맑게 한다.



▷**다이어트차**– 당귀와 어성초·다즐링 홍차를 배합해 여성들의 월경불순에 좋다.

무안 백련차 만족도 높아

중앙리서치, 인지도 61.3%

무안 백련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61.3%)와 만족도(66.7%)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안군(군수 서삼석)과 연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두)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중앙리서치와 공동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는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61.3%가 무안 백련차를 알고 있으며, 백련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66.7%가 품질이 좋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시식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94.4%는 향후 무안 백련차를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안군은 "이번 조사 결과 백련차가 향후 무안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백련을 벼 대체작목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현재 군내 10만여 평의 백련자생지와 3만여 평의 백련 재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백련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성광명 차도구展 17일까지

대나무 칠공예 전문가 성광명씨가 6월 17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차도구 전시회 '옻칠과 대나무의 만남전'을 개최한다.

경남 하동군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씨는 이번 전시에서 대나무나 도자기에 모시, 베 등의 천을 배접한 뒤 옻칠과 사포질을 반복해 완성한 차도구를 선보인다. 대나무 옻칠 차통, 오방색 5인 다기세트, 느티나무 다식함 등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예송갤러리 이상래 관장은 "순수 천연 옻을 사용한 성씨의 작품은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광택이 특징이며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다. (053)426-1515



오방색 옻칠 다관.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8. 정보화사회의 허식 ③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은 혼돈을 일으키는 용어가 바로 '살청(殺靑)'이라는 것이다.

차나무의 신선한 찻잎을 가리켜 선엽(鮮葉)이라고 한다. 찻잎을 차나무에서 채취하는 순간 선엽은 산화효소에 의해 산화되기 시작한다. 산화효소의 활성을 잃게 하는 동시에 산화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공을 통해 단시간 내에 선엽의 온도를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학문적으로 '살청'이라고 한다.

선엽의 산화효소는 열에 의해 일으키는 변성온도(變性溫度)가 80℃다. 이는 곧 '살청'을 하는데 있어 선엽의 온도 즉 엽온(葉溫)을 최저 80℃ 이상으로 올려야만 단시간 내에 산화효소의 활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살청은 한번이면 그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녹차의 살청은 최초의 덖음 즉 고온을 통한 첫 번째 덖음이 살청공정이며 이후 행하는 저온을 통한 덖음은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조공정에 해당된다.

차의 분류에 있어 살청의 유무 또는 살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발효(산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첫 번째 가공공정을 살청으로 택한 것이 녹차며 이를 비발효차(非醱酵茶)라고 한다. 반발효차(半醱酵茶)로 불리는 오룡차는 일정한 발효를 거친 선엽을 살청공정을 가해 산화를 중지시켜 만든 차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보는 15%~60%이라는 숫자는 바로 선엽을 몇 퍼센트의 발효상태에서 살청을 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다. 오룡차 중의 경발효차(輕醱酵茶), 중발효차(中醱酵茶), 중발효차(重醱酵茶)라는 용어가 바로 이러한 논거에 따라 붙여진 용어다. 완전한 발효를 통해 맛을 내는 홍차는 산화효소의 도움이 절대적이기에 살청공정을 행하지 않으며, 때문에 홍차를 완전발효차라고 한다.

그럼 선엽의 산화효소를 중지시키는 살청공정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 대체로 살청의 방식은 덖어서 하는 것과 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증기를 통한 살청방식은 주로 녹차에 적용되는 반면 덖음방식의 살청은 모든 종류의 차에 이용되고 있다. 덖음 방식의 살청에는 솥에서 덖는 수제식과 로울링 방식인 기계식이 있다.

살청을 증기방식을 통해 만든 녹차를 증청녹차(蒸靑綠茶)라고 부르는 반면 살청을 덖음 방식을 통해 만든 녹차는 건조방법에 따라 이름 또한 달리한다. 예를 들어 살청과 건조의 공정을 모두 솥에서 행한 것은 '초청녹차(炒靑綠茶)'라 하며, 건조공정만을 기계를 통해 말린 것을 '홍청녹차(烘靑綠茶)' 그리고 햇볕을 통해 건조한 것을 '쇄청녹차(晒靑綠茶)'라고 부른다.

필자가 강의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녹차의 가공법에서 살청은 몇 차례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대체로 세 번 혹은 네 번 또는 아홉 번이라는 답들이 많았다. 아홉 번이란 답은 아마 구증구포(九蒸九曝)라는 녹차가공법에서 비롯된 발상일 것이다.

녹차는 최초 덖음이 살청공정에 해당

이후는 건조, 아홉번 살청은 이해 부족

차의 가공법에서 살청의 공정은 단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답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녹차를 덖음차 또는 볶음차라고 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청과 덖음을 같은 공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녹차를 세 번 덖었다는 것을 살청을 세 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이차는 살청을 한 번하고 우리의 작설차는 구증구포로 하니 작설이 보이차보다 좋다"는 말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보이차와 작설차의 우열을 덖음의 횟수로 단순 비교하는 잣대는 살청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허식(虛識)이다. 이러한 정보의 오류는 보이차에 대한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 한서대학교



보이차의 살청(殺靑) 공정.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 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자외선을 막아라!

피부에 노출시 기미 · 주근깨 유발

자외선 차단방법 · 제품선택 요령

여름을 알리는 뜨거운 햇살. 하지만 자외선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피해야 할' 대상이다. 자외선은 기미나 주근깨 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피부노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6~8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피부가 붉게 변할 정도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다. 대한피부학회는 최근 10년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발병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피부암은 2.2배, 검버섯은 2배, 기미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자외선은 '피부의 무서운 적'인 셈이다. 자외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삽화=박구원

▷ 자외선, 제대로 알자

자외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사선(輻射線)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 스펙트럼에서 보랏빛의 바깥쪽에 나타난다. 일반의 X선이나 감마선보다 투과성은 작지만 가시광에 비해 에너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나 작은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 생체조직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소독기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자외선은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잔주름이나 기미, 주근깨 등을 만든다.

또한 피부 각막을 손상시키고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양산을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긴팔 옷을 입어 노출을 최소화한다.

SPF 확인…2~3시간마다 덧발라야

▷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쓰나?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도달하는 광선을 흡수, 반사, 산란시킴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보통 2~5개의 광선차단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형태에 따라 로션이나 크림, 연고 등이 주로 판매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SPF)를 꼭 확인해야 한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가 그을려 붉게 되는 현상을 얼마 동안 막아주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다. 예를 들어 20분간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가 붉어지는 사람이 'SPF15' 제품을 쓰면 '15×20=300(분)' 즉 5시간 동안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 있는 'PA+++' 표시에서 PA는 'Protection A'의 약자로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UVA 자외선을 막아준다는 뜻이다. '+++'는 차단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A+, PA++, PA+++ 등 3단계가 있으며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차단지수 20 정도의 제품, 야외에 나가거나 운동을 할 때는 차단지수 30이상의 제품이 좋다. 차단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좋다. 햇볕을 많이 받는 이마나 광대뼈, 콧등은 꼼꼼히 발라준다. 최근에는 땀이나 물에도 쉽게 닦이지 않는 제품도 있다. 차단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외출 30분전에 바르며, 세안을 할 때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차단제를 발라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좁쌀같은 반점이 생기면 빨리 씻고 사용을 중지한다.

스팀 타월후 팩 해야 효과 높아

▷ 천연팩으로 피부 진정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됐다면 피부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 우선이다. 스킨로션을 냉장고에 잠깐 넣어 차게 만든 다음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달아오른 부위에 얹어 피부의 열기를 식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일이나 채소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천연팩도 피부 진정을 돕는다. 천연팩을 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면 팩의 흡수가 잘된다.

바나나팩: 중성피부에 적당하다. 바나나를 갈아서 꿀, 요구르트와 섞는다.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10~15분 후 물로 씻는다.

오이아이팩: 민감한 눈 주위를 밝게 만들어 준다. 늦은 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이를 갈아 요구르트와 섞는다. 랩을 이용해 티백 2개 분량을 만든 다음 5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둔다. 차가워진 오이팩을 양쪽 눈 위에 올려놓은 뒤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떼어낸다.

키위팩: 기미, 주근깨, 잡티를 없애주기 때문에 얼굴빛이 화사해진다. 껍질을 벗긴 키위와 오이를 강판에 간 뒤 해초가루를 약간 넣고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섞는다. 눈 주위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뒤 10분 후에 닦아낸다.

토마토팩: 토마토는 지성피부에 가장 잘 맞는 재료지만 산성이므로 민감성 피부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토마토를 갈아 요구르트와 골고루 섞어 얼굴에 바르고 10분 후 씻어낸다.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10분 후에 씻어낸다.

벌꿀팩: 건성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달걀노른자를 휘저은 뒤 벌꿀과 아몬드 오일을 넣고 섞는다. 얼굴에 두드리듯이 바른 뒤 1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1>

오이 즉석 장아찌와 오이나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에 저의 영양과 생명이 담겨 있다면, 여름이면 하루하루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달리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선 올 여름을 또 어떻게 버텨 나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입맛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야겠지만, 가정이나 사찰에서도 특별한 반찬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같이 많은 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이뤄지고 있는 때 '절 밥이 맛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절을 찾는 사람들에겐 이만저만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처음 갔던 템플스테이에서 먹어본 것이라곤 장아찌와 김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여름 사찰엔 반찬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찰 장아찌는 스님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먹을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여름엔 땀으로 배출되는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장아찌를 담아 여름 저장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죽에도 어울리고, 반찬으로도 어울리고, 또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로도 좋고. 여름엔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사찰을 찾을 때면 '이 절엔 어떤 장아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사찰음식 동호회 회원들과 정선의 한 작은 사찰에 들렀을 때 그곳 스님께서 어수리로 담근 장아찌를 내놓으셨는데, 그 향이 아직도 제 입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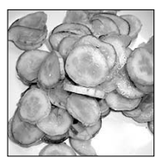
올해는 장마도 일찍 온다고 하는데, 장아찌를 담가 장마철 입맛 없을 때 특별 메뉴로 식탁에 내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맛있게 담근 장아찌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택배로 보내드리는 센스를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



<오이 즉석 장아찌> 재료: 백오이 2개, 양파 1/2개, 마른 고추 1개, 통후추 3알, 단촛물(물 1과 1/2컵, 설탕 1/2컵, 감식초 4큰술, 소금 5큰술)

① 양파는 굵직굵직하게 채 썰어준다. ② 오이는 큼직하게 삼각형으로 썰어준다. ③ 단 초 물을 한번 끓여서 완전히 식혀준다. ④ 준비된 재료를 식은 촛물에 담가 20~30분 정도 둔다 . ⑤ 어느 정도 절여지면 병에 옮겨 담으면 된다. ⑥ 반나절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



<오이나물> 재료: 오이 2개, 홍고추 1개, 포도씨기름 약간, 죽염, 참깨, 표고버섯가루 약간

① 오이는 원형으로 썰어서 죽염에 절여준다. ② 어느 정도 절여지면 찬물에 헹궈 꼭 짜준다. ③ 고추는 씨를 배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준다. ④ 꼭 짠 오이를 프라이팬에 포도씨기름을 두르고 단시간에 볶아준다. ⑤ 다 볶아지면 불을 끄기 직전에 표고버섯가루와 죽염, 참깨, 홍고추를 넣어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감자 피자와 감자 건강 드링크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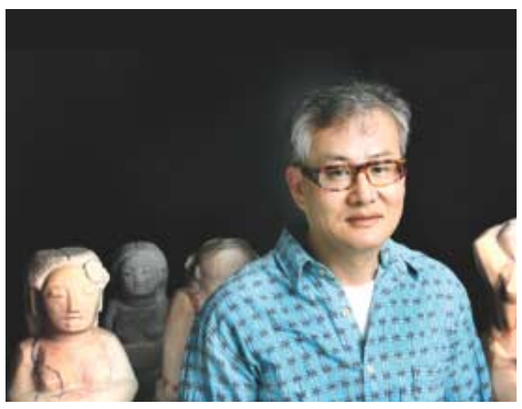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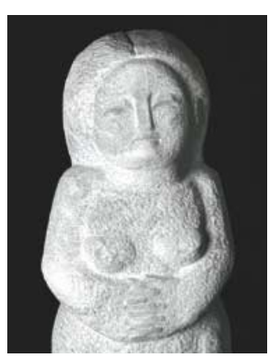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011-9852-0075 (총무스님)



조각가 박종민씨는 주로 대리석을 사용해 소박한 여체와 불상을 조각해 왔다.







투박함 속의 아름다움

불상과 여체의 독특한 만남 눈길

조각가 박종민씨가 '불상과 여체'라는 독특한 주제로 6월 7~27일 서울 가회동 북촌미술관에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1995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일곱 번째인 이번 개인전은 여체 조각을 주로 선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불상과 여체의 만남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대리석의 특성을 살려 투박하면서도 거친 돌을 따스하고 온화하게 살려낸 박종민씨의 작품들은 깨달음과 불상으로 대변되는 피안(彼岸)과 아름다움의 대명사 여체로 대표되는 차안(此岸)의 만남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을 든 관음보살입상' '시무외인 아미타여래입상' '합장 관음보살입상' '선정인 여래입상' '석가모니 좌상' '삼매 속의 보살좌상' 등의 불상들과 '봄봄' '문득' '하늘아' '수줍음' '기다림' '순이' 등 전통적인 소박함을 드러내는 여체들이 나란히 선보인다.

부드럽고 섹시한 여체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가 만드는 여체는 투박하다. 거칠고 딱딱하면서도 표정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 불상 역시 다르지 않다. 평평하고 네모난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수인을 하는 부처에서부터 연꽃을 고이 들고 서 있는 관음보살에 이르기까지 투박함 속에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그동안 여체 조각으로 일가를 이루었던 박종민이 근래 불상에 몰입하고 있다"며 "도를 닦는다는 일념으로 돌을 깎아 작업한 작품들인 만큼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직설적 비교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02)741-2296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박종민 조각展 '불상과 여체'

서울 북촌미술관, 27일까지

禪 바탕에 강렬한 색의 조화

김상수 사진展 '도시의 색…'

서울 공근혜갤러리,7월 16일까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과 도쿄 그리고 파리에서 사물과 이미지들의 한 부분을 근접 촬영해 최상의 색감을 표현한 이가 있다. 미니멀한 형태 속에서 강렬한 색상과 추상적인 단면을 드러내는 작품들. 사물의 색과 빛에 초점을 둔 이 사진은 보는 이에게 색의 파장에서 울려 나오는 에너지에 몰입하게 만드는 회화성까지 띄고 있다.

작품 앞에서 사진인가, 회화인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김상수씨의 사진전 '도시의 색(色)-서울 도쿄 파리' 전이 6월 8일~7월 16일 서울 팔판동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린다.

갤러리를 잠시 엿보자. 파리의 사진들은 예술의 도시 다운 다채로운 원색과 파스텔 톤을 다양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과 도쿄의 사진은 그 바탕에 선(禪)사상에 뿌리를 둔 동양철학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무채색 계열의 사진들과 이에 상반되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역동성이 담긴 원색 계열의 사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

김상수씨는 "서울은 검은 돌의 기운과 파란색 기운이 수평으로 떠도는 느낌, 도쿄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흰색으로 둘러싸인 컬러, 파리는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나는 보라색과 연회색이 푸른 기운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번 전시는 김상수씨가 바라본 세 도시의 색을 공감해보는 기회다.


김상수 作 '2006 Tokyo'.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우치다는 그의 사진을 "선(禪)의 사진"이라 했고 <칼의 노래>의 소설가 김훈씨는 "아름다운 추상 회화"라고 평했다.

열아홉 살에 연극 '환'을 직접 쓰고 연출해 예술계에 입문한 그는 대종상 각본상을 수상한 '학생부군신위' 다큐멘터리 '만해 한용운' 등의 대본 집필, 설치미술전, <파리의 투안 두옹> 사진 산문집 발간 등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설치 · 조형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김상수씨의 도시 사진들을 통해 그가 주장해온 "예술작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삼라만상과의 관계,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건들에 어떻게 진정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02)736-7776 강지연 기자

12지신의 난타와 춤 사람도 아라한도 '신명'

'배달겨레와 부처놀이' 국립극장 달오름

쥐 호랑이 용 등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로 시선을 휘어잡는다. 명지중학교 학생들이 선보이는 십이지신들의 난타무 '십이지나희'로 시작해 '뒷풀이-품바'로 회향하는 '배달겨레 부처놀이'는 6월 22~23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법사회(이사장 목정배) 부설 한국불교문화예술연구소(소장 방추)의 범라무군(Bodhisattva Dancing Troupe) 불교무용단이 명지중 세명컴퓨터고 학생들과 함께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난타무는 전통의 맥을 담은 법고무로 변화하고, 목정배 작시 박범훈(중앙대 총장) 작곡의 찬불가는 방추 스님(범라무군 불교무용단 단장)이 안무한 창작 바라나비춤 '미륵님 오시네'로 화려한 손짓을 펼친다.

북 장구 꽹과리 징의 사물과 종 운판 목어 법고의 사물이 만나 흥겨운 울림을 표출해내는 '사물과 법사물의 만남',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산타령' 전통화관무의 안무를 응용해 부처님께 올리는 범천과 나한의 춤으로 꾸민 '화관무'가 이어진다.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통합극 형태로 탈바꿈한 '회심곡', 창작찬불가와 나비춤 바라춤이 만난 '천둥소리와 연잎바람'이 이끌어간다.

'회심곡'은 전체 일곱 마당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마당을 총 3부로 꾸몄다. 창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이 병들고 죽어 저승의 심판을 거쳐 극락으로 가는 과정이 무대극으로 펼쳐진다. 나비춤과 바라춤이 마당극 형태로 변신하기도 한다.

'천둥소리와 연잎바람'은 현대무용의 형식을 많이 가미해 볼거리가 풍성하다. '뒷풀이 품바' 마당에서는 원효스님의 무애춤을 이어받아 불교를 민중 속으로 회향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02)2554-1671 강지연 기자

고은 · 도종환 시인 신작 선보여

고은 시인의 신작시 특집과 도종환 시인의 신작 소시집이 실린 <불교문예> 여름호가 나왔다.

'산수유꽃 핀 날' '숨' '낙엽' '빈몸' 등 5편에 달하는 고은 시인의 신작시를 선보였다. 고은 시인의 이번 시는 "선적 발상과 호방한 정서가 서로 융합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뒤집기 상상력이 시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공광규 시인의 시평이 따라 붙었다.

도종환 시인은 '처처불상' '폐사지' 등 5편의 신작시를 선보였다. 문학평론가 이성혁씨는 "이번 도종환 시인의 신작은 세상으로 귀환한 시인이 자신의 망명정부인 산사를 무너뜨리면서 귀환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론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선시와 현대시의 회통'을 주제로 '선시의 수사법과 현대시' '현대시의 선적 상상력, 그 현실과 문제' 등을 다룬 기획특집이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 문학상당선작 특집도 담겼다. (02)308-9520

강지연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꿈! 미래의 열쇠



꿈의 내용을 물어 질병의 원인을 알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 몸에 잠재한 초능력이 꿈을 통해 가르쳐 준다→
그 가르침을 잘 해석하여 슬기롭게 미래를 풀어나간다
다만, ① 우리 몸에 잠재한 유전자,
혹은 전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므로
자칫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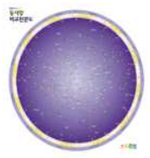
→꿈의 해석원리를 유식이론에 의해 밝히고
꿈풀이 항목 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를 적어 놓은 책
이 한권이면 나도 꿈 해몽의 전문가!

꿈! 미래의 열쇠/ 현오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512쪽/ 20000원

생활활용 CD

CD성명학 2만원 / CD하락이수 30만원
CD자미두수 40만원 / CD육임 10만원
CD기문둔갑 1만4천원

천문 태을천문도 6만원
전정판 천문류초 2만원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천수경은 80여 불보살님들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글이다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황금실로 수놓아
불보살의 친견과 선과의 힘으로 소원을 빌면서
비밀리 존중되었던 그림 천수경
그 진실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 권만 필사해서 전파해도 부처되는 공덕!
그냥 천수경만 외워도 10악을 면한다는데
공덕을 쌓아 실천하는 불보살님들을 친견하듯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 그 공덕이 어찌 되겠소?
그림 천수경을 가까운 친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복덕과 마음의 평화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옴 그림천수경/ 대명스님 엮음/ 신국판 양장/ 337쪽 / 12000원


대행스님

자기 불성 주장자를 꼭 잡고 살아야!

좌선시 근본을 증명 받는 방법

문 선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청년법우입니다. 좌선을 할 때 본래 있는 나의 근본을 느끼고 알고 싶다면 '네가 있다면 이 손을 한번 들어 봐라'든가 '주먹을 한번 쥐어 봐라'든가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해 보라고 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또 자기 이외의 경전이나 자기 이외의 어떤 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의 세계의 정신계, 정신계는 자기 지금 주인공 불성이 있고 물질계에는 내 육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돌아가죠? 돌아가니깐, 얼른 쉽게 말해서 물질계보다 정신계가 한 단 위예요.

그러니깐 정신계가, 즉 말하자면 주지가 되는 거죠. 주추가 되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물질계의 나는 정신계의 나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네가 형성시킨 몸이니까 네가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고 너만이 지켜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의사가 돼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애를 임신했을 때 탯줄에 앉아서 그 탯줄에 달린 젖병을 가지고 애가 똥 누고 잠자고 먹고 그러고 길러지거든요. 그와 같이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탯줄이라는 것은 둥글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근본 자리에서 젖병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 불성, 주장자, 그러니까 주장자를 꼭 잡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장자만이 나를 이끌 수 있고 광대하게, 쉬지 않고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자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모든 게 참선으로 둥글려서 돌아가거든요, 진리니까. 그러니 저녁에라도 한 10분 동안이고 15분 동안이고 앉아 있으면서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이 나야 인제 이 물질계하고 정신계하고 상봉이 되는 거죠. 통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통신이 돼야 이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의 그 공용(共用)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용(用)을 하는 것, 움죽거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공부할 때 그냥 계속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인공을 믿는 거지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니깐 믿는 거라고요. 나무가 뿌리 믿듯 말입니다. 이 나무가 자기 뿌리가 없으면 싹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싹은 뿌리를 의지하고 믿고 살고 또 뿌리는 싹을 도와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면서 '주인공, 너가 있다면 이 손을 들어 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내가, 이 물질적인 나보다 한 단계 위의 자기 조상인 불성, 그게 과거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듯 하면 안 되죠. 명령은 강제로 '이것 들어 봐라!' 이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질 말고, 예를 들어서 '주먹을 들어 봐라!' 했을 때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탁 들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강요하고선 금방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강요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터득을 했어요. 나는 뭐 내가 경전을 봤나 누구한테 제대로 배우기를 했나. 그런데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하도 이게, 심심하다고 그럴까 뭐 어쩌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때는 어리니깐 그걸 아빠라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있으면 진짜 이 손을 들어봐!' 이랬거든요. 나는 터득을 해서 통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인제. 그걸 모르니깐 '나와 봐!' 이렇게 하는 거 벌어진 거로구나! 과거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나를 진화시키고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형성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까지 이끌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 아빠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내 자식 아님이 어딨으며 내 부모 아님이 어딨으며 이 우주가 전부 선 도량 아닌 게 어딨겠나. 전부가 도량이고 전부가 내 모습이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모두가 그렇구나. 길고 짧음이 없구나.' 그냥 이런 게 나왔죠.

그랬듯이 이것도 요량이 있어야 돼요. 강요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한 단계 위다, 정신계가. 나는 과거로부터 진화시키면서 자기를 형성시켜 온 자기인데 지금 현재 나는 자(子)란 말입니다. 그 한 단계 아래란 말이에요. 그건 부(父)가 되고 이건 자가 되죠. 그러면 자식이 애비더러 '이것 좀 올려 봐!' 이럭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천천히 '그래라. 올려 보겠다.' 하고 '올려 주마!' 그러고서 인제 생각을 잊을 만한 때 그때 이렇게 천천히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뭐가 어떠니 해도 우리 스님들이 자청해서 무엇을 해 준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쪽에서 와서 건드려야 이쪽에서 주는 거죠. 자청해서 주는 거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깐 모든 게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도리가, 자기 자신을 형성시켜 온 자기 주인공을 통하지 않고는 이 연기법이나 오신통, 이런 거를 도무지 몰라요. 이걸 통해야 '아,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구나. 체가 없으니깐 그냥 여기서 저 미국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또 이승에서 저승으로 점프할 수도 있구나. 저승에서 이승으로 점프할 수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자꾸 배우는 거죠. 스승이 인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 과거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하다가도 지치잖아요? 싫증이 나잖아요, 안되면. 그런데 안돼서 답답하게 될 때에 '답답한 것도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해 봐. 답답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 좀 들어 봐.' 하고선 이렇게, 딱따거리지 말고, 간절히! 딱따거리는 게 다르고 간절히 하는 게 달라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은산철벽을 뚫으려고 정을 갖다 대고 두들기는 거와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애라고 비유한다면 막 보채고 우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울어라.' 그러는 거죠 그럭하다가 지치고 답답하면 '에잇, 고만 둬라.' 이러고 팽개치죠?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월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다 하는 막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네가 답답하게 하는 거니깐 답답지 않게 해!' 그러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땐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해. 이건 눈이 침침하잖아!' 그냥 그러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 '좀 의욕이 있게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금방 달라져요. 그렇게 하고서 살지, 그걸 철판에 콩 볶아 먹기로 하면 되나요? 콩 볶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본래 나한테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꺼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거, 진짜로 믿는 거, 믿는 거를 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보다가 이게 인제 자꾸 저거 하면 '내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있다면, 주인공 당신이 정말 있다면 손 좀 들어 보든지 손가락을 들어 보든지 해 봐!' 이렇게, 그냥 인의롭게, 답답하지 않게, 되든 안되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그래 인제 거기다가 넣고 그렇게 할 때에 이거는 마음이 생겨야 육체가 움죽거리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육체가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가만 놔두고 이렇게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움죽거리는 건 아는데 난 아주 당신을 통해 보고 싶어. 그러니깐 이걸 좀, 손가락이라도 움죽거려 봐.' 이렇게 그냥 다정한 뜻으로 이렇게 그냥 해 보는 겁니다. 다정하면 빨리 해 줄 거고 다정하지 못하고 명령조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곤 정히 화가 나면 나중에 인제 그냥 잊어버렸을 때 손이 들리게끔 하죠.

이 주인공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걸 못 믿습니까? 못 믿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자꾸 통하게 하기 위해서 보채라. 애기가 젖 달라고 울듯 보채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한 10분 동안이라도 그렇게 자꾸 보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은산철벽을 뚫으려고 정을 갖다 대고 두들기는 거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이 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

문 분명 배워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없이, 함이 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냐 생각해 본다면 그냥 생활이 불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 살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참선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여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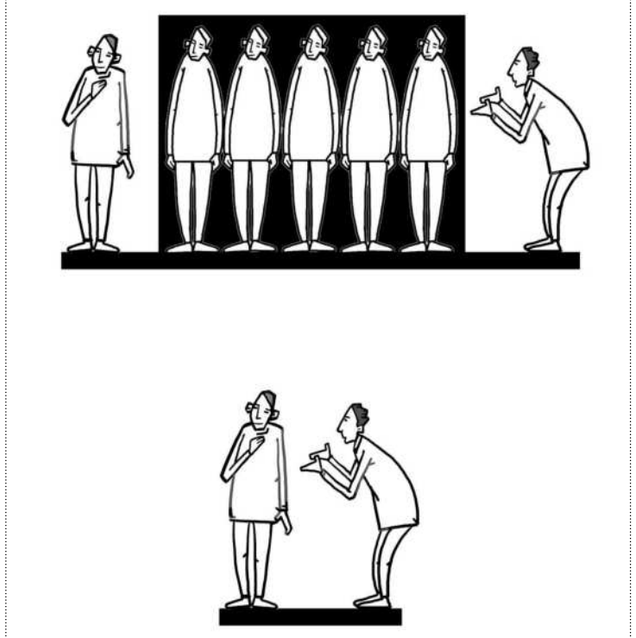
마음을 썼다고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의 노릇을 해 줘야 되겠죠.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을 해 줘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를,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했을까 또 아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함이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에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를 자기 자신들이 하시고도 하신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 과거를 외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쩔쩔 매고, 1초 전도 과거니까요. 1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공했단 얘기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듣습니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듣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거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선 공용(共用)입니다, 공용! 공용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 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장,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다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추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수효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헤아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 즉 말하자면 하나면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깐 공용(共用)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아파서 관하면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이 안돼서 관하면 관세음이 돼 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 또 보디가드가 돼 주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자꾸 통하게 하기 위해 애기가 젖 달라고 울듯 보채라

☞30면으로 계속

모든것 내탓으로 보는게 눈 뜨고 푹 자는 것!

☞29면에서 계속

것대로 현실로서의 그것이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죠.

모든 주처는 자기네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주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처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주처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죠. 그러게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돕고 이래야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불교라는 것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이치가 바로 우리가 모르니깐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어느 혹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치게 됐다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거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변한 겁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혹성이, 내가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와 같이 사람은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거는 벌써 100년 200년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어디가 이것이 꼭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렇게 한다. 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다.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그냥 그건 난설이에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이렇게 이 컵이 지구라면,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 벌써 1초 후면 이렇게 딴 데 가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늙고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변화가 무쌍하죠.

그러니깐 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한 게 없이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왔죠? 죽어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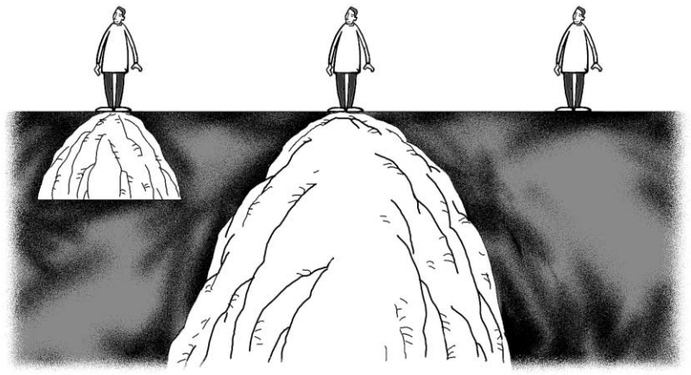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뜻을 말로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다

정법 아닌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문 스님께서는 오직 마음으로만 돌으라고 하시는데 세상에는 길도 많고 진리로 가는 방법 또한 한 가지만은 아니어서 정법 아닌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답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그르단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정법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응. 그것도, 그것도 옳다." "저 얕은 산은 저 높은 산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얕은 산도 옳고 높은 산도 옳다." 그래서 한 번 죽기는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죽기는 쉬운데 같이 죽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두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전부 같이 나투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 뜻을 말로만 횡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티끌 하나 붙질 않아요! 그르고 옳은 게 붙질 않아요.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다가 '아, 저건 틀리다. 저건 옳다.' 그런 걸 가지면 절대 이건 할 수 없어요. 미지수의 그것을, 한 구녘도 없고 티끌도 없는 그걸 한숨에, 잠나에 뚫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뚫을 수 있을는지 모르죠. 허나 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도 따지니까. 왜 그렇게 달기는 좋아하는지…. 달기를 좋아해서, 그 몇 근이나 되는지 그게 의심이 난다고요.

우리가 한번 '야, 참 너 만나서 좋구나.' 하고 아주 웃으면서 그 소리 한번 하는 게 몇 근이나 될까요? 그래서 나는 그르고 옳은 것을 '선을 지킨다면 선의 업이 있고 악으로 간다면 악의 업이 있다.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잘되고 못된 거를 다 놓지 않는다면 그건 치우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조금도 틀리지 않는 부동한 자세로서 그 긍지를 가지고 지축이 흔들리지 않게 있음으로써, 사방에서 조여드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붙어도 타 버리고 맙니다. 타 버리는 관계상 살아나는 거죠. 이 유생 무생이 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우리 인간 하나하나도 혹성이다 이겁니다. 별성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한 점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온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저울질하다 간다면 저울질밖에 못하지 어떡합니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도 차원대로 살고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원이죠, 뭐. 장사하면 장사꾼들대로 모일 거고,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내공을 볼 수 있을 때 홀연히 그 내면으로 하여금 '천리도 요 눈앞이라 조그마한 그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 세계를 집어삼킨다.' 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몽탕 다 태워 버리나? 본래 태워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그렇죠. 무조건이지, 뭘 이렇게 답고, 저렇게 답고. 그게 도대체 몇 만 근이나 된다고….

나는 그전에 8 · 15 해방되고 나니까 스무 살이 됐고, 그때 한 큰스님한테 갔는데, 예전에는 차가 없고 참 길도 험악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거기 가려면 무지하게 차를 타고도 하여튼 무지하게 걸었단 말입니다. 홍성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주 그건 뭐 길도 험악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서 그렇게 갔으니, 얼굴은 뭐 흙투성이고 그건 뭐 말도 못해요. 나 생긴 거 보세요. 조막댕이만한 게 얼마나 그때 험했겠나.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스님! 얼마나 가면 죽겠습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눈 뜨고 푹 자면 돼. 죽는 거야, 그게." 이러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실감났어요.

눈 감고 자는 거는 그게 자는 게 아니죠. 눈 뜨고 자야, 어디 시장바닥에 갖다가 팽개쳐도 우뚝우뚝 서죠. 잘된 거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또는 잘된 거 못된 거를 건져 들어도 아니 되고,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그걸 계산해도 아니 되고…. 그건 그런 거죠. 그래서 속으로 똑똑하더라도 좀 겉으로 무식한 척하면서 둔한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관을 통해서 이 사량으로 전부 알거든요. 이 머리로 다 알아버려요! 감각이니 지각이니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여기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길 통해서 다 그냥 자기한테 전부 오는 게 있으니 그 놈의 오는 거가 수많은 게, 헤아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놈의 걸 세웁니까?

언제나 누구나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탓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 갔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내 탓이죠. 못난 내 탓이란 말입니다.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내 탓이에요. 그 내 탓이라는 그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언짢은 일이라든가 부부지간이라든가 자식지간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참 이익하게 말을 상하지 않게 해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서 상할 일이라면 하지 말고 안에다 굴려야 하고 안에다 놔야 된다 이겁니다, 내공에다. 모든 걸 내공에서 나오는 건 내공에다 다시 놔야 됩니다. 잘되고 못되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안돼서 말겨 놓고. '나는 공부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이 공부다, 저런 것이 공부다' 이런 걸 다 놔야 돼요. 급하다는 거까지도 놔야 됩니다.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내가 나온 자리, 내가 낳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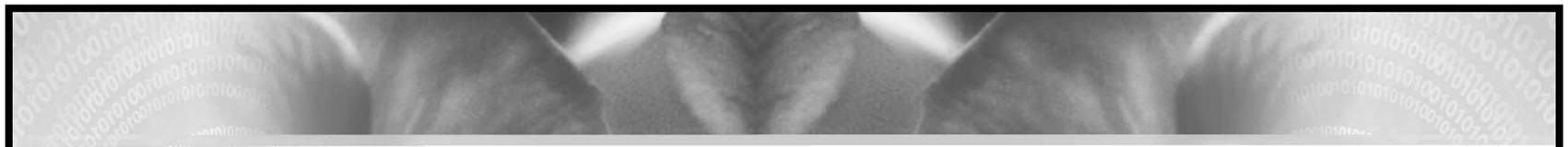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안녕하세요, 김혜옥입니다.

넉넉한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삶의 지혜가 함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전 11시 5분,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광주 89.7 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97.7 Mhz /포항 105.5 Mhz

‘향상일구’ 이룰때까지 (중)

(向上一句)

이만덕 (서울 은평구 대조동)


그림 · 문병성

부산에 도착하자 제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살님들 틈에 끼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화두 의심이 지속되는 시간은 더욱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결국에는 화두 의심이 사라지는 상황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두를 들면 제 안 심연을 향해 화두의심이 쭉 이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화두 의심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에 막혀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했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바닥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이라 변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샘을 파다가 우물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화두 의심이 저절로 솟아났습니다.

이후 서울 안국선원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마음만 가면 화두 의심이 생겼고 화두 의심 역시 힘차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쉽게 들리는 화두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두 의심이 거칠게 들림과 동시에 저를 괴롭히는 기운들도 덩달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운들은 제 몸을 빙빙 돌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놓아버리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두들 들면 나타나는 괴로운 기운들을 몸으로 받아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화두의심은 저번처럼 답을 찾기 위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화두의심은 거칠었으나 흘러가는 중간 중간에 제 팔을 들었다 놓았다 하기도 하고 목을 회전시키기도 하며 상체를 굽혔다 폈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난 소 등에 타고 있는 듯이 화두 의심은 거칠게 움직였고 괴로운 기운들도 몰려 왔기에 이를 몸으로 받아 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두 의심은 일정한 굴곡을 형성하면서 흘러갔습니다. 화두 의심이 흘러가는 파장과 이에 수반하여 움직이는 몸을 보면 지난번에 갔던 길 중 이번에는 어디 쯤 가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10시간 이상을 화두의심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화두 의심이 사라지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가 왔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채 1분이 지나가고 2분이 지나가자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서 엄청난 기운들이 소용돌이치면서 밀고 올라 왔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상황을 깨버리기 위해 거센 기운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조금씩 뚫고 나왔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자 8만 4000 세포들이 일제히 곤두서서 저를 괴롭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센 기운들이 밀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버티느라 힘들었습니다. 밀고 올라오는 힘이 얼마나 쎄든지 저는 좌복에 앉아 있다가 3m 정도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10시간 이상 의심, 호흡 끊어지는 경계 체험
간절하게 부딪치니 화두 참구 속도 빨라져

그리고 똑같은 경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두의심을 이어가면서 10여 시간 이상을 참구해 가자 또 같은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호흡이 끊어진 경계를 건너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를 피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화두 참구 중에 호흡이 끊어질 경계가 나타날 즈음에 이르러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화두를 참구하다 화두의심이 사라지면서 호흡도 끊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론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깨버리기 위해 밀려 나오는 강한 기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자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에서 마치 제가 경계를 건넌 것 같은 편안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한 바다처럼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법회 하시러 서울에 올라오시자 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 떨어지기를 수 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회해서 답을 찾을 생각을 하였는데, 제 힘으로 안 되더라도 간절히 하다보면 도와주는 기운이 나타나 밑에서 쳐준다는 말씀에 다시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두가 사라지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이 오면 온 몸으로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가떨어지고…. 다시 화두를 들고 버티다가 나가떨어지고….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면 저를 도와주는 기운이 나타나 저를 밑에서 쳐 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 종일 화두 의심이 지속되어야만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가 나타났는데, 갈수록 이 경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갔습니다. 이 경계까지 가능한 빨리 도착해야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므로 마음이 조급해 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화두의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저는 선방 벽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습니다. 그러자 화두 참구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즈음에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우면 먹구름처럼 느껴지는 기운들이 얼굴 위부터 등 뒤까지 몰려다니면서 제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 날도 역시 먹구름 같은 기운들로 인해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방에 앉아 화두를 들었는데, 10분도 안돼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가 왔습니다. 다시 들면 5분도 안 걸리고 심지어는 화두를 들자마자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가 왔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에서 버티려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사용해야 하고 온몸의 신경이 끊겨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튕겨 나갈 때 마다 몸은 기진맥진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에서 튕겨 나가기를 수 십 번 반복하였습니다. 경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커질수록 혹시 이러한 경계가 답을 찾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떠올랐고 스님은 화두 공부하다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하다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곁에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물어 본 뒤 화두를 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래서 화두 공부할 때 부처님 법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대신심’이 필요 하구나 느꼈습니다.

9월 중순에 추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향집에 다시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화두 참구를 하였습니다. 초보자 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차소리, 창문 밖에 있는 참새 소리까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화두는 잘 들렸고 의심도 지속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쥐를 잡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선 화두 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스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화두를 들고 똑같은 지점에 다다라서는 가만히 화두 의심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흘러만 갔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사계절 단화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 가격 : 80,000원

망사 단화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 가격 : 60,000원

기능성 지압 깔창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규격 : 215-290mm(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사 과 문

본 시다림다비작법, 재의식, 편집인 방진원은 편집과정에서 불교의식각론II (재의식:관욕수인 외 지장청사 2.3. 부록편 위패서식). 다비작법VII. VIII 권에서 본의아니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여 무단으로 편집 하였 으므로, 저자 심상현스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이에 정중히 사과문을 올립니다.

가능한책자 전권을 회수하였고, 판매중지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차후 무단편집을 하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0년 단오절 방진원 합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암
● 주 지 : 도심 (문화부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 동 393-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이화청기와공장

● 5형 청기와
장당 3,500원부터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장 1,500원부터 도착 (하차별도)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겸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겸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 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하얀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아! 봄날씨같이 포근한 님…

불화 속의 명장면 (10)

日 교토 천옥박고관 소장 '수월관음도' (하)


그림1 : 원만한 수월관음의 얼굴과 달과 같이 둥근 두광

대자연을 번뇌 식혀주는 법신으로 사용, 중생 조복케

물에 투영되는 달그림자는 머뭄없는 묘행(妙行) 상징

금강보석 기암좌에 걸터앉은 수월관음의 발치 아래에는, 냇물이 흐르고 진귀한 산호와 보련화가 피어오르는 연못이 있습니다(그림1, 그림3, 그림4).

그 좌측 끝단에는 자그마한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그림2).

선지식(眞理)을 찾아 가없는 여정을 떠나 헤매는 선재의 간절한 눈빛과, 이를 굽어보는 자애로운 수월관음의 눈빛은 드디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림3 : 투명 사라의 끝자락,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물

'선지식과 만남' 이란 주제 넘어 화엄경 전체 의미 함축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화한 달빛, 대비력(大悲力)의 작용

주지의 사실대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제28번째 선지식인 관자재보살과 선재가 대면하는 장면에 그 교리적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대목만 가지고는 '수월관음(水月觀音)' 이라는 그 명칭서부터 뭔가 풀리지 않는 도상학적 과제가 많이 남습니다.

선재동자의 기나긴 구법(求法)의 여정에 일관되어 관통하는 화두(話頭)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菩薩行)을 배우며 보살도(菩薩道)를 닦느냐"라는 것. 즉, '어떻게 부처님 친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여러 보살들과 선근(善根)을 같이 할 수 있는가(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이 어떻게 유위(有爲)를 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에 머물지도 않으면서(無爲) 보살행을 하는가'.

이 상반되는 유위와 무위, 정반합(正反合) 병행의 미학(美學)이 바로 '물(水)에 비친 달(月) 그림자' 입니다.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숨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한 몸 또는 여러 몸으로 나투기도 하는 걸림 없는 대비행(大悲行)의 해탈문, 구경무애(究竟無碍)의 보살행(菩薩行)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달로 천 개의 강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달에서 무수한 달을 내는 '월인천강(月印千江)의 묘법(妙法)' 이기도 합니다.


그림2 : 선지식(善知識)은 어디에(구도하는 선재동자)

이는 바로 '지혜의 광명(一切智智)' 을 얻음으로서 가능한데, 이 무명의 어둠을 사르는 청정한 달빛과 같은 지혜의 빛은 곧 대비력(大悲力)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미치지만 결코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보살의 대자비심은 밝은 달뿐만 아니라, 대지(大地) · 큰 바다 · 밝은 해 · 큰 구름 · 큰 비 등의 작용에 비유되기도 하여, 대자연의 법(大自然之法)이 다름 아닌 대지혜의 법(大智慧之法)임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선재동자는 '보살행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구하라는 문수보살의 첫 계시를 받고, 비구 · 장자 · 우바이 · 뱃사공 · 여인 등의 많은 선지식을 거칩니다. 위에 언급한 관자재보살과의 대면은, 이러한 멀고도 고단한 구도의 편력 이후, 선재동자가 처음 '보살' 이라는 존재와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남쪽 바다 위에 산이 있어 이름 하여 광명(光明)이라 하고, 그 산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그는 이미 '대자비 광명의 행' 을 증득한 보살이라 하니,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도상의 형식은 이 <28번째 선지식인 관음보살과의 대면 장면>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월관음도>에는 단지 이 장면에만 근거한다는 협시적인 의미를 넘어선,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보살(菩薩)' 을 대표하는 포괄적이고도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연재9회)에 언급한 수월관음도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은, 수월관음에서 발산되는 달빛과 같은 '청정(淸淨)한 자비의 광명(光明)' 입니다. '둥근 보름달은 원만한 대비장(大悲藏)이고 이 대비장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조복케 하여 마침내 피안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나 구석구석 비추어주는 해(無量光, 普光明)?어디에나 내려 일체 만물을 적시어 윤택함을 더하는 은혜로운 비(法雨) · 세상의 모든 강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달(水月), 그러고 보니 해로 · 달로 · 구름으로 · 비로 · 바람으로, 법계에 충만한 이러한 법신(法身)의 방편들로 일체 중생은 항상 그 무량한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었군요.

무량한 빛과 같은 법신의 존재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찬란한 대광명인 태양빛이 여래(體)의 용(用)이라면, 은은한 자비의 달빛은 보살(體)의 용(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렬하고도 파워풀한 태양빛은 여래 중의 여래인 '비로자나' 에 비유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화한 자비의 달빛은 보살 중의 보살인 '관음' 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물에 투영되는 달그림자' 라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또 한 존재하는 바 없는 이러한 자연 현상은, 금강경 및 반야심경에 역설되어 있는 '형상을 여읜 형상(一相無相, 離色離相, 法身非相)의 머무름이 없는 묘행(妙行無住)' 을 절묘히 설명해주는 메타포가 됩니다.

일체 보살 만행(萬行)의 수행 지침서인 능엄경에도 이러한 체(體)와 용(用)의 논리가 물에 비친 달, 즉 물(水)과 달(月)의 관계로, 그 진성(眞性)의 공(空)함이 구구절절 논해져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가 뜨거운 불이라면 이를 식혀주는 것은 청정한 자비의 달빛입니다. 노자에는 이러한 청정(淸淨)함에 대한 간단명료하면서도 기막힌 정의가 실려 있습니다.

'열기는 냉기를 이기고/청량은 열기를 이깁니다/청정(淸淨)이 곧 천하 안정의 묘약입니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남쪽 해변가를 순례하던 중, 큰 바다에 큰 비가 내려도 가득 차지 않음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 모든 선근(善根)의 싹을 자라게 하고, 선지식은 마치 보름달과 같아 청량한 교법의 광명으로 모든 곳을 서늘히 비추어 번뇌를 없애네'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그 따사로운 빛을 받으며 양산 통도사의 적멸보궁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의 주련(柱聯)에는 다음과 같은 주옥같은 선시(禪詩)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이 은하수에 갈리고 닦여 둥근 모습이루니 / 맑은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천세계 비추네 / 원숭이가 팔을 내어 부질없이 못 속의 달을 건지려 하지만 / 고독한 달은 본래 청천에서 떨어진 바 없고 / 묵묵히 보리(菩提) 대도심(大道心)과 계합하고 있네.'


그림4 : 미풍에 휘날리는 옷자락과 수월관음의 발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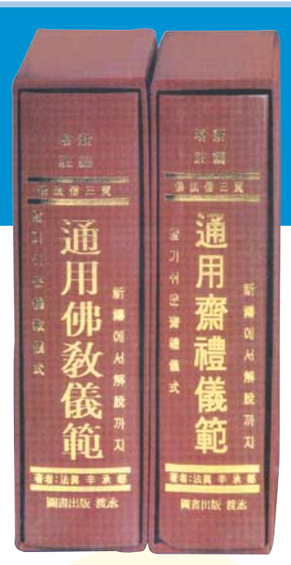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